

『傷寒全生集·辨傷寒發熱例』 등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崔東洙¹ · 申榮日¹ ·

A Research on the Pulse & Disease-patterns and Diagnostic Theory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the SangHanJeonSaengJip(傷寒全生集)

Choi Dong-su¹ · Sheen Yeong-il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Sanghanjeonsaengjip(傷寒全生集)』 is a classic medical work, written by the outstanding physician DoHwa(陶華)in the Ming Dynasty. The characteristic of SangHanJeonSaengJip(傷寒全生集) is that this book succeeded to the spirit of pattern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newly changed a table of contents by symptoms, and together with this indicated the prescriptions in accordance with diswase-pattern at YuJeungHwallnSeo(類證活人書), HwaJeGookBang(和劑局方) etc. Also because this kept the existing ephedra decoction, cinnamon twig decoction, minor decoction of bupleurum, decoction for reinforcing middle-energizer and replenishing qi etc.'s name on and unlikely indicated the medicine composition, it caused confusion, but at the later ages EuHakIpMun(醫學入門) the so-called 'Doci(陶氏)' was added to the prescription name, so we are able to distinguish. Together with this, this book dose not indicate the dosage of medicine and indicates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classes(上中下) below medicine. As this dose not mean the three grades of quality—good, fair, and poor(上中下) of『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but expresses the sovereign medicinal as the first class(上), minister medicinal as the second class(中) and assistant and courier medicinal as the third class(下), doctors can voluntarily decide the dosage of medicin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disease

At this thesis, I single out ten chapters in contents of 2nd volume named Hyeong(亨) corresponding to the details, among SangHanJeonSaengJip(傷寒全生集). I discussed superficial fever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1, aversion to cold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2, syndrome caused un-sufficient sweating in chapter 3, organic fever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4, aversion to wind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5, Tidal fever type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6, Alternative attacks of chills and fever in chapter 7, Dysphoria with smothery sensation in chapter 8, Fidgetiness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9, and Headache of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chapter 10, and together with this I discussed, in detail, which influence the prescriptions which are listed on each

chapter have caused on future gen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I think that the above-mentioned symptoms and prescriptions are important when I research cold damage and warm disease study. So I orderly research revision, annotation, rendering and an investigation.

Key Words :

I. 序論

『傷寒全生集』은 陶華¹⁾의 末年著作으로 傷寒論의 編制, 傷寒의 脈法, 用藥法, 診斷法 등 傷寒論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傷寒病의 證候, 診斷, 處方用藥에 대한 臨床의인 理論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陶華는 “『傷寒雜病論』이 세상에 전해진 지 오래되어 遺失된 것이 자못 많았는데, 쯤나라 太醫令인 王叔和가 흠어져 없어지고 남은 것 나머지를 구하여 차례를 갖추고 후세에 傳하니 그 공은 크지만 애석하게도 論함이 經志를 혼란케 하여 穿鑿하고 牽強附會함을 면할 수 없었다. … 溫病과 暑病에 반드시 따로 治方을 두었어야 했지만 지금에 모두 유실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²⁾라고 탄식하고 仲景의 본

래 뜻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傷寒論을 연구하면서 『傷寒六書』 『傷寒全生集』을 저술하였는데, 『傷寒六書』는 外感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論述에 치중한 것이 특징이라면, 『傷寒全生集』은 이론적인 論述에 비하여 證候에 대한 辨證論治, 특히 病證의 鑑別과 處方의 藥物構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또한 醫論부분의 논술이 비교적 체계가 있고 논리적이며 證候에 대한 鑑別과 用藥이 자세하여, 그를 추종하는 후인이 이름을 假託하여 만든 책이 아닌 가³⁾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傷寒全生集』의 卷元은 總論에 해당하여 六經標本, 表裏 陰陽 寒熱 虛實에 따른 診斷法 및 脈法, 正傷寒, 類傷寒, 溫熱病과 眞陰證의 鑑別, 陰陽相似, 合病併病, 風溫瘧疾, 疫癘天行에 대해 논술하고 있고, 卷亨은 三陽病證에 나타나는 發熱 惡寒 등 29개의 證候에 대하여, 卷利는 結胸, 心下痞, 發狂 등 27개의 證候에 대하여 論述과 用藥을 제시하였고, 卷貞은 三陰病, 霍亂, 陰陽易 婦人傷寒, 溫疫, 時氣病 등 65개의 證候를 중심으로 각 病證의 특징과 用藥을 논술하고 있어서 임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傷寒全生集』의 특징은 『傷寒論』의 辨證論治의 정

* 교신저자 : 신영일.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maggie@dnu.ac.kr Tel: 061-330-3511
접수일(2010년 7월 1일), 수정일(2010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2010년 7월 22일)

1)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號는 節庵이며 餘杭人이다. 洪武 2年(1369年)에 태어나서 正統 10년까지(1445年) 77歲를 生存하였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공부하여 百家에 널리 通하였으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秘藏한 醫籍을 받고 軒岐의 醫術에 정통하였으며 傷寒論에 대해 研究精進하여 奧妙한 이치를 깨닫고 새로이 발명한 것이 많았다. 永樂年間(1403-1424)에 醫學訓科에 나아갔고, 宣德年間(1426-1435)에 벼슬에 올랐다. 陶氏는 일찍이 杭州에서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切脈에 精通하여 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證에 따라 새로운 處方을 創方하였으며, 奇異한 疾病이라도 손을 쓰면 바로 나았기 때문에 ‘陶一貼’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 不幸此書傳世久遠하여 遺失頗多러니 晉太醫令王叔和得於散亡之餘하여 詮次流傳하니 其功博矣로대 惜乎以已論混經하여 未免穿鑿附會라 溫暑는 必別有方이나 今皆失而無徵也라

3)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45. 『鎮江府志』에는 何燠 字仁源 丹徒人 以醫名 著傷寒全生集이라고 하여 何燠이 지었다고 하였고, 汪琥는 朱映璧이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丹波元簡은 그의 『醫籍考』에서 앞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汪琥의 주장도 책의 첫머리에 ‘會稽玉符朱映璧訂正 鎮江醫官何燠重校’라고 한 것을 잘못 보고 주장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傷寒瑣言』의 서문이 그대로 『傷寒全生集』에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저자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신만을 이어 받아 證候를 중심으로 새로이 편제를 바꾸고, 아울러 朱肱의 『類證活人書』 『太平惠民和劑局方』 등에서 證에 맞는 처방을 골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麻黃湯 桂枝湯 小柴胡湯 補中益氣湯 등 여러 處方에서 이름은 그대로 놓고 약물구성을 달리 제시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긴 하였지만, 현대 『醫學入門』에서는 處方名 앞에 ‘陶氏’라는 것을 추가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약물의 用量을 제시하지 않고 각각의 약물 아래에 上中下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神農本草經』의 上中下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君藥은 上, 臣藥은 中, 佐使藥은 下로 표현한 것으로 醫師가 病의 정도에 따라 藥量을 任意用之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傷寒全生集』가운데 各論에 해당하는 卷亨의 내용에서 10장을 뽑아, 1章에서는 傷寒發熱例, 2章에서는 傷寒惡寒例와 背惡寒, 3章에서는 傷寒汗後不徹例, 4章에서는 傷寒本熱例, 5章에서는 傷寒惡風例, 6章에서는 傷寒潮熱例, 7章에서는 傷寒寒熱往來例, 8章에서는 傷寒煩熱例, 9章에서는 傷寒煩躁例, 10章에서는 傷寒頭痛例에 대하여 논술하고, 아울러 各章마다 열거된 處方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논술하였다.

이에 著者は 상기한 證候와 處方에 대한 논술이 傷寒溫病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校勘, 注釋, 國譯, 考察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II. 研究方法

1. 原文은 眉壽堂刻本 本衙藏版『傷寒全生集』⁴⁾을 기준하였다.
2. 原文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傷寒論 條文은 脚注처리하고 찾기 쉽도록 뒤에 조문번호를 ()로 제시하였다.
3. 註釋가운데 內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4.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

4) 清代 嘉慶15年(A.D.1810)에 출판하였다.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33.

하였다.

5. 번역은 原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용구나 따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6. 번역문에서는 한글을 使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혼동이 우려되는 경우 한자로 명시하였다.
7. 원래 제시된 제목은 章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내용이 긴 것은 可讀力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문단을 나누어 節로 표기하였다.
8. 本 研究에 使用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注釋에 (00), 引用文獻에 『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記하였다.

III. 本 論

第1章 辨傷寒發熱例

【原文】

夫傷寒翕翕發熱⁽¹⁾者 乃風寒客於皮膚하야 邪氣怫鬱⁽²⁾於外하야 表熱而裏不熱也리 此는 太陽經表證이니 頭疼項強하고 腰背脊痛하야 身體骨節疼하고 或已發熱 未發熱호대 惡寒 脈浮⁽³⁾緊⁽⁴⁾ 無汗이라 冬月用麻黃湯⁽⁵⁾이오 三時⁽⁶⁾用芍蘇散⁽⁷⁾ 羌活沖和湯⁽⁸⁾ 人參羌活散⁽⁹⁾ 正氣散⁽¹⁰⁾을 選用이라 脈浮緩⁽¹¹⁾ 自汗은 冬月用桂枝湯⁽¹²⁾이오 三時用加減沖和湯⁽¹³⁾ 神朮湯⁽¹⁴⁾을 選用이라 若脈浮 發熱 煩渴 小便不利者는 此熱傳太陽膀胱本病也니 用五苓散⁽¹⁵⁾으로 利之호 若陽明經에 發熱 目痛 鼻乾 不眠 微惡寒 微有頭額痛 脈微洪⁽¹⁶⁾은 宜葛根湯⁽¹⁷⁾이오 若表熱未罷⁽¹⁸⁾한데 邪熱傳裏하야 裏既作熱 則表裏俱熱하야 口渴飲水하고 脈洪數⁽¹⁹⁾者는 宜白虎湯⁽²⁰⁾이라 此는 但輕於純在表 純在裏也리

【注釋】

- (1) 翕翕發熱: 皮毛 위에 깃털이 있는 것처럼 걸만 따 근한 熱의 形상으로 表熱이다.
- (2) 怫鬱: 울결되어 풀리지 않는 것. *怫:鬱也, 답답할 不.
- (3) 浮: 浮脈. 가볍게 누르면 脈狀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감소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하며 힘이 있는 脈狀.
- (4) 緊: 緊脈.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관계없이 줄을

-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脈狀.
- (5) 麻黃湯: 麻黃 桂枝 杏仁 甘草 川芎 防風 羌活을 물에 生薑 葱白과 豆豉 한 자밤을 加하여 달여 뜨겁게 복용한다.
- (6) 三時: 봄 여름 가을. 寒氣가 司令하지 않는 春分에서 霜降까지를 말한다.
- (7) 芎蘇散: 川芎 枳殼 桔梗 陳皮 半夏 蘇葉 柴胡 乾葛 茯苓 甘草 蒼朮을 生薑 大棗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8) 羌活沖和湯: 羌活 黃芩 防風 蒼朮 川芎 生地黃 細辛 白芷 甘草를 물에 生薑 葱白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9) 人參羌活散: 人參 羌活 蘇葉 蒼朮 柴胡 前胡 枳殼 桔梗 川芎 甘草를 물에 生薑 葱白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10) 正氣散: 藿香 白朮(發汗에는 蒼朮) 厚朴 陳皮 半夏 (渴症에는 제거) 茯苓 白芷 桔梗 大腹皮 蘇葉 甘草를 물에 생강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11) 緩: 緩脈. 늘어지고 경쾌하지 않게 박동하는 脈狀.
- (12) 桂枝湯: 陽旦湯이라고도 한다. 桂枝 芍藥 生薑 각 3兩 甘草 2兩 大棗 12개를 잘게 썰어서 물로 달여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복용 후에 뜨거운 죽을 마심으로써 藥力을 도우며, 이불을 덮어 전신에 약간 땀이 나도록 한다. 그러나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는 하지 않게 한다. 1번 복용하고 땀을 내어 병이 나오면 더 이상의 복용을 중지하고, 반드시 藥劑 전부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 땀이 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복용한다.
- (13) 加減沖和湯: 羌活沖和湯에서 蒼朮을 빼고 백출을 넣은 것이다. 즉 羌活 黃芩 防風 白朮 川芎 生地黃 細辛 白芷 甘草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4) 神朮湯: 羌活沖和湯에 石膏 知母를 加한 것이다.
- (15) 五苓散: 豬苓 白朮 茯苓 각 18銖 澤瀉 1兩6銖 桂枝 0.5兩을 가루로 만들어 매회 1方寸匕의 양을 더운 물에 녹여 하루 3회 복용한다. 뜨거운 물을 다량으로 마셔 땀을 내면 낫는다.
- (16) 洪: 洪脈. 매우 大하고 형상이 파도가 세차게 위로 치솟는 것 같아 脈氣가 오는 것은 세차고 힘이 있으나 脈氣가 가는 것은 약한 脈狀.
- (17) 葛根湯: 葛根四兩 麻黃三兩 芍藥二兩 生薑三兩 甘草二兩(구운 것) 大棗十二枚 桂枝二兩 물 一斗에 먼저 麻黃 葛根을 넣고 달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18) 罷: 休也, 과할 否.
- (19) 數: 數脈. 성인의 경우 의사의 1호흡에 환자의 脈이 6회 이상 박동하는 脈狀.
- (20) 白虎湯: 知母 6錢 石膏 1승 甘草 2錢 粳米 0.6승을 쌀이 익을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國譯】

무릇 傷寒病에 化근화곤하게 發熱하는 것은 風寒 邪가 皮膚에 침범하여 邪氣가 外部에 울결되어 表部에만 熱이 나고 裏部에는 熱이 나지 않는다. 이는 太陽經의 表證이니 頭痛 項強하고 등 허리가 아프며 身體痛 骨節痛하고 或 이미 發熱이 나건 나지 않건 간에 惡寒 脈浮緊 無汗한다. 겨울에는 麻黃湯을 쓰고, 三時에는 芎蘇散 羌活沖和湯 人參羌活散 正氣散을 골라서 쓴다. 脈浮緩 自汗하는 것은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三時에는 加減沖和湯 神朮湯을 골라서 쓴다. 또한 脈이 浮하고 熱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渴症이 있으며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은 熱이 太陽의 本府인 膀胱으로 傳變한 本病이니 五苓散으로 通利시키고, 陽明經에 熱이 나고 눈알이 아프며 코가 마르고 잠을 자지 못하며 약간 惡寒하고 이마가 아프며 脈이 微洪한 것은 葛根湯을 쓰고, 表熱이 풀리지 않고 邪熱이 裏部로 傳變하여 이미 裏部에 熱이 나면 表裏에 모두 熱이 있어 口渴하여 물을 마시고자하며 脈이 洪數한 것은 白虎湯을 쓴다. 이는 단순히 表部나 裏部에만 있는 輕症이다.

【原文】

若表證皆除而反見怕熱⁽¹⁾ 燥渴 譫語⁽²⁾ 大便實而脈沈數 蒸蒸發熱⁽³⁾ 者是 此爲裏熱이니 是陽邪陷入陰中하야 裏熱 甚而達於外也니 用調胃承氣湯⁽⁴⁾으로 下之라 若少陽經에 耳聾⁽⁵⁾ 脇痛 寒熱 嘔而口苦 頭角⁽⁶⁾痛 脈弦⁽⁷⁾數은 此熱在 半表半裏니 用小柴胡湯⁽⁸⁾으로 和之라 三陰은 無表熱이나 惟少陰 有表熱之證하니 但其脈沈⁽⁹⁾하고 足冷하면 用麻黃 附子細辛湯⁽¹⁰⁾이오 或下利厥冷하고 裏寒外熱하면 用人參 四逆湯⁽¹¹⁾이라

【注釋】

- (1) 怕熱: 惡熱. ※怕: 懼也, 두려워할 과.
- (2) 譫語: 陽明實熱나 溫邪가 營血로 들어가 熱邪가 神明을 요동하여 정신이 맑지 못하고 이상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마구 지껄이는 것.
- (3) 蒸蒸發熱: 내부에 열이 熾盛한데다 외부에서 熏蒸하여 후끈 달아오르는 열의 형상으로 裏熱을 말한다.
- (4) 調胃承氣湯: 먼저 大黃 4兩 甘草 2兩을 물로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芒硝 0.5升을 넣어 약간 끓여 조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5) 耳聾: 소리를 듣지 못하는 증상. 환자 자신의 느낌이나 검사상에서 모두 청각기능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 『景岳全書』에서 “耳聾證은 5가지가 있는데, 火閉, 氣閉, 邪閉, 竅閉, 虛閉이다.”⁵⁾라 하였으니, 여기에서의 耳聾은 少陽經의 邪熱이 심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火閉에 해당한다.
- (6) 頭角: 이마의 양쪽 머리카락이 난 경계가 각을 이루는 부위. 額角이라고도 함. 前髮際(앞 머리카락 가장자리)의 좌우 양쪽 끝이 굽어져 내려가 이룬 모서리를 가리킨다.
- (7) 弦: 弦脈.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脈狀.
- (8) 小柴胡湯: 柴胡 8兩 黃芩 人蔘 甘草 生薑 각 3兩 半夏 8兩 大棗 12개를 물에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루 3회 복용한다.
- (9) 沈: 沈脈.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반응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狀.
- (10) 麻黃附子細辛湯: 마디를 제거한 麻黃 2兩을 끓여 거품을 걷어 낸 다음 細辛 2兩, 炮製하여 껍질을 제거한 附子 1개를 넣고 함께 달여 3회로 나누어 복용한다.
- (11) 人蔘四逆湯: 四逆湯⁶⁾에 人蔘 白朮을 加한 것.

【國譯】

表證이 모두 없어졌는데 도리어 惡熱 燥渴 譫語하고 大便이 實하며 脈이 沈數하고 熱이 치성하여 후끈 달아오르는 것은 裏熱이니 陽邪가 裏部로 들어가 裏熱이 심하여 밖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니 調胃承氣湯

으로 瀉下시킨다. 少陽經에 귀가 멀고 옆구리가 아프며 惡寒과 發熱이 왕래하고 구역질하는데 입이 쓰며 偏頭痛이 있고 脈이 弦數한 것은 熱이 半表半裏에 있는 것이니 小柴胡湯으로 和解시킨다. 三陰經에는 表熱이 없으나 오직 少陰에만 表熱證이 있으니 다만 脈이 沈하고 손발이 차면 麻黃附子細辛湯을 쓰고, 或下利하고 발이 厥冷하며 裏部는 寒한데 밖에 熱이 나면 人蔘四逆湯을 쓴다.

【原文】

其陰陽俱虛하여 熱而不止者와 汗後復發熱 脈躁疾⁽¹⁾者와 下利大熱不止者는 皆死症이라 又有三陽傳裏하여 實熱症이면 口必燥渴 飲水不止 揭⁽²⁾去衣被 揚手擲足⁽³⁾ 胸腹滿痛 斑黃⁽⁴⁾ 狂亂 譫語 大便不通 脈必沈實有力이라 甚則舌卷囊縮者는 難治니 但當三乙承氣湯⁽⁵⁾으로 攻裏하여 下之라 方開別條니 與前表熱不同也라

【注釋】

- (1) 疾: 數脈에 비해서 더욱 빠르며 성인은 한 호흡에 7~8번 뒸다.
- (2) 揭: 褰衣, 옷벗을 계.
- (3) 揚手擲足: 수족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모양. 擲: 掉也, 흔들 적.
- (4) 斑黃: 發斑과 發黃을 말함.
- (5) 三乙承氣湯: 大黃 芒硝 厚朴 枳實 각 0.5兩 甘草 1兩을 거칠게 갈아 生薑 3쪽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國譯】

陰陽이 모두 虛寒한데 熱이 그치지 않는 것, 發汗시킨 後에 다시 發熱하고 脈이 躁疾한 것, 下利하고 大熱이 그치지 않는 것은 모두 死症이다. 또한 三陽病이 裏部로 傳變하여 實熱症이 되면 반드시 煩燥口渴하여 설새 없이 물을 마시고 옷이나 이불을 걷어차며 손발을 내저으며 胸腹이 그득하면서 아프고 斑疹 黃疸이 생기며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르고 大便이 통하지 않으며 脈은 반드시 沈實有力한다. 이것이 심하여 혀가 말리고 음낭이 수축하게 되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三乙承氣湯으로 裏部의 邪熱을 攻下시켜야 한

5)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604.

6) 甘草 2兩 乾薑 1.5兩 附子 1개를 물에 달여 2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乾薑은 건장한 사람에게는 3兩 附子는 건장한 사람에게는 큰 것 1개를 쓴다.

다. 處方은 別途의 條項에 記述하였으니 앞의 表熱과 는 다르다.

【考察】

이 章은 傷寒病의 發熱의 형태와 이에 따른 治法 治方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太陽經 發熱은 背에 熱이 나므로 太陽病 傷寒證은 겨울에는 麻黃湯, 봄 여름 가을에는 芎蘇散 羌活沖和湯 人參羌活散 正氣散을 골라서 쓰고, 中風證은 겨울에는 桂枝湯, 봄 여름 가을에는 加減沖和湯 神朮湯을 골라서 쓰고, 邪熱이 膀胱府로 들어간 것은 五苓散으로 치료한다. 陽明經 發熱은 熱이 심하여 안에서부터 밖으로 후끈후끈 달아 오르면 經證에는 葛根湯 白虎湯, 府證에는 調胃承氣湯 大承氣湯을 쓴다. 少陽經 發熱은 惡寒과 發熱이 왕래하니 小柴胡湯으로 치료하고, 少陰經 表熱證은 脈이 沈하니 麻黃附子細辛湯으로 치료한다. 또한 陰陽이 모두 虛寒한데 熱이 그치지 않는 것, 發汗시킨 後에 다시 發熱하고 脈이 躁疾한 것, 下利하고 大熱이 그치지 않는 것은 모두 死症이라고 하여 正氣는 虛衰한데 發熱의 정도가 심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第1節 麻黃湯

【原文】

麻黃湯本方に自有加減法하니 備開라
治冬時正傷寒⁽¹⁾이라 頭疼 發熱 惡寒 體痛 腰背項強 拘急⁽²⁾ 脈浮緊 無汗은 表證이니 當發汗이라 以頭疼如斧劈⁽³⁾하고 身熱如火熾에 用이라
麻黃上 桂枝上 杏仁中 甘草下 川芎中 防風中 羌活中이라 若渴에 加天花粉이요 惡心⁽⁴⁾에 加薑汁 半夏요 泄瀉에 加炒蒼朮 升麻요 元氣虛에 加人參하고 去杏仁이라
骨節煩痛에 倍加羌活하고 防風 蒼朮이요 有痰에 加半夏요 胸脇滿痛에 加枳殼 桔梗이라
惡寒 身熱 面赤 身痒者는 不得小汗出故也니 去杏仁 하고 加柴胡 芍藥이라
身熱作瀉者는 內虛故也요 惡寒 身熱而喘⁽⁵⁾者는 緣表 邪未解也라 若汗後에 復大熱하야 脈躁亂者는 死니 此는

脈不與汗相應也요 汗後에 身涼脈靜⁽⁶⁾者는 生이니 以火 邪已去也일새라

水에 薑 葱白 加荳豉一撮⁽⁷⁾하야 煎之熱服하고 取汗호대 中病卽止하고 不得多服이라 復用厚被蓋覆其身及手足하야 不可揭去라가 待汗乾하야 方可揭去라

節菴⁽⁸⁾이 云 傷寒汗下에 溫藥多服하면 反加別病極하니 不宜煎查라 故로 服半鐘⁽⁹⁾而留半鐘者는 正合曰少與二字之義니 此는 乃醫所不知之妙라 若病淺而服藥過者면 元府⁽¹⁰⁾를 何能關鎖⁽¹¹⁾오 若未中病 則大邪之氣未除故로 留再服하니 可見其有妙用也如此라

【注釋】

- (1) 正傷寒: 傷寒 중에서 겨울(霜降에서 春分 전까지)에 날씨가 매섭게 추워 물과 땅이 얼 때, 살기를 띤 흑흑한 기운이 인체를 침범하자마자 즉시 앓는 것이다.
- (2) 拘急: 팔다리와 몸의 근육이 땅겨 편하지 않거나 오그라들며 굽히거나 펴지 못하는 병증.
- (3) 斧劈; 도끼로 쪼개는 것. ※斧; 斫木器, 도끼 부.劈; 剖破, 쪼갬 벽.
- (4) 惡心: 胃氣가 거슬러 올라와 속이 울렁거려 토할 듯한 병증.
- (5) 喘: 호흡이 빠르고 촉박한 병증.
- (6) 脈靜: 脈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脈이 數急하지 아니하여 다른變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7) 撮: 한약의 용량을 표시할 때 쓰던 단위의 하나. 우리말로 자밤이라고 하는데, 세 손가락 끝으로 한 번 잡는 양을 말한다. ※撮: 三指取, 세손가락으로 잡을 활.
- (8) 節菴: 『傷寒全生集』의 저자인 陶華. 字가 尙文이고 號가 節庵이다.
- (9) 鐘: 酒器, 술잔 중.
- (10) 元府: 玄府. 땀구멍.
- (11) 關鎖: 빗장과 자물쇠.

【國譯】

麻黃湯 本方に 加減法이 있으니 아래에 열거한다. 겨울철 正傷寒을 치료한다. 頭痛 發熱 惡寒 體痛 腰背項強 拘急 脈浮緊 無汗한 것은 表證이니 마땅히 發汗시켜야 한다. 頭痛이 쪼개지는 것 같고, 身熱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데 쓴다.

麻黃 桂枝 杏仁 甘草 川芎 防風 羌活이라

渴症에는 天花粉을 加하고, 惡心에는 薑汁 半夏를 加하고, 泄瀉에는 炒蒼朮 升麻를 加하고, 元氣虛에는 人參을 加하고 杏仁을 漚다.

骨節煩痛에는 羌活 防風 蒼朮을 倍加하고 痰이 있으면 半夏를 加하고, 胸脇滿痛에는 枳殼 桔梗을 加한다.

惡寒 身熱 面赤 身痒하는 것은 조금도 땀이 나지 않기 때문이니 杏仁을 漚고 柴胡 芍藥을 加한다.

몸에 熱이 나면서 설사하는 것은 안이 虛하기 때문이고, 惡寒하고 몸에 熱이 나면서 호흡이 험떡이는 것은 表邪가 풀리지 않은 것이다. 發汗시킨 後에 다시 大熱이 나고 脈이 躁亂한 것은 死症이니 이는 脈이 發汗한 것과 相應하지 않기 때문이며, 發汗한 後에 몸이 서늘하고 脈이 고요한 것은 살아나니 火邪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물에 生薑 葱白과 荳豉 한 자밤을 加하여 달여 뜨겁게 복용하고 땀을 내는데 病에 적중하면 복용하는 것을 그치고 절대로 많이 복용하면 瀉된다. 다시 두꺼운 이불로 팔다리와 전신을 덮고 땀이 나기를 기다리다가 땀이 난 다음 마르면 덮은 이불을 치운다.

節菴이 말하기를 傷寒病에서 汗下法을 쓸 때에 溫藥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도리어 다른 病이 생겨 심해지니 달인 찌꺼기를 복용하면 瀉된다. 그러므로 반중지만 복용하고 반 중지는 남기는 것은 ‘少與’라는 두 글자의 뜻에 부합하니 이는 醫師가 알지 못하는 妙法이다. 만약 病이 가벼운데 과다하게 藥을 복용하면 汗구멍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만약 病에 적중하지 않았으면 거대한 邪氣가 제거되지 않는 까닭에 남은 것을 다시 복용해야하니 그 妙用이 이와 같음을 볼 수 있다.

【考察】

이 處方名은 원래 『傷寒論』에 나타나지만 藥物構成이 조금 다르다. 『傷寒論』의 麻黃湯은 麻黃 桂枝 甘草 杏仁인데, 여기에다 川芎 防風 羌活을 加하고 生薑 葱白 荳豉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하라 하였으니 發汗을 좀 더 활발하게 시키고자 함이다. 李梴은 『醫

學入門』에서 『傷寒論』의 처방과 구별하기 위해 ‘陶氏麻黃湯’⁷⁾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비해 升麻 白芷 藥本이 더 들어가 있으며, 『東醫寶鑑』에서도 『醫學入門』의 것을 그대로 재인용하였다.⁸⁾

또한 藥物의 아래에 藥量을 정하지 않고 上 中 下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神農本草經』의 上 中 下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君藥은 上, 臣藥은 中, 佐使藥은 下로 표현한 것으로 醫師가 病의 정도에 따라 藥量을 任意用之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第2節 芎蘇散

【原文】

芎蘇散 本方に 自有加減法하니 備開라

治春夏秋感寒이라 頭疼 發熱 惡寒 脈浮緊 無汗은 表證이니 宜當發汗이라

川芎中 枳殼中 桔梗下 陳皮中 半夏下 蘇葉上 柴胡上 乾葛上 茯苓上 甘草下 加蒼朮 十一味라

滿悶에 加香附 去甘草 茯苓이라

若天道尚寒而欲汗者에 加麻黃 桂枝 去茯苓 柴胡라

嘔만에 加薑汁이요 體痛에 加羌活이요 瀉利¹⁾에 加蒼白朮 去枳殼 柴胡요 腹痛에 加木香이요 夏月夾暑¹⁾에 加香茹²⁾라

水에 薑 葱白하야 煎之하야 熱服取汗이라

【校勘】

1) 瀉利: 原本에는 ‘瀉’로 되어 있는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瀉利’로 하였다.

【注釋】

(1) 夾暑: 暑邪가 침범하여 다른 병중에 暑症이 겸한 것.
(2) 香茹: 香薷

【國譯】

7) 李梴. 醫學入門, 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677.
: 麻黃湯 加升麻 川芎 白芷 防風 羌活 藥本 薑 葱 荳豉 煎熱服.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053.

芎蘇散 本方に 加減法이 있으니 아래에 열거한다.
봄 여름 가을의 寒邪에 感觸한 것을 치료한다. 頭痛 發熱 惡寒 脈浮緊 無汗은 表證이니 마땅히 發汗시켜야 한다.

川芎 枳殼 桔梗 陳皮 半夏 蘇葉 柴胡 乾葛 茯苓 甘草에 蒼朮을 加하여 11의 藥味이다.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에는 香附를 加하고 甘草 茯苓을 漚다.

기후가 오히려 추운데 汗을 내려고 할 때는 麻黃 桂枝를 加하고 茯苓 柴胡를 漚다.

嘔吐에는 薑汁을 加하고, 體痛에는 羌活을 加하고, 설사에는 蒼朮 白朮을 加하고 枳殼 柴胡를 漚고, 腹痛에는 木香을 加하고, 여름에 暑邪를 낀 경우에는 香薷를 加한다.

물에 生薑 葱白을 넣고 달여서 뜨겁게 복용하고 汗을 낸다.

【考察】

芎蘇散은 봄 여름 가을에 寒邪에 感觸하여 頭痛 發熱 惡寒 脈浮緊 無汗하는 表證을 치료한다. 이 處方은 『證治準繩·傷寒』에 『답료방(澹寮方)』을 인용하여 처음 나오는데, 十味芎蘇散이라고 하여 蒼朮이 빠져 있다. 陶華가 여기에 蒼朮을 加하여 11味로 하였는데, 이 처방에서 蒼朮 대신 白朮로 바꾼 것이 『醫學入門』의 孕婦傷寒⁹⁾에 인용되고 다시 『東醫寶鑑』¹⁰⁾에 재인용되었다.

第3節 人參羌活散

【原文】

人參羌活散 本方に 自有加減法이요 卽人參敗毒散¹¹⁾이라 治四時傷寒이라 頭疼 身熱 惡寒 體痛하고 不分有汗

9) 李梴, 醫學入門, 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673. : 治孕婦傷寒 頭痛壯熱 肢節煩疼 芎蘇散 川芎 陳皮 芍藥 白朮 各八分 蘇葉六分 乾葛五分 黃芩 前胡 麥門冬 各一錢 甘草三分 薑葱煎服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東醫寶鑑出版社, 2005. p.1790. : 孕婦傷寒 宜用芎蘇散 黃龍湯 柴胡枳殼湯 單胎散<入門> 芎蘇散 治孕婦傷寒 頭痛寒熱咳嗽 黃芩 前胡 麥門冬 各一錢 川芎 陳皮 芍藥 白朮 各八分 紫蘇葉六分 乾葛五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入薑葱煎服<入門>

無汗에 皆可服之라 凡時氣²⁾溫疫³⁾熱病⁴⁾初起의 頭疼 發熱 惡寒도 亦皆治之하고 及治咽喉腫痛하고 發斑 瘡疹⁵⁾ 脚氣⁶⁾ 寒熱도 竝宜治之라 且此湯은 乃解利傷寒傷風하니 太陽 少陽陽明三陽經之藥也라

人參中 羌活中 柴胡中 獨活中 前胡中 枳殼中 桔梗中 川芎中 茯苓中 甘草下 加蘇葉 蒼朮十味 去獨活 茯苓이라 若天道尙寒에 加麻黃하고 渴에 加乾葛이라

若傷風하야 鼻塞聲重에 加荊芥 防風이요 咽痛에 加連翹 牛蒡子 桔梗倍라 若減桔梗 加靑皮를 名淸風散이니 治傷寒痰熱之藥也요 宜去葱白이라

若時氣熱病하야 肌熱壯熱에 加黃芩이요 中暑하야 煩熱에 加香茹 黃連 去葱이요 大便瀉에 去枳殼하고 加白朮하야 去葱이라

若斑瘡已發未發에 加升麻 乾葛하고 已發不透에 加紅花 去葱이라

小兒感冒風에 加天麻 薄荷라

水에 薑 葱白하야 煎服取汗이라

【注釋】

- 1) 人參敗毒散: 柴胡 甘草 桔梗 人參 川芎 茯苓 枳殼 前胡 羌活 獨活 各 30兩을 거칠게 갈아 매회 2錢에 生薑과 薄荷를 조금씩 넣고 달여 수시로 복용하는데 寒이 많으면 熱服하고, 熱이 많으면 冷服한다.
- 2) 時氣: 전염성과 유행성이 강한 病邪.
- 3) 溫疫: 疫癘의 氣(돌림병을 일으키는 독한 기운)를 감수함으로써 발생한 急性 熱性 전염병.
- 4) 熱病: 여름철에 伏氣로 발생하는 暑病. 伏氣로 발병하는 것을 熱病이라 하고 갑자기 邪氣를 感受하여 병이 되는 것은 暑病이라고 한다. 『溫熱逢源』
- 5) 瘡疹: 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외과 질환과 피부 질환을 통틀어 말함. 『東醫寶鑑』에 얼굴이 건조하고 뺨과 눈두덩이 붉으며 하품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시 추웠다 열이 나고 기침하며 재채기를 하고 발끝이 차며 밤에 자다가 놀라서 가슴이 뛰며 잠이 많다¹¹⁾고 하였다.
- 6) 脚氣: 濕邪와 風毒에 감촉하거나 맛이 짙은 음식에 의하여 손상되어 濕이 쌓이고 熱이 생겨 다리로 흘러들어감으로써 발생하는데, 먼저 다리가 나무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東醫寶鑑出版社, 2005. p.730.

처럼 뻣뻣하고 시큰거리며 무르고 약하여 힘이 없고 땅기거나 붓거나 마르거나 열이 난다. 병이 더 진행되어 배로 들어가 심(心)을 치면 아랫배가 무겁게 하여지고 구토가 나 먹지 못하며 가슴이 공연히 뛰고 답답하면서 숨이 가쁘며 정신이 아뜩하고 언어가 착란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國譯】

人參羌活散 本方に 加減法이 있고, 이것은 人參敗毒散이다.

四時의 傷寒을 치료한다. 頭痛 身熱 惡寒 體痛하고 有汗 無汗을 불문하고 모두 복용할 수 있다. 무릇 時氣病 溫疫 熱病의 初起에 나타나는 頭痛 發熱 惡寒도 모두 치료하고, 咽喉腫痛 發斑 瘡疹 脚氣 寒熱往來도 아울러 치료한다. 이 處方은 傷寒과 傷風을 치료하니 太陽經 少陽經 陽明經의 三陽經 藥이다.

人參 羌活 柴胡 獨活 前胡 枳殼 桔梗 川芎 茯苓 甘草(人參敗毒散)에 蘇葉 蒼朮을 加하고 獨活 茯苓을 뺀 것이다.

기후가 오히려 추운데는 麻黃을 加하고 渴症에는 乾葛을 加한다.

風邪에 손상되어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중탁한데는 荊芥 防風을 加하고, 咽痛에는 連膠 牛蒡子를 加하고 桔梗을 倍加한다. 桔梗을 줄이고 靑皮를 더한 것을 淸風散이라 하니 傷寒의 痰熱을 치료하는 藥이니 葱白을 빼고 달인다.

時氣나 熱病으로 肌膚에 壯熱이 있는데는 黃芩을 加하고, 中暑로 煩熱이 있는데는 香薷 黃連을 加하고 葱白을 빼며, 설사에는 枳殼을 빼고 白朮을 加하는데 葱白을 빼고 달인다.

피거나 피지 않은 斑疹이나 瘡疹에는 升麻 乾葛을 加하고, 이미 피었는데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않는데는 紅花를 加하고 葱白을 빼고 달인다.

小兒感冒에는 天麻 薄荷를 加한다.

물에 生薑 葱白을 넣어 달여서 복용하고 땀을 낸다.

【考察】

人參羌活散은 四時의 傷寒, 時氣病 溫疫 熱病의 初

起에 나타나는 頭痛 發熱 惡寒, 咽喉腫痛 發斑 瘡疹 脚氣 寒熱往來를 치료하는 三陽經 藥이다. 이 處方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人參敗毒散에서 獨活 茯苓을 빼고, 蘇葉 蒼朮을 加하여 陶華가 만든 것이다. 같은 이름의 『世醫得效方』處方은 中風 痰盛을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처방이 『東醫寶鑑』에 인용되어 있으니 참고할만하다.¹²⁾

第4節 羌活沖和湯

【原文】

羌活沖和湯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太陽經藥이니 治三時無汗이요 卽九味羌活湯¹⁾이라 此湯은 代麻黃 桂枝 靑龍²⁾ 各半³⁾等湯이니 太陽經之神藥也라 治感冒風寒 非時⁴⁾暴寒이요 春可治溫 夏可治熱 秋可治濕 四時時疫⁵⁾이요 脈浮緊 發熱惡寒 頭痛 骨節煩疼 表證不分有汗無汗이라 若表症在者는 宜用此湯하고 及治傷風見寒⁶⁾이나 傷寒見風⁷⁾에 亦宜用此解利하니 此乃傷風 傷寒之神藥也나 世俗不知其妙라 若元氣本虛之人이 并 傷寒表證¹⁾하야 宜發汗者에 用此解散寒邪하면 免致亡陽⁸⁾ 肉瞶筋惕⁹⁾而死요 勞力冒寒에 用之면 如神이라

羌活上 黃芩上 防風中 蒼朮中 有汗去蒼朮 用白朮 川芎中 生地中 細辛少用中 白芷中 甘草下

若胸脇滿悶에 加枳殼 桔梗하고 去生地라

嘔而惡心에 加薑汁炒 半夏니 有痰亦用이라 泄瀉에 用炒蒼朮 白朮 芍藥 升麻하고 去生地 黃芩이라 熱瀉에 加二朮 黃連 豬苓 澤瀉하고 去生地 細辛이요 夾食¹⁰⁾ 而泄瀉에 加砂仁하고 去生地라 夾暑에 加香茹요 痰嗽에 加金沸草 杏仁이요 口渴에 加天花粉 知母 乾葛이라 不作汗에 加蘇葉이요 甚不作汗 或汗後不解에 加麻黃이니 乃發表不達熱에 不得已而用之라

若汗下兼行에 加大黃하니 釜底抽薪之法¹¹⁾이라 如有汗에 去蒼朮하고 加白朮하니 卽加減沖和湯이라 汗甚不止에

12) 許浚, 上揭書, p.1889. : 治中風痰盛 煩熱 羌活 獨活 前胡 人參 防風 天麻 赤茯苓 薄荷 川芎 黃芩 枳殼 蔓荊子 桔梗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桑白皮七寸 同煎服<得效>

加黃芪 桂枝 芍藥이요 熱多에 加柴胡하고 去細辛이라 夏月에는 本方에 加石膏 知母하니 名爲神朮湯이라
水에 薑 葱白하야 煎服하고 取發汗이라 自汗暑瀉에는 不加葱이라

【校勘】

- 1) 并傷寒表證: 原本에는 '并'字가 畵손 되어 있으나 第5節 正氣散의 '元氣本虛人 并夾陰發熱者'의 내용을 참조하여 바로 잡았다.

【注釋】

- (1) 九味羌活湯: 羌活 2錢 防風 川芎 各 1.5錢 細辛 甘草 各 3分 蒼朮 白芷 黃芩 生地黃 各 1錢을 달여 복용한다.
- (2) 靑龍: 大靑龍湯.
- (3) 各半: 桂枝麻黃各半湯.
- (4) 非時: 봄에는 溫氣, 여름에는 暑氣, 가을에는 燥氣, 겨울에는 寒氣가 正時의 기운인데 각 계절을 주관하지 않는 기운에 상한 것을 非時之氣라고 한다.
- (5) 時疫: 계절성 특징이 강한 溫疫病證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증상이 憎寒하고 壯熱이 나며, 누런 침을 토하는데 심하면 痙瘲, 厥逆, 譫語, 陽狂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6) 傷風見寒: 中風證에 傷寒脈이 나타나는 것. 大靑龍湯證이다.¹³⁾
- (7) 傷寒見風: 傷寒證에 中風脈이 나타나는 것. 大靑龍湯證이다.¹⁴⁾
- (8) 亡陽: 양기가 몹시 손상된 상태. 주요 증상은 땀이 크게 나서 구슬처럼 나오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정신이 희미해지고 얼굴색이 창백하며 호흡이 미약하고 갈증은 없으나 더운물을 마시고 싶어 하며 脈은 몹시 微弱해 끊어지려 하거나 浮數하면서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9) 肉瞶筋惕: 과다하게 發汗하여 津液이 말라 적어져서 陽氣가 虛해지면 筋肉을 滋養하지 못하여 빠르게

떨리고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 ※楊: 疾也, 빠를 척. 瞶: 目動, 눈꺼풀거릴 순.

- (10) 夾食: 夾食傷寒. 먼저 음식에 의하여 손상되고 나서 寒邪를 감수하거나 또는 먼저 寒邪를 감수하고 나서 음식에 손상되어 발생하는 病證. 傷寒夾食이라고도 함.
- (11) 釜底抽薪之法: 寒下法에 속하는 것으로 瀉下作用이 있는 寒性藥을 사용하여 대변을 通泄시켜 實熱을 없애는 치료법. 이 방법은 마치 숲 밑의 나무를 베내어 숲의 온도를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國譯】

羌活沖和湯 本方에 加減法이 있다.

太陽經의 藥이니 三時(春分에서 霜降까지)의 無汗을 치료하며 즉 九味羌活湯이다. 이 處方은 麻黃湯 桂枝湯 大靑龍湯 桂枝麻黃各半湯 등을 대신할 수 있으니 太陽經의 神藥이다. 風寒邪를 感冒한 것 非時之氣의 暴寒을 치료한다. 봄에는 溫病을 치료하고, 여름에는 熱病을 치료하며 가을에는 濕病을 치료하고 四時의 時疫을 치료하며, 脈浮緊 發熱 惡寒 頭痛 骨節煩疼하는 表證의 有汗 無汗을 모두 치료한다. 만약 表證이 있는 것은 마땅히 이 處方을 써야하고, 아울러 中風證에 傷寒脈이 나타나는 것, 傷寒證에 中風脈이 나타나는 것도 이것으로 치료하니 中風 傷寒의 神藥이나 世俗에서는 그 妙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元氣가 본래 虛弱한 사람이 傷寒表證을 겸하여 發汗시켜야 하는 경우 이것으로 寒邪를 解散하면 亡陽證이나 肉瞶筋惕하여 죽는 것을 면할 수가 있고, 過勞로 인하여 寒邪를 뒤집어 쓴 것에 쓰면 효과가 神效하다.

羌活 黃芩 防風 蒼朮(땀이 나면 蒼朮을 대신 白朮을 쓴다.) 川芎 生地黃 細辛 白芷 甘草

胸脇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에는 枳殼 桔梗을 加하고 生地黃을 漚다.

嘔逆하면서 惡心하는데는 薑汁炒 半夏를 加하니 痰이 있는 것에도 쓸 수 있다. 泄瀉에는 炒蒼朮 白朮 芍藥 升麻를 加하고 生地 黃芩을 漚다. 熱로 인한 설사에는 蒼朮 白朮 黃連 豬苓 澤瀉를 加하고 生地黃 細辛을 漚고, 夾食傷寒으로 설사하는데는 砂仁을 加

13)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燥者 大靑龍湯主之 (39)

14) 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靑龍湯發之 (40)

하고 生地黃을 뺀다. 暑邪가 꺾을 때는 香薷를 加하고, 痰嗽에는 金沸草 杏仁을 加하고, 口渴에는 天花粉 知母 乾葛을 加한다. 嘔이 나지 않을 때는 蘇葉을 加하고, 심하게 嘔이 나지 않거나 發汗시켜도 낫지 않는데는 麻黃을 加하니 이것은 바로 發表해도 熱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써야 한다.

또한 汗下法을 함께 쓸 경우에는 大黃을 加하니 釜底抽薪(아궁이의 장작을 빼서 가마솥의 온도를 내리는 것)의 法이다. 만일 嘔이 나는 경우에는 蒼朮을 빼고 白朮을 加하니 卽 加減沖和湯이다. 심하게 嘔이 그치지 않는데는 黃芪 桂枝 芍藥을 加하고, 熱이 심한데는 柴胡를 加하고 細辛을 뺀다. 여름철에는 本方에 石膏 知母를 加하니 이것이 神朮湯이다.

물에 生薑 葱白을 넣어 달여서 복용하고 嘔을 낸다. 自汗과 暑邪로 인한 설사에는 葱白을 넣으면 양된다.

【考察】

羌活沖和湯은 『此事難知』에 나오는 九味羌活湯이니 三時(春分에서 霜降까지)의 無汗을 치료하고¹⁵⁾, 麻黃湯 桂枝湯 大青龍湯 桂枝麻黃各半湯 등을 대신할 수 있는 太陽經의 神藥이다. 三時의 中風證에 쓸 수 있는 加減沖和湯 神朮湯이 모두 이 處方에 加減하여 만든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九味羌活湯 不問四時 但有頭痛 骨節痛 發熱惡寒 無汗 脉浮緊 宜用此 以代麻黃爲穩當<節奄>’¹⁶⁾이라고 하여 九味羌活湯이 陶華의 처방처럼 보이나, 原文은 『傷寒全生集』의 내용을 간추려 쓰고 處方名만은 羌活沖和湯이라 쓰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第5節 正氣散

【原文】

正氣散 本方에 自有加減法이라

太陽經藥이니 治三時無汗이라 及治四時不正之氣⁽¹⁾ 疫癘⁽²⁾ 時氣 山嵐瘴氣⁽³⁾ 雨濕蒸氣와 或受寒腹痛吐瀉와

中暑冒風吐瀉와 中濕⁽⁴⁾ 身重吐瀉와 或不伏水土하야 脾胃不和와 或飲食停滯後에 感外寒하야 頭疼 憎寒 壯熱과 或吐逆惡心 胸腹滿悶과 或發寒熱 無汗者라 此非治正傷寒之藥이니 若病在太陽이로대 此湯全無相干⁽⁵⁾이니 若誤用之하야 先虛正氣하고 逆其經絡하면 雖出汗이나 亦不能解니 乃無益而有損이라 傷寒脈沈發熱과 與元氣本虛人이 并夾陰⁽⁶⁾ 發熱者는 切宜戒之라

此方服之면 下蟲積하고 內傷飲食 外感風寒에 服之면 如神이라

藿香上 白朮中 如發汗去此 加蒼朮 厚朴中 陳皮中 半夏下 如渴去之 茯苓中 白芷中 桔梗中 大腹皮中 蘇葉上 甘草下 嘔吐去之

發汗에 加葱白하고 頭疼에 加川芎이니 名爲芎芷正氣散이라

腹痛에 加炒芍藥이라

寒痛에 加薑桂니 名正氣溫中湯이라

飲食不化에 加神麴中 麥芽中하고 如肉食不化에 加山查라 心下痞에 加枳實 青皮니 名正氣寬中散이라

中暑冒風에 加香茹 扁荳니 名二香湯이라

作瀉口渴 小水⁽⁷⁾不利에 合五苓散이니 名藿苓湯이요 時氣 憎寒發熱에 加柴胡 乾葛하니 名爲正氣和解湯이라 水薑煎服이라

【注釋】

- (1) 四時不正之氣: 사계절의 비정상적인 기후. 예를 들면 추위야 할 겨울에 따뜻하고, 따뜻해야 할 봄에 추운 것 등이다. 이는 인체의 적응능력과 기타 원인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원인이 된다.
- (2) 疫癘: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질병. 古人은 長期間의 한 발이나 酷熱등의 異常氣候의 變化가 있으면 이런 烈性的 發病物質이 생기며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疫病이 流行한다고 생각 했다.
- (3) 山嵐瘴氣: 瘴毒이라고도 한다. 더운 지방의 산과 숲, 안개가 짙은 곳에서 濕熱이 위로 올라갈 때에 생기는 나쁜 기운을 말한다.
- (4) 中濕: 濕邪를 외감하거나 濕邪에 의해 내상되어 발생한 질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살갓이 심하게 저리면서 감각이 없고, 숨이 차 호흡이 가쁘며, 나른

15) 王好古. 東垣十種醫書(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276.

16) 許浚. 前掲書. p.1052.

하고 부어 더부룩하며, 허리와 사타구니가 아프고 팔다리와 몸이 뻣뻣하며, 팔다리 마디가 부드럽지 못한 등의 여러 가지 증후가 나타난다.

- (5) 干: 간여할 간.
(6) 夾陰: 夾陰傷寒, 房事を 지나치게 하여 腎을 손상시킨데다 風寒을 감수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脈이 沈하고 발이 차며 얼굴이 붉고 약하게 열이 난다.
(7) 小水: 小便.

【國譯】

正氣散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太陽經藥으로 三時의 無汗證을 치료한다. 아울러 四時의 不正之氣, 疫癘, 時氣, 山嵐瘴氣의 雨濕에서 蒸氣가 올라오는 것, 或 寒邪를 받아 腹痛 吐瀉하는 것, 中暑 冒風으로 인한 吐瀉, 中濕으로 인한 身重吐瀉를 치료하고, 風土를 적응하지 못하여 脾胃가 조화롭지 못한 것, 或 飲食이 停滯한 後에 寒邪를 外感하여 頭痛 惡寒 壯熱하는 것, 或 吐逆 惡心 胸腹滿悶한 것, 或 惡寒發熱 無汗한 것을 치료한다. 이것은 正傷寒을 치료할 수 없는 藥으로 病이 비록 太陽經에 있더라도 이 處方으로 모두 치료할 수 없으니 만약 잘못 복용하여 먼저 正氣를 해치고 經絡을 거스르면 비록 땀이 나나 풀리지 않을 것이며 이익은 없고 손해만 미칠 것이다. 傷寒에 脈沈 發熱하는 것과 元氣가 본래 허약한 사람이 夾陰傷寒을 겸하여 發熱하는 경우는 절대로 경계해야한다.

이 處方을 복용하면 蟲積을 풀 수 있고, 음식으로 인한 內傷에다 風寒邪로 인한 外感을 겸했을 때 복용하면 神效하다.

藿香 白朮(發汗에는 蒼朮을 쓴다.) 厚朴 陳皮 半夏(渴症이 있으면 漚다.) 茯苓 白芷 桔梗 大腹皮 蘇葉 甘草(嘔吐가 있으면 漚다)

發汗시키려면 葱白을 加하고 頭痛에는 川芎을 加하니 芎芷正氣散이라한다.

腹痛에는 炒芍藥을 加한다.

寒腹痛에는 生薑 桂枝를 加하니 正氣溫中湯이라한다.

飲食不化에는 神麴中 麥芽中를 加하고 肉食不化에는 山楂를 加한다.

心下痞에는 枳實 靑皮를 加하니 正氣寬中散이라한

다.

中暑로 인한 冒風에는 香薷 白扁豆를 加하니 二香湯이라한다.

설사 口渴 小便不利에는 五苓散을 합하여 쓰니 藿苓湯이고, 時氣病의 憎寒 發熱에는 柴胡 乾葛을 加하니 正氣和解湯이라한다.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正氣散은 太陽經의 三時無汗證, 四時不正之氣, 疫癘, 時氣, 山嵐瘴氣등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發汗하는 효력이 매우 강하다. 이 處方은 원래 『太平惠民和劑局方』에 나오지만¹⁷⁾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第6節 大青龍湯

【原文】

大青龍湯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治傷寒脈浮緊 頭疼 發熱 惡寒 體痛 不得汗出 煩躁¹⁾ 援亂不安하니 以此로 汗之라

麻黃上 桂枝中 杏仁中 石膏中 甘草下

湯에 加乾葛이라

薑棗¹⁾水煎服藥하고 後用衣被厚覆手足取汗則愈라 經²⁾에 言煩熱汗出則解라하니 此之謂也라 故로 以傷寒爲汗病 其身熱煩躁 無奈何者는 一汗而涼하니 斯言是也라 蓋天 之邪氣는 自外而入하니 亦當自外而出이니 非汗이면 不能解之라

【校勘】

- 1) 薑棗: 原本에는 ‘棗’가 잘 보이지 않으나,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大青龍湯¹⁸⁾에 의거 보충하였다.

17)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63. 甘草 7錢 橘皮 藿香 白朮 各 1兩 厚朴 半夏 各 3兩을 곁게 갈아 매회 2錢에 生薑 3쪽과 大棗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傷寒陰證을 치료한다.

18) 大青龍湯方 麻黃六兩去節 桂枝二兩去皮 甘草二兩炙 杏仁四十個去皮尖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石膏如鷄子大碎 右七味 以水九升 先煮麻黃 減二升 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取微似汗 汗出多者 溫粉撲之 一服汗者 停後服 汗多亡陽 遂虛 惡風 煩躁 不得眠也

【注釋】

- (1) 煩躁: 가슴에서 열이 나 답답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병증. 煩은 가슴에서 열이 나고 답답한 것이며 躁는 참을성 없이 서두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움직이는 것이다.
- (2) 經: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이다.¹⁹⁾

【國譯】

大靑龍湯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傷寒의 脈浮緊 頭痛 發熱 惡寒 體痛 不汗出 煩躁擾亂 하여 不安한 것을 치료하니 이것으로 以此로 發汗시킨다.
 麻黃 桂枝 杏仁 石膏 甘草
 渴症에는 乾葛을 加한다.
 물에 生薑 大棗를 넣어 달여서 복용하고, 뒤에 두꺼운 옷이나 이불로 몸과 수족을 덮어 땀을 내면 낫는다. 傷寒論에 ‘煩熱은 땀이 나면 낫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傷寒을 發汗해야하는 病으로 보았고, 身熱 煩躁하여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한번 發汗 하면 몸이 서늘해진다 하였으니 이말이 옳다. 대개 하늘의 邪氣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므로 또한 마땅히 밖으로 나가야 하니 發汗法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다.

第7節 羌活神朮湯

【原文】

羌活神朮湯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治感冒⁽¹⁾ 傷寒이나 頭疼 發熱惡寒 拘急體痛 無汗 脈浮緊 則用之라
 羌活上 藁本中 川芎上 白芷中 蒼朮中 細辛下 甘草下
 渴에 加天花粉 乾葛이요 有熱에 加柴胡 黃芩이라
 惡心而嘔에 加薑汁炒半夏 陳皮요 胸脇滿悶에 加枳殼 桔梗이라
 本方に 若加麻黃 乾葛하야 發汗하니 以代麻黃湯이라
 若煩躁에 加石膏 麻黃하야 可代大靑龍湯이라
 水에 薑葱白하야 煎服이라

【注釋】

19) 病人煩熱 汗出則解 (249)

- (1) 感冒: 風寒이나 계절에 맞지 않는 기운을 외감하여서 발생한 表證 감기.

【國譯】

羌活神朮湯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感冒傷寒을 치료하니 頭痛 發熱惡寒 拘急體痛 無汗 脈浮緊한데 쓴다.
 羌活 藁本 川芎 白芷 蒼朮 細辛 甘草
 渴症에는 天花粉 乾葛을 加하고 熱이 있으면 柴胡 黃芩을 加한다.
 惡心하면서 嘔逆하는데는 薑汁에 炒한 半夏 陳皮를 加하고, 胸脇이 그득하면서 답답한데는 枳殼 桔梗을 加한다.
 本方に 麻黃 乾葛을 加하여 發汗할 수 있으니 麻黃湯을 대응한다. 煩躁에 石膏 麻黃을 加하여 大靑龍湯을 대응할 수 있다.
 물에 生薑 葱白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羌活神朮湯은 感冒傷寒을 치료하고 太陽表證 無汗에 적합하다. 따라서 本方に 麻黃 乾葛을 加하여 麻黃湯을 대응하고, 石膏 麻黃을 加하여 大靑龍湯을 대응할 수 있다.

第2章 辨傷寒惡寒例 附背惡寒

【原文】

傷寒則惡寒은 理必然也니 雖居密室帳幙之中이나 亦憎寒⁽¹⁾ 拘急하고 自然齶齶⁽¹⁾而惡之하며 若見風尤甚怕也라 如寒氣甚重者는 使人毫毛畢直하고 而鼓額戰慄하니 雖向火不能退其寒也요 如已發熱者는 雖大熱而不欲去衣被也라 且惡寒者는 乃寒邪客於榮衛 則洒淅⁽²⁾惡寒하니 雖一切惡寒이 多屬表證이나 尙有陰陽所分하니 無汗爲表實이요 有汗爲表虛라 若發熱惡寒하고 頭疼脈浮緊者는 邪入太陽表證也니 宜發汗호대 冬用麻黃湯이요 三時用芎蘇散 羌活湯⁽³⁾ 正氣散을 選用이라 有汗惡風 脈浮緩者는 冬用 桂枝湯이요 三時用加減沖和湯을 選用이라

【校勘】

1) 憎寒: 原本에는 '增寒'으로 되어 있으나 文脈上 '憎寒'으로 고쳤다.

【注釋】

- (1) 齧齧: 오싹오싹 몸을 오그리고 겁내고 싫어하는 모양.
- (2) 洒淅: 환자가 찬물을 뒤집어쓰거나 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느끼는 모양.
- (3) 羌活湯: 九味羌活湯. 羌活 2錢 防風 川芎 各 1.5錢 細辛 甘草 各 3分 蒼朮 白芷 黃芩 生地黄 各 1錢을 달여 복용한다.

【國譯】

寒邪에 손상되면 惡寒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비록 밀실이나 장막 가운데 거처하더라도 또한 惡寒이 심하고 당기고 아프며 자연히 오싹오싹하면서 싫어하고 만약 바람을 쏘이면 더욱 심하게 된다. 寒氣가 甚重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털이 바짝 서고 이마를 두드리듯 戰慄하니 비록 불에 가까이 가더라도 寒氣를 피할 수 없다. 이미 發熱한 것은 비록 大熱하지만 옷이나 이불을 걷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惡寒하는 것은 寒邪가 榮衛를 침범하게 되면 오싹하게 惡寒하니, 비록 一切의 惡寒이 대부분 表證에 속하나 오히려 陰陽으로 나뉘는 바가 있으니 無汗은 表實證이고 有汗은 表虛證이다. 만약 發熱惡寒하고 頭痛하며 脈이 浮緊한 것은 邪氣가 太陽으로 들어간 表證이니 마땅히 發汗시켜야하는데 겨울에는 麻黃湯을 쓰고, 三時(봄 여름 가을)에는 芎蘇散 羌活湯 正氣散을 선택해 쓴다. 有汗惡寒하고 脈이 浮緩한 것은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三時에는 加減沖和湯 등을 선택해 쓴다.

【原文】

若欲攻其裏者 但有惡寒表不解者 不可攻裏 乃要當先解其表也 如不惡寒而反惡熱者 此爲表解乃可攻裏也 又有少陰 無熱惡寒 踰臥⁽¹⁾足冷 脈沈⁽²⁾細⁽³⁾者 此寒邪直入少陰腎經裏證也 宜四逆湯으로 溫之 經⁽⁴⁾에 云發熱惡寒은 發於陽이요 無熱惡寒은 發於陰이라

하며 又有汗後惡寒 脈浮無力者는 亦爲表虛라하니 宜桂枝芍藥湯⁽⁵⁾으로 和之라 有大便秘通 燥渴 微惡寒 脈實⁽⁶⁾者는 用大柴胡湯⁽⁷⁾으로 下之라

【注釋】

- (1) 踰臥: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눕는 것.
- (2) 沈: 沈脈.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반응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狀.
- (3) 細: 細脈. 脈의 가늘기가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感應하는 것이 분명한 脈狀.
- (4) 經: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이다.
- (5) 桂枝芍藥湯: 桂枝加芍藥湯. 桂枝 生薑 各 3錢 白芍藥 6錢 甘草 2兩 大棗 12개를 물로 달여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 (6) 實: 實脈. 浮中沈候에서 손가락을 들거나 누르거나 모두 힘이 있는 脈狀.
- (7) 大柴胡湯: 柴胡半斤 黃芩三兩 芍藥三兩 半夏半斤 洗 生薑五兩切 枳實四枚炙 大棗十二枚擘 大黃二兩 前一斗二升에 넣고 六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달여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一升씩 복용한다.

【國譯】

裏證을 攻下하려거든 다만 惡寒하면서 表邪가 풀리지 않은 것은 攻下해서는 않되니, 마땅히 먼저 表邪를 풀어 惡寒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惡熱하는 것이 表邪가 풀린 것이니 攻裏할 수 있다. 또한 少陰病에 無熱惡寒하고 오그리고 누우며 발이 차고 脈이 沈細한 것은 寒邪가 足少陰腎經으로 直中한 裏證이니 마땅히 四逆湯으로 溫之해야 한다. 傷寒論에 “發熱惡寒은 陽經에서 발병한 것이고, 無熱惡寒은 陰經에서 발병한 것이다.”²⁰⁾라 하였으니, 또한 發汗한 後에 惡寒하고 脈이 浮하면서 無力한 것은 表虛證이니 마땅히 桂枝芍藥湯으로 和解시킨다. 大便이 통하지 않고 煩燥口渴하며 약간 惡寒이 있고 脈이 實한 것은 大柴胡湯으로 瀉下시킨다.

【原文】

至于背有惡寒者는 背爲陽이요 腹爲陰이니 背惡寒者는

20)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 (8)

陽不足也라 陽氣不足하면 陰氣即盛하니 陰盛則口中和하고 背上寒하니 附子湯⁽¹⁾으로 溫之요 陽氣內陷者는 口乾燥渴하고 心煩하야 獨背上微惡寒者니 此裏實熱也니 人參白虎湯⁽²⁾으로 和之라 蓋微者는 乃不盛之謂也니 非比少陰之寒甚也라 少陰之病에 若惡寒踞臥 手足厥冷 自利煩躁 脈不至者는 則又爲不治之症矣라 前所用麻黃湯 桂枝湯 芍藥散 羌活湯 正氣散 加減沖和湯 神朮湯은 開發熱條라

【注釋】

- (1) 附子湯: 附子 2개 茯苓 芍藥 3兩 人參 2兩 白朮 4兩을 물에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3회에 나누어 하루에 3회 복용한다.
- (2) 人參白虎湯: 人參 石膏 知母 黃芩 粳米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國譯】

背惡寒이라는 것은 背는 陽이고, 腹은 陰이니 背惡寒은 陽이 不足한 것이다. 陽氣가 不足하면 陰氣는 盛하니 陰이 盛하면 입안이 덤덤하고 등에만 惡寒하니 附子湯으로 溫之한다. 陽氣가 內陷한 것은 口乾燥渴하고 心煩하야 등에만 약간 惡寒하니 이는 裏部가 實熱한 것이니 人參白虎湯으로 和解시킨다. 대개 微라는 것은 盛하지 않은 것을 말하니 少陰病의 惡寒이 심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少陰病에 惡寒踞臥하고 手足이 厥冷하며 저절로 下利하고 煩躁하며 脈이 이르지 않는 것은 또한 不治症이다. 앞에서 말한 바 麻黃湯 桂枝湯 芍藥散 羌活湯 正氣散 加減沖和湯 神朮湯은 發熱條에 열거하였다.

【考察】

이 章은 傷寒病의 發熱의 형태와 이에 따른 治法 治方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惡寒은 寒邪에 손상되어 나타나니 비록 밀실 같은데 거처하더라도 자연히 오싹오싹하고 바람을 쏘이면 더욱 심하게 된다. 외부로부터 寒邪가 침입하여 발생하는 것은 太陽經 惡寒으로 表實證과 表虛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實證은 겨울에는 麻黃湯을 쓰고, 三時(봄 여름 가을)에는 芍藥散 羌活湯 正氣散을 선택해 쓰며, 虛證은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三時에는 加減沖和湯 등을 선택해 쓴다. 陽氣가 부족하거나 寒邪가 少陰經으로 直中하여 나타나는 것은 에 나타나니 太陽經의 惡寒은 附子湯을 쓴다.

第1節 桂枝湯

【原文】

桂枝湯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太陽經藥이니 治冬月正傷寒自汗이라 治正傷寒에 發熱惡風寒 自汗 頭疼骨體痛 脈浮緩汗出은 爲表虛니 此湯으로 和之라 若几几⁽¹⁾項背強伸縮汗出者는 本方に 加乾葛이라

桂枝上 芍藥中 甘草下

汗多에 加柴胡 白朮하고 甚不止에 加黃芪요 渴에 加知母 天花粉이요 嘔에 加薑炒半夏요 胸腹滿悶에 加枳殼 桔梗이라

惡心에 加陳皮요 瀉에 加炒白朮이요 熱甚에 加柴胡 黃芩이요 元氣弱하야 脈虛者엔 加人參이요 痰嗽에 加杏仁 五味子水에 薑棗하야 煎服이라

【注釋】

- (1) 几几(수수): 頸項의 뻣뻣함을 형용한 뜻.

【國譯】

桂枝湯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太陽經의 藥이니 겨울철의 正傷寒 가운데 自汗證을 치료한다. 正傷寒을 치료하는데 發熱 惡風寒 自汗 頭痛 骨體痛 脈浮緩 汗出하는 것은 表虛證이니 이 處方으로 和解시킨다. 만약 几几하게 뒷목덜미가 뻣뻣하고 汗出하는 것은 本方に 乾葛을 加한다.

桂枝 芍藥 甘草

땀이 많이 나는데는 柴胡 白朮을 加하고, 심하여 땀이 그치지 않는데는 黃芪를 加한다. 渴症에는 知母 天花粉을 加하고, 嘔逆에는 生薑汁에 炒한 半夏를 加하고, 胸腹이 그득하고 답답한데는 枳殼 桔梗을 加한다.

惡心에는 陳皮를 加하고, 설사에는 炒白朮을 加하

고, 熱이 심한데는 柴胡 黃芩을 加하고, 元氣가 虛弱하여 脈이 虛한데는 人參을 加하고, 痰으로 인한 咳嗽에는 杏仁 五味子を 加한다.

물에 生薑 大棗를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醫學入門』에 陶氏桂枝湯²¹⁾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는 『傷寒六書·殺車槌法』에 있는 疏邪實表湯²²⁾에서 白朮 대신 藁本이 들어간 것으로 내용이 거의 같으며, 『東醫寶鑑』에서도 그대로 재인용하였다.²³⁾

第2節 桂枝二越婢湯

【原文】

桂枝二越婢⁽¹⁾湯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發熱惡寒호에 熱多寒少이라 尺脈微者는 因無陽也라

桂枝 芍藥 甘草 麻黃 石膏

加柴胡하야 水薑煎服이라

若自汗에 去麻黃 加白朮 芍藥이요 小便不利에 加茯苓이요 脈弱에 加人參이라

【注釋】

(1) 越婢: 成無己와 章虛谷은 “發越脾氣 通行津液”으로 보았고, 吳人駒는 發越하는 힘이 마치 大靑龍湯처럼 張大하지 않고 越나라 여자 종과 같다는 것이다.

【國譯】

桂枝二越婢湯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發熱惡寒하는데 發熱이 많고 惡寒이 적은 것을 치료한다. 尺脈이 微한 것은 陽이 없는 것이다.

桂枝 芍藥 甘草 麻黃 石膏

柴胡를 加하여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自汗에는 麻黃을 빼고 白朮 芍藥을 加하고, 小便不利에는 茯苓을 加하고, 脈이 弱한 것에는 人參을 加한다.

【考察】

桂枝二越婢湯에서 越婢에 대하여 은 成無己는 尺脈微者는 因無陽也에 의미를 두어 補脾氣한다 하였고, 吳人駒는 熱多寒少를 치료한다는데 의미를 두어 發越하는 힘이 마치 大靑龍湯처럼 張大하지 않고 越나라 여자 종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熱多寒少를 치료한다는 전제와 麻黃 石膏등의 약재가 들어가 있으므로 補脾氣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第3節 黃芪健中湯

【原文】

黃芪建中湯

治汗多亡陽⁽¹⁾하야 尺脈虛弱者에 用之라

黃芪上 芍藥中 桂枝中 膠飴中 甘草下 加陳皮 白朮이라

元氣虛甚에 加人參이요 熱에 加柴胡라

水薑煎服이라

【注釋】

(1) 亡陽: 양기가 몹시 손상된 상태. 주요 증상은 땀이 크게 나서 구슬처럼 나오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정신이 희미해지고 얼굴색이 창백하며 호흡이 미약하고 갈증은 없으나 더운물을 마시고 싶어하며 脈은 몹시 微弱해 끊어지려 하거나 浮數하면서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國譯】

黃芪建中湯

땀을 많이 흘려 亡陽證이 되어 尺脈이 虛弱한 것에 쓴다.

黃芪上 芍藥中 桂枝中 膠飴中 甘草下에 陳皮 白朮을 加하여 쓴다.

元氣가 심하게 虛한 것에는 人參을 加하고, 熱이

21) 李梴. 前掲書. p.679. : 陶氏桂枝湯 卽桂枝湯 加防風 川芎 羌活 藁本 薑 棗煎 臨熟入飴糖二匙 溫服. 治法同前 如汗多加白朮 汗不止 加黃芪 喘 加柴胡 杏仁 胸中飽悶 加枳椇
2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2. : 疏邪實表湯 卽桂枝湯 自有加減法 治冬月正傷風 頭痛發熱 惡寒脊強 脈浮緩 自汗 爲表證 此足太陽膀胱經受邪 當實表散邪 無汗者 不可服 桂枝 赤芍藥 甘草 防風 川芎 羌活 白朮 如汗不止 加黃芪 喘 加柴胡 杏仁 胸中飽悶 加枳椇 桔梗 水二鐘 薑三片 棗二枚 槌法 加膠飴二匙煎之 溫服
23) 許浚. 前掲書. p.1053.

있는데는 柴胡를 加한다.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黃芪建中湯은 원래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 나오는 것²⁴⁾으로 小建中湯²⁵⁾에 黃芪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小建中湯에 陳皮 白朮 黃芪를 더한 것으로 仲景方과는 약간 다르다. 『東醫寶鑑』 虛勞에 나오는 黃芪建中湯은 本方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仲景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第4節 人參三白湯

【原文】

人參三白湯

治傷寒病後에 元氣弱하고 脈虛에 用此調理라

人參上 白朮下 白芍藥中 白茯苓中

有汗에 加桂枝요 有熱에 加柴胡요 渴에 加知母요 不得眠에 加酸棗仁炒 辰砂末이요 滿悶에 加陳皮 枳殼少用이라

水薑棗煎服이라

【國譯】

人參三白湯

傷寒病을 알은 後에 元氣가 弱하고 脈이 虛한 것에 이것을 써서 調理한다.

人參 白朮 白芍藥 白茯苓

有汗에는 桂枝를 加하고, 有熱에는 柴胡를 加하고, 渴症에는 知母를 加하고, 不得眠에는 酸棗仁炒 辰砂末을 加하고, 滿悶에는 陳皮 枳殼을 조금 加한다.

물에 生薑 大棗를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人參三白湯은 『醫學入門』에는 本方의 加減法을 참

조하여 本方에 柴胡 川芎 天麻를 加하여 原方으로 하였고²⁶⁾, 『東醫寶鑑』에서는 『醫學入門』의 것을 인용하여 處方名을 ‘辛黃三白湯’으로 바꾸고 本方에 當歸 細辛 麻黃을 加하였으니²⁷⁾, 상호 비교하여 임상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第3章 辨傷寒汗後不徹例

【原文】

傷寒表證을 雖經⁽¹⁾發汗이나 不解는 此因汗不盡故라 寒熱似瘧하야 一日二三發하고 或面赤身痒하고 或骨節煩疼大熱者하니 皆因汗出不徹⁽²⁾故也라 若傷寒에 熱多寒少 似瘧하야 一日二三發하고 面赤身痒者는 此不得汗出이나 宜桂枝麻黃各半湯⁽³⁾이라 傷寒에 若面色緣緣⁽⁴⁾正赤者는 此陽氣怫鬱하야 在表니 當發其汗이라 其人煩躁하고 不知痛處하야 乍在腰中 乍在四肢하야 按之不知하고 若短氣⁽⁵⁾者는 此汗不徹故也니 宜更發汗則愈라 若服發汗藥하야 汗出似解나 至半日許에 復發하야 煩熱不解하고 其脈浮數者는 更發汗則愈라 又若傷寒八九日不解하야 脈浮緊하고 無汗發熱身疼者는 此爲表症仍在太陽經而不傳이나 宜麻黃으로 汗之라 又若傷寒十日에 熱已去하고 脈浮細而嗜臥者는 外已解矣라

若胸脇滿痛者는 屬少陽也니 宜小柴胡湯이요 脈但浮而不弦⁽⁶⁾하고 無胸脇痛者는 還⁽⁷⁾屬太陽이니 無汗則麻黃湯이요 有汗則桂枝湯이라

若發汗後에 惡寒하고 有表症不解脈浮者는 宜桂枝湯으로 和之요 汗後에 不惡寒反惡熱者는 此內實也니 用調胃承氣湯으로 下之라

【注釋】

26) 李樅, 前揭書, p.245. : 태양병에 下法 또는 汗法을 잘못 써서 표리가 함께 허해져서 사기가 멎쳐 汗法으로는 풀 수 없는 증상을 치료할 때 쓴다. 人參 白朮 白芍藥 白茯苓 各 1.5錢 柴胡 3錢 川芎 1錢 天麻 5分을 넣어 복용한다.

27) 許浚, 前揭書, p.1070. : 辛黃三白湯 陰證傷寒의 表에 있는 邪氣를 치료한다. 人參 白朮 白芍藥 各二錢 白茯苓 當歸 各一錢 細辛 麻黃 各五分을 물에 生薑三片과 大棗2개를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入門>

24) 陳紀藩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201. 黃芪建中湯 桂枝 甘草 生薑 各 3兩 芍藥 6兩 大棗 12개 飴糖 1升 黃芪 1.5兩을 물로 달여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25) 白芍藥五錢 桂枝三錢(無則用薄桂) 甘草炙一錢 右剉作一貼 入生薑五片 大棗四枚 水煎至半 去滓 下膠飴(卽黑糖)半匙 (卽一兩) 再煎融化服之

- (1) 經: 歷也, 지날 경.
- (2) 徹: 去也, 버릴 철.
- (3) 桂枝麻黃各半湯: 桂枝一兩十六銖 芍藥 生姜切 甘草炙 麻黃各一兩去節 大棗四枚擘 杏仁二十四箇 水五升에 먼저 麻黃을 한소끔 달여 거품을 제거한 다음 나머지 藥을 넣고 一升八合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六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緣緣: 모든 모서리를 말한다. 緣: 衣純, 옷가 연.
- (5) 短氣: 호흡이 짧고 빨라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6) 弦脈: 弦脈,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脈狀.
- (7) 還: 卽也, 곧 선(俗音 환).

【國譯】

傷寒病의 表證을 비록 이미 發汗하였으나 풀리지 않는 것은 發汗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까닭이다. 惡寒과 發熱이 瘧疾처럼 하루에 2,3번 발병하고 或 面赤 身痒하며 骨節이 옥신거리고 大熱이 나니 모두 發汗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까닭이다. 傷寒에 發熱이 많고 惡寒이 적은 것이 瘧疾처럼 하루에 2,3번 발작하고 面赤 身痒하는 것은 땀이 나지 않아서이니 마땅히 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傷寒에 얼굴 전체의 모서리마다 붉은 것은 陽氣가 拂鬱하여 表部에 邪氣가 있는 것이니 發汗시켜야 한다. 환자가 煩躁하고 痛處를 알지 못하여 허리에 있기도 하고 四肢에 있기도 하여 눌러도 잡히지 않고 短氣하는 것은 發汗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니 다시 發汗하면 낫는다. 또한 發汗藥을 복용하여 땀이 나서 풀리는 것 같으나 반나절정도에 다시 발작하여 煩熱이 풀리지 않고 脈이 浮數한 것은 다시 發汗하면 낫는다. 또한 傷寒病이 8,9일 동안 풀리지 않아 脈이 浮緊하고 無汗 發熱 身痛하는 것은 表症이 太陽經에 있어서 傳變되지 않은 것이니 麻黃湯으로 發汗시킨다. 또한 傷寒病 10일에 熱이 이미 사라지고 脈이 浮細하며 눅기를 좋아하는 것은 外邪가 이미 풀린 것이다.

또한 胸脇이 그득하면서 아픈 것은 少陽에 속하니 小柴胡湯을 쓰고, 脈이 浮하기만 하고 弦하지 않으며 胸脇痛이 없는 것은 곧 太陽에 속하니 無汗하면 麻黃湯을 쓰고, 有汗하면 桂枝湯을 쓴다.

發汗시킨 後에 惡寒하고 表症이 풀리지 않으며 脈이 浮한 것은 桂枝湯으로 和解시키고, 發汗시킨 後에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하는 것은 裏部가 實한 것이니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킨다.

【考察】

이 章은 發汗不徹로 인해 나타나는 證候와 이의 治方에 대해 논술한 것이다. 太陽 表證을 완전하게 發汗시키지 않아 邪氣가 아직 表部에 있고 脈이 浮하면 다시 麻黃湯이나 桂枝湯으로 發汗시키고, 陽氣가 拂鬱하여 熱多寒少 如瘧狀 身痒하는 것은 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만약 發汗시킨 後에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하는 것은 陽明으로 전변하여 裏部가 實한 것이니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脈이 弦하고 胸脇痛이 있는 것은 少陽으로 전변한 것이니 小柴胡湯으로 和解한다.

第1節 調胃承氣湯

【原文】

調胃承氣湯

大黃上 芒硝中 甘草下 加枳實中

有熱에 加柴胡中 黃芩下

若 太陽病을 發汗後에 大汗出하여 胃中乾하고 煩躁하여 不得眠하고 欲得飲水者는 少少與之하여 令胃氣和則愈라

若 太陽病三日 發汗後에 不解하여 蒸蒸發熱者는 屬胃實也니 本湯으로 下之라

【國譯】

調胃承氣湯

大黃 芒硝 甘草에 枳實을 加한다.

熱이 있는데는 柴胡 黃芩을 加한다.

太陽病을 發汗시킨 後에 너무 많이 땀이 나서 胃中이 乾燥하고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며 물을 마시고 자 하는 것은 조금씩 물을 주어 胃氣가 소화로워지면 낫는다.

太陽病을 앓은지 3일만에 發汗시킨 後에 풀리지 않아 찌는 듯이 發熱하는 것은 胃實證에 속하니 調胃

承氣湯으로 瀉下시킨다.

【考察】

『傷寒論』에 나와 있는 調胃承氣湯은 大黃 芒硝 甘草로만 되어 있는데, 本方은 여기에 胃가 實하여 腹滿한 것을 瀉下시키는 枳實을 더 넣었으니 大承氣湯의 의미를 가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第4章 辨傷寒本熱例

【原文】

傷寒太陽病에 脈浮發熱하고 渴而小水不利者는 此太陽邪熱이 傳於膀胱裏病也니 用五苓散으로 利之라

【國譯】

傷寒 太陽病에 脈이 浮하고 發熱하며 渴症이 있으면서 小便이 不利한 것은 太陽經의 邪熱이 本府인 膀胱으로 전변하여 발생한 裏病이니 五苓散으로 通利한다.

【考察】

辨傷寒本熱例에는 五苓散의 내용만 있고, 白虎湯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아래에 處方을 배치한 것은 아마도 表裏가 모두 病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表熱을 구분하여 치료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둘 다 모두 表熱이 있지만 五苓散은 小便不利하고 渴欲飲水하나 물을 마시면 토하는 水逆證에 쓰고, 白虎湯은 表裏가 모두 熱하고 煩渴이 심하며 脈이 洪大한 경우에 쓸 수 있다.

第1節 五苓散

【原文】

五苓散

猪苓上 澤瀉中 白朮中 茯苓中 桂枝下 少用하면 爲引經⁽¹⁾하야 可達下焦라

若煩躁狂言에 加辰砂라

若發汗後에 脈浮煩渴者는 此湯으로 主之라

若發熱 瀉利 煩渴 小水不利者는 此湯으로 主之라

若發熱六七日에 不解而煩하며 有表裏症하고 渴欲飲水하나 水入卽吐는 名爲水逆⁽²⁾이니 此湯으로 主之라

【注釋】

- (1) 引經: 약효가 제대로 작용하도록 증상이 속해 있는 부위로 藥力을 이끌어주는 것을 말함. 어느 약물 이든지 몸의 어느 한 부위에 대하여 특별하게 작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작용되는 약 기운을 병변 부위 또는 어느 경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 (2) 水逆: 陽中風으로 열이 나고 心煩하며 胃에 水가 정체되어 渴症이 나고, 물을 마시고 싶지만 마시면 곧 토해 내는 병증.

【國譯】

五苓散

猪苓 澤瀉 白朮 茯苓 桂枝 桂枝는 引經藥으로 下焦에 도달하게 하니 조금 쓴다.

煩躁하고 미친듯한 헛소리를 하는데는 辰砂를 加한다.

發汗시킨 후에 脈이 浮하고 煩渴하는 것에는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發熱 下利 煩渴 小便不利에는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發熱한지 6,7일에 풀리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表邪와 小便不利가 있고 渴症으로 물을 마시고자하나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하는 것은 水逆이니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考察】

『醫學入門』에 陶氏五苓散⁽²⁸⁾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는 『傷寒六書·殺車槌法』에 있는 導赤散⁽²⁹⁾으로 내

28) 李梴, 前掲書, p.686. : 陶氏五苓散 卽五苓散 用桂枝 加甘草 滑石 山梔 燈心 臨熟入鹽一字調服 如中濕身目黃 加茵陳 水結胸 加燈心 木通 凡導赤 八正散之類 皆自此二方而變化之也

29)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6. : 導赤散 卽五苓散 治小水不利 少腹滿 或下焦畜熱 或引飲過多 或小便短赤而渴 脈沈數者 以利小便爲先 惟汗後亡津液 與陽明汗多者 則以利小便爲戒 茯苓 猪苓 澤瀉 桂枝 白朮 甘草 滑石 山梔 中濕身目黃者 加茵陳 水結胸證 加木通 燈心如小水不利而見頭汗出者 乃陽脫也 得病起無熱 但譫語 煩躁不安 精采不與人相當 此湯治之 水二鐘 薑一片 燈心二十

용이 거의 같으며, 『東醫寶鑑』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第2節 白虎湯

【原文】

白虎湯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治發汗後에 大汗出하고 復大煩渴不解하며 脈洪大者는 用此湯이라

石膏上 知母中 人參中 甘草下 粳米下

心煩에 加竹葉이요 渴甚에 加天花粉 乾葛이라

立夏⁽¹⁾前立秋⁽²⁾後의 天氣不熱時와 并內傷氣血皆虛하야 脈虛之人은 竝不可服이라

惡心而嘔에 加薑汁 半夏요 胸滿에 加陳皮 枳殼 桔梗이라

表熱甚에 加柴胡요 裏熱甚에 加芩 連 山梔라

傷寒 七八日不解하야 熱結在裏하야 表裏俱熱하고 時時惡風하며 大渴하고 舌上乾燥而煩하야 飲水者는 此湯主之라

傷寒 脈浮 發熱 無汗은 其表證不解者니 不可與此湯이라 若渴欲飲水나 無表證者는 宜與之라

按컨대 時時惡風者는 時或有之而不常也요 微惡寒者는 乍寒於背而不甚也니 宜用此湯으로 主之라 切戒太陽病 無汗而渴者는 不可用白虎湯이니 蓋白虎湯은 乃汗後解熱之藥이라 陽明 虛汗多而渴者는 不可用五苓散이라

【注釋】

- (1) 立夏: 24절기의 하나로 여름이 시작되는 節氣이다.
- (2) 立秋: 24절기의 하나로 가을이 시작되는 節氣이다.

【國譯】

白虎湯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發汗시킨 後에 땀이 많이 나고 다시 煩渴症이 심하여 풀리지 않으며 脈이 洪大한 것은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石膏 知母 人參 甘草 粳米

心煩에는 竹葉을 加하고, 심한 渴症에는 天花粉 乾葛을 加한다.

立夏전立秋후의 날씨가 뜨겁지 않은 때와 內傷病

莖 槌法 入鹽二字調服

의 氣血이 모두 虛하여 脈이 虛한 사람은 모두 복용해서는 않된다.

惡心하면서 嘔逆하는데는 薑汁 半夏를 加하고, 胸滿에는 陳皮 枳殼 桔梗을 加한다.

表熱이 甚한데는 柴胡를 加하고, 裏熱이 甚한데는 黃芩 黃連 山梔子를 加한다.

傷寒病이 7,8일 동안 풀리지 않아 熱이 裏部에 맺혀서 表裏에 모두 熱이 있고 때때로 惡風하며 渴症이 심하고 혀가 건조하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傷寒에 脈浮 發熱 無汗한 것은 表證이 풀리지 않은 것이니 이 處方을 주어서는 않된다. 만약 渴症으로 물을 마시고자 하나 表證이 없는 것은 마땅히 복용할 수 있다.

살펴보건대, 때때로 惡風한다는 것은 때로 혹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요, 약간 惡寒한다는 것은 잠깐 등에 惡寒하나 심한 것은 아니니 마땅히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太陽病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서 渴症이 있는 것은 絶대로 白虎湯을 복용해서는 않되니 대개 白虎湯은 發汗시킨 後에 解熱하는 藥이다. 陽明病에 虛汗이 많이 나고 渴症이 있는 것은 五苓散을 써서는 않된다.

【考察】

『醫學入門』에 陶氏白虎湯³⁰⁾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는 『傷寒六書·殺車槌法』에 있는 如神白虎湯³¹⁾으로 내용이 거의 같으며, 『東醫寶鑑』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第5章 辨傷寒惡風例

30) 李梴, 前掲書, p.689. : 陶氏白虎湯 卽白虎湯 加人參 麥門冬 五味子 山梔 薑 棗 竹葉 煎服 治法同上 如心煩 加竹茹 大渴心煩背惡寒 去山梔 加天花粉 凡黃芩湯 解毒湯 麥門冬湯 一切平和清解之劑 皆自此三方而變化之也

31)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9. : 如神白虎湯 卽白虎湯 治身熱 渴而有汗不解 或經汗過渴不解 脈來微洪에 宜用石膏 知母 甘草 人參 山梔 麥門冬 五味子 心煩者 加竹茹一團 如大渴心煩 背惡寒者 依本方 去山梔 加天花粉 無渴 不可服此藥 爲大忌 水二鍾 棗一枚 薑一片 槌法 加淡竹葉十片 煎之熱服

【原文】

傷寒則惡風은 理必然也라 蓋邪風傷衛하면 腠理不密하야 所以自發汗而惡風也라 由是觀之컨대 惡風은 悉屬於陽하고 非比惡寒이니 乃有陰陽之別也라 微惡風者는 居於密室之中하고 衣被之內하면 坦然⁽¹⁾自舒而不惡也나 若見風則惡矣라

惡風有汗은 爲表虛而脈浮緩하니 冬用桂枝湯이요 三時用加減沖和湯이라 惡風發熱而喘은 用桂枝沖和湯⁽²⁾이라 若發汗過多하야 遂漏不止하야 衛虛亡陽하야 惡風脈浮者는 用桂枝朮附湯⁽³⁾이요 惡風小便難하고 四肢拘急하며 難以屈伸도 上同이라

若風濕相搏하야 骨節疼痛하고 自汗 惡風 短氣하며 小便不利하고 身微腫者는 用甘草附子湯⁽⁴⁾이라 惡風 自汗而喘은 用桂枝加厚朴杏仁湯⁽⁵⁾이요 惡風 無汗而喘者는 用麻黃湯이라 汗後 七八日不解하고 表裏俱熱하며 時時惡風하고 大渴하며 舌乾口燥而煩者는 以人參白虎湯으로 主之라 其桂枝 麻黃 白虎等方은 開前하니 不錄이라

【注釋】

- (1) 坦然: 편안한 모양. ※坦: 平也, 편안할 단.
- (2) 桂枝沖和湯: 羌活沖和湯에 桂枝를 더한 것이다.
- (3) 桂枝朮附湯: 『金匱要略·中風歷節風病脈證并治』에 나오는 朮附湯³²⁾에 桂枝를 가한 것이다.
- (4) 甘草附子湯: 甘草 白朮 各 2兩 附子 2枚 桂枝 4兩을 물로 달여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 (5) 桂枝加厚朴杏仁湯: 桂枝 生薑 芍藥 各 3兩 甘草 厚朴 各 2兩 杏仁 50개 大棗 12개를 물로 달여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고 땀을 약간 낸다.

【國譯】

寒邪에 손상되면 惡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대개 邪風가 衛分을 손상하면 腠理가 치밀하지 못하여 저절로 땀이 나고 惡風한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惡風은 모두 陽에 속하고 惡寒에 비할 바가 아니니 여기에는 陰陽의 구별이 있다. 약간 惡風하는 것

은 密室 가운데 거처하거나 옷이나 이불을 덮으면 편안하게 저절로 풀리면서 惡風하지 않으나 만약 바람을 쏘이면 惡風한다.

惡風하고 땀이 나는 것은 表虛로 脈이 浮緩하니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봄 여름 가을 三時에는 加減沖和湯을 쓴다. 惡風하고 發熱하면서 喘症이 있는 것은 桂枝沖和湯을 쓴다. 또한 과다하게 發汗시켜 땀이 그치지 않아 衛氣가 虛하고 亡陽하여 惡風하고 脈이 浮한 것은 桂枝朮附湯을 쓰고, 惡風하고 小便을 보기 어려우며 四肢가 拘急하여 굽혔다 펴기 어려운 것도 桂枝朮附湯을 쓴다.

또한 風濕이 相搏하여 骨節疼痛하고 自汗 惡風 短氣하며 小便이 不利하고 몸이 약간 붓는 것은 甘草附子湯을 쓴다. 惡風하고 自汗하면서 喘症이 있는 것은 桂枝加厚朴杏仁湯을 쓰고, 惡風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喘症이 있는 것은 麻黃湯을 쓴다. 發汗시킨 後 7,8일에 풀리지 않고 表裏에 모두 熱이 있으며 때때로 惡風하고 渴症이 심하며 口舌이 乾燥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人參白虎湯으로 치료한다. 桂枝湯 麻黃湯 白虎湯 등의 處方은 앞에 제시하였으니 기록하지 않는다.

【考察】

惡風은 惡寒에 비해 덜 심한 것으로 惡風하는 것은 密室 가운데 거처하거나 옷이나 이불을 덮으면 편안하게 저절로 풀리면서 惡風하지 않으나, 만약 바람을 쏘이면 惡風한다. 惡風이 있고 脈이 浮緩한 것은 表虛證으로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봄 여름 가을 三時에는 加減沖和湯을 쓰며, 과다하게 發汗하여 亡陽한 것은 桂枝朮附湯을 쓴다. 風濕相搏으로 인한 惡風에는 甘草附子湯을 쓰고, 表裏가 모두 熱하여 생긴 惡風은 人參白虎湯으로 치료한다.

第1節 參蘇飲

【原文】

參蘇飲 本方에 自有加減法이라

治感冒風寒이라 胸脇滿悶하고 咳嗽 頭疼 身重 吐痰하며 或中脘停痰하야 憎寒壯熱하고 狀似傷寒에 用此湯이라

32) 白朮 2兩 附子 1.5枚 甘草 1兩냥을 거칠게 썰어 매회 5錢 匕에 生薑 5쪽과 大棗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人參上 蘇葉上 枳殼中 桔梗中 乾葛中 陳皮中 前胡中
半夏下 甘草下 木香 茯苓中

天寒感冒하여 惡寒 無汗 咳嗽 氣急하고 或傷風하여
惡風 無汗 鼻塞聲重 咳嗽者는 加麻黃 杏仁 金沸草하여
汗之라

若天氣和緩이나 傷風咳嗽者는 有痰에 去參香하고 加桑皮
杏仁이요 若內有痰熱에 加片芩이라

若胸滿痰多者는 加瓜蒌仁 貝母하고 去半夏요 若痰唾
如膠者는 加金沸草라

若氣急喘不止者는 加貝母 蘇子 杏仁 五味하고 去蘇葉이라
肺寒咳嗽에 加乾薑 五味요 若熱咳嗽에 加片芩 麥冬
荊芥하고 去半夏 木香이라

若心下痞滿而嗽에 加枳實 黃連이요 或胸中煩熱하고
或停滯酒不散하고 或嘈雜⁽¹⁾惡心에는 亦加黃連 枳實 乾葛
烏梅 陳皮하고 去木香 蘇葉이요 煩躁不寧에 加辰砂라

表有熱에 加柴胡요 裏有熱에 加芩連이요 頭痛咳嗽에
加細辛이라

水薑煎服이라

【注釋】

- (1) 嘈雜: 嘈雜證은 배가 고픈 듯 하면서도 고프지 않고
아픈 듯 하면서도 아프지 않으면서 속이 울렁울렁
하여 편하지 않은 병증이다.

【國譯】

參蘇飲 本方に 加減法이 있다.

感冒風寒을 다스린다. 胸脇이 그득하고 답답하며
咳嗽 頭痛이 있고 몸이 무거우며 가래가 나아 자주
뺨으며 或 中脘에 痰이 쌓여 아주 심하게 惡寒 發熱
하고 證狀이 傷寒과 비슷한 것에 이 處方을 쓴다.

人參 蘇葉 枳殼 桔梗 乾葛 陳皮 前胡 半夏 甘草 木
香 茯苓

날씨가 추워서 風寒邪를 感冒하여 惡寒 無汗하고
咳嗽하면서 호흡이 급박하고 或 風邪에 손상되어 惡
風 無汗하고 코가 막히며 목소리가 침중하고 咳嗽하
는 것은 麻黃 杏仁 金沸草를 加하여 發汗시킨다.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하나 傷風하여 咳嗽하는데,

痰이 생긴데는 人參 木香을 빼고 桑白皮 杏仁을 加하
며, 안에 痰熱이 있는데는 片芩을 加한다.

痰이 많아 胸滿한데는 瓜蒌仁 貝母를 加하고 半夏
를 빼며, 침이나 가래가 끈적한 데는 金沸草를 加한
다.

호흡이 급박하여 喘症이 몇지 않는데는 貝母 蘇子
杏仁 五味子를 加하고 蘇葉을 뺀다.

肺氣가 寒冷한 咳嗽에는 乾薑 五味子를 加하고, 熱
한 咳嗽에는 片芩 麥冬 荊芥를 加하고 半夏 木香을
뺀다.

心下가 痞滿하면서 咳嗽하는데는 枳實 黃連을 加
하고, 或 胸中煩熱하고 或 酒滯가 풀리지 않고 或 嘈
雜證으로 惡心하는데는 다시 黃連 枳實 乾葛 烏梅 陳
皮를 加하고 木香 蘇葉을 빼며, 煩躁하여 편안하지
않는데는 辰砂를 加한다.

表에 熱이 있는데는 柴胡를 加하고, 裏에 熱이 있
는데는 黃芩 黃連을 加하고, 頭痛 咳嗽에는 細辛을
加한다.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參蘇飲은 感冒風寒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易簡方³³⁾』에 있는 것을『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인
용하여 썼으며 ‘易簡參蘇飲’이라고도 한다.³⁴⁾

第2節 消風百解散

【原文】

消風百解散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治四時傷風하여 頭痛 惡寒發熱 惡風寒하고 及痰壅咳嗽

33) 宋나라 王碩이 편찬하여 대략 12세기 말에 간행된 方書이
다. 『三因方』을 기초로 하여 처방을 뽑고, 기타 관련 저술
을 참고하여 상용되거나 혹은 중요한 처방을 취택 기록하
여 편성한 것이다. 먼저 人參 甘草 附子 등 30종의 상용
약물의 약성과 그 단방 經方을 기재하고, 다음에 三生飲,
薑附湯 등 상용 방제 30方을 실고, 방제 조성과 그 임상
응용을 소개하였으며, 끝에는 養正丹, 來復丹 등 10종의
환약 처방과 적응증을 실었다. 처방 수는 많지 않은데, 상
견 병증의 해결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임상 실용에 적합
하여 당시에 널리 퍼졌다.

34)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85. p.69.

鼻塞聲重이라

荊芥中 白芷中 陳皮中 麻黃中 蒼朮下 甘草下
頭痛에 加川芎 乾葛이요 痰多에 加半夏요 渴에 加天
花粉이라

表有熱에 加柴胡요 裏有熱에 加片芩 黃連이라
喘甚에 加杏仁이요 氣促에 加桑皮라
胸滿痰多에 加瓜蒌仁 貝母요 胸脇滿痛에 加枳殼 桔梗이라
水薑煎服이라

【國譯】

消風百解散 本方に 自有加減法이라
四時에 風邪에 손상되어 頭痛 惡寒發熱 惡風寒하
고 痰이 壅滯하여 咳嗽하며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침
중한 것을 치료한다.

荊芥 白芷 陳皮 麻黃 蒼朮 甘草
頭痛에는 川芎 乾葛을 加하고, 痰이 많은데는 半夏
를 加하고, 渴症에는 天花粉을 加한다.
表에 熱이 있는데는 柴胡를 加하고, 裏에 熱이 있
는데는 片芩 黃連을 加한다.

喘症이 심한데는 杏仁을 加하고, 氣促에는 桑白皮
를 加한다.

痰이 많아 胸滿한데는 瓜蒌仁 貝母를 加하고, 胸脇
이 그득하면서 아픈데는 枳殼 桔梗을 加한다.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消風百解散은 百解發汗散이라고도 하는데, 『太平惠
民和劑局方』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³⁵⁾이며, 후대에는
四時風寒을 치료하는 方劑로 『醫學入門』에 실려
있는 것을 『東醫寶鑑』에서는 재인용하여 본문의 내
용³⁶⁾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심하지 않은 感冒에 응
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35)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85. p.68. 四時傷寒 頭痛項強 壯熱惡寒 身體煩痛 四
肢倦怠 등의 증상이 있다가 寒壅咳嗽 鼻塞聲重 涎壅盛 氣
急滿悶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을 치료할 때 쓴다.

36) 許浚, 前掲書, p.1073. 消風百解散 治感傷風寒 頭痛 身疼
鼻塞聲重 荊芥 蒼朮 白芷 陳皮 麻黃各一錢 甘草 五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葱白二莖 水煎服<入門>

第3節 金沸草散

【原文】

金沸草散

治咳嗽하고 治肺經受風하야 頭目昏疼 咳嗽聲重 痰唾
稠粘하고 及治時行⁽¹⁾寒疫⁽²⁾의 壯熱惡寒이라

旋覆花上 荊芥中 前胡中 芍藥中 甘草下 麻黃下 半夏下

胸中滿悶에 加枳殼 桔梗이요 有熱에 加黃芩 柴胡요

頭疼에 加川芎이라

水薑煎服이라

【注釋】

- (1) 時行: 四時的 부정한 기를 감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행성 질병. 봄에는 따뜻해야 하는데 반대로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더워야 하는데 반대로 매우 서늘
하고, 가을에는 서늘해야 하는데 반대로 매우 덥고,
겨울에는 추워야 하는데 반대로 매우 따뜻하여 발생한다.
(2) 寒疫: 時疫으로 발생하는 疫癘의 陰寒證候를 말한다.

【國譯】

金沸草散

咳嗽를 치료하고, 肺經에 風邪가 침범하여 頭目이
어지럽고 아프며 咳嗽하고 목소리가 沈重하며 침과
가래가 粘稠한 것을 치료하며, 時行 寒疫의 熱이 심
하고 惡寒한 것을 치료한다.

旋覆花 荊芥 前胡 芍藥 甘草 麻黃 半夏

胸中이 그득하면서 답답한 것에는 枳殼 桔梗을 加
하고, 有熱에는 黃芩 柴胡를 加하고, 頭疼에는 川芎
을 加한다.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第4節 我家金沸草散 增

【原文】

我家金沸草散

治冷痰哮喘⁽¹⁾이라 冷雨淋⁽²⁾背하야 多吐冷沫하고 舌上
白胎에 用此神效라

金沸草上 荊芥中 前胡中 麻黃下 半夏下 桂枝中 乾薑下 五味下 甘草下 細辛下 杏仁上 枳殼一錢 桔梗上
喘甚에 加薑汁 磨木香汁半杯라

【注釋】

- (1) 哮喘: 발작적으로 목 안에서 그르렁거리며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서 숨이 찬 병증을 통틀어 말함. 哮는 그르렁거리며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喘은 단지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것이다.
- (2) 雨淋: 비에 맞다.

【國譯】

我家金沸草散

冷痰으로 인한 哮喘을 치료한다. 차가운 비를 등에 까지 맞아 차가운 涎沫을 많이 토하고 혀에 白苔가 낀 것에 이것을 쓰면 神效하다.

金沸草 荊芥 前胡 麻黃 半夏 桂枝 乾薑 五味子 甘草 細辛 杏仁 枳殼一錢 桔梗

喘症이 심한데는 生薑汁과 木香汁 반잔을 加한다.

【考察】

金沸草散은 『鷄峰普濟方』에 나오는 것으로 風寒에 감축되어 咳嗽喘滿하고 痰涎不利한 증상을 치료할 때 는데, 朱肱의 『類證活人書』에는 麻黃 대신 細辛이 들어가 있다³⁷⁾. 『鷄峰普濟方』의 것은 『醫學正傳』에서 인용하였고³⁸⁾, 다시 『東醫寶鑑』에서 재인용하였으며³⁹⁾, 『類證活人書』의 것은 陶華가 인용하고 다시 『

37)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p.439. : 金沸草散 治傷寒 中脘有痰 令人壯熱頭痛 項筋緊急 時發寒熱 皆類傷風 但不頭痛 爲異耳 前胡三兩 荊芥四兩 半夏一兩淨洗薑汁浸 赤芍藥二兩 細辛一兩 甘草一兩炙 旋復花三兩 右件搗羅爲末每服二錢水一盞生薑五片棗子一枚同煎至六分去滓熱服未知再服

38)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46. : 金沸草散(活人) 治傷寒咳嗽 頭疼發熱 胸膈痰壅 喘滿等證 前胡一錢五分 半夏七分半 細辛三分 赤茯苓一錢 甘草三分 荊芥穗二分 旋復花一錢五分 名金沸草 一方無細辛 茯苓有麻黃 芍藥上細切 作一服 加生薑五片 大棗一枚 水一盞半煎至一盞 溫服

39) 許浚. 前揭書. p.1328. : 金沸草散 治肺 或風寒咳嗽聲重 痰涎黃濁壅盛 荊芥穗二錢 旋覆花 前胡各一錢半 麻黃 赤茯苓各一錢 半夏七分半 細辛 甘草各三分 右剉作一貼入薑三棗二 梅一 水煎綿濾 去滓服<正傳>

醫學入門』에서 재인용하였다.⁴⁰⁾

그러나 陶華는 我家金沸草散이란 처방을 다시 創方하여 冷痰으로 인한 哮喘을 치료한다 하였으니 傷寒陰證에 神效하다.

第5節 小青龍湯

【原文】

小青龍湯

治心下停水著⁽¹⁾寒하야 或咳 或喘 或噫⁽²⁾에 用此湯이라

麻黃中 官桂中 乾薑下 五味下 甘草下 細辛上 半夏中 芍藥中 生薑下

喘甚에 加杏仁이라

水薑煎服이라

【注釋】

- (1) 著: 着也, 붙을 착.
- (2) 噫: 트림. 氣가 胃 가운데를 따라 上逆하여 소리가 나는 병증이다.

【國譯】

小青龍湯

心下에 水氣가 쌓인 데다 寒氣가 붙어 咳嗽 喘息 트림하는데 이 處方을 쓴다.

麻黃 官桂 乾薑 五味子 甘草 細辛 半夏 芍藥 生薑 喘息이 심한데는 杏仁을 加한다.

水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처방 중의 麻黃 桂枝는 發汗解表와 宣肺平喘하는 효능이 있고, 芍藥은 桂枝와 배합하여 營衛를 조화롭게 한다. 乾薑과 細辛은 水飲을 溫化하게 하고 밖으로 汗을 발산하며, 半夏는 燥濕化痰, 蠲飲降濁하고, 五味子は 斂肺止咳하는 외에 溫藥이 肺氣를 소모하는 것을 막으며, 甘草는 藥性을 완화시킨다.

40) 李梴. 前揭書. p.650. : 風熱咳嗽 金沸草散能除 旋覆花四分 荊芥八分 麻黃 前胡 各六分 甘草 赤芍 半夏 各二分 薑三片 棗一枚 水煎

第6節 葛根湯

【原文】

葛根湯 卽葛根解肌湯이라

治傷寒陽明經의 發熱頭額痛 微惡寒 目痛鼻乾 不得眠 無汗 脈微洪은 宜用此方이라

葛根上 桂枝中 芍藥中 甘草下 麻黃中 加白芷 升麻 俱少用이라

表熱에 加柴胡요 裏熱에 加黃芩이라

本經無汗하고 惡寒甚者엔 去黃芩이라

渴에 加天花粉이요 惡心에 加陳皮요 胸脇滿悶에 加枳殼 桔梗이라

太陽與陽明合病하야 無汗惡風하고 脈浮長者엔 加羌活 川芎이라

陽明與少陽合病하야 無汗惡風하고 脈弦長者엔 用此 湯合小柴胡하고 去麻黃 桂枝하니 祛病如拾芥耳라

若剛瘧⁽¹⁾에 加羌活 獨活이라

若天時溫疫하야 發熱而渴하고 內外熱者는 加黃芩하니 名爲葛根解肌湯이라 冬月宜加하고 春宜少하며 夏秋에는 去之하고 加蘇葉이라

若頭疼 并額痛甚者에 加葱白 川芎 白芷하니 名爲葛根葱白湯이라

若下痢嘔逆者에 加半夏 生薑하니 名爲葛根半夏湯이라

【注釋】

- (1) 剛瘧: 열이 나되 땀은 나지 않고 惡寒하며 목이 뻣뻣 하면서 땅기고 머리가 흔들리며 입이 딱 다물고 손발이 뒤틀리면서 땅기고 抽擗하며 심하면 角弓 反張이 되며 맥이 弦緊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

【國譯】

葛根湯 즉 葛根解肌湯이다

傷寒에서 陽明經의 發熱 頭額痛 微惡寒 目痛 鼻乾 不得眠 無汗 脈微洪한데는 마땅히 이 처방을 쓴다.

葛根 桂枝 芍藥 甘草 麻黃에 白芷 升麻를 조금 加한다.

表熱에는 柴胡를 加하고, 裏熱에는 黃芩을 加한다. 陽明經의 땀이 나지 않고 惡寒이 심한데는 黃芩을 뺀다.

渴症에는 天花粉을 加하고, 惡心에는 陳皮를 加하고, 胸脇이 그득하고 답답한데는 枳殼 桔梗을 加한다.

太陽과 陽明이 合病하여 無汗惡風하고 脈浮長한데는 羌活 川芎을 加한다.

陽明과 少陽이 合病하여 無汗惡風하고 脈弦長한데는 이 處方에 小柴胡湯을 合하고 麻黃 桂枝를 빼니 病을 치료하는 것이 티끌을 줍는 것과 같다.

剛瘧에는 羌活 獨活을 加한다.

만약 溫疫이 발생하여 發熱하면서 渴症이 나고 內外가 모두 熱한데는 黃芩을 加하니 葛根解肌湯이라 한다. 겨울에는 黃芩을 좀더 加하고 봄에는 줄이며 여름과 가을에는 黃芩을 빼고 蘇葉을 加한다.

頭痛과 額痛이 甚한데는 葱白 川芎 白芷를 加하니 葛根葱白湯이라 한다.

下痢하면서 嘔逆하는데는 半夏 生薑을 加하니 葛根半夏湯이라 한다.

【考察】

『傷寒全生集』의 葛根湯은 『傷寒論』의 葛根湯에 白芷 升麻를 조금 더한 것으로 葛根解肌湯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葛根解肌湯을 葛根湯에 黃芩二錢을 加하여 봄에 溫疫으로 發熱而渴 不惡寒을 치료한다 하였는데, 다시 그 뒤에 陶氏解肌湯이라 명명하고 葛根解肌湯에서 麻黃 桂枝를 빼고 柴胡 羌活 白芷 桔梗 石膏 升麻를 加하여 生薑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하였으니⁴¹⁾, 여기의 처방과는 조금 다르다. 또한 『東醫寶鑑』에는 『醫學入門』의 陶氏解肌湯을 葛根解肌湯이라 하여 本條에서 말하고 있는 증후를 치료한다고 하였으니⁴²⁾ 각각의 처방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떤 것

41) 李梴. 前掲書. p.680. : 葛根解肌湯 卽葛根 湯加黃芩二錢 治同上 兼治春疫發熱而渴 不惡寒

陶氏解肌湯 卽葛根解肌湯 去麻 桂 加柴胡 羌活 白芷 桔梗 石膏 升麻 薑 煎服 治陽明病將傳少陽等證 如無汗惡寒甚者 去芩 加麻黃 夏秋換蘇葉

42) 葛根解肌湯 治陽明經病 目疼鼻乾 不得臥 宜解肌 葛根 柴

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第7節 升麻葛根湯

【原文】

升麻葛根湯

治時氣發熱欲發斑疹而未出者라

升麻 葛根 芍藥 甘草

若頭疼에 加川芎 白芷이라

水煎服이라

若見發斑하면 不可溫覆取汗이니 若發汗 則斑爛也라

【國譯】

升麻葛根湯

時氣病的發熱하고 斑疹이 돋으려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升麻 葛根 芍藥 甘草

頭痛에는 川芎 白芷를 加한다.

물에 달여 복용한다.

만약 斑疹이 발생하면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 땀을 내서는 않되니 만약 發汗시키면 斑疹이 터져 문드러지게 된다.

【考察】

升麻葛根湯은 『閻氏小兒方論⁴³⁾』에 있는 것으로 傷寒 溫疫 時氣 등의 發熱하고 瘡疹이 이미 발생한 것이나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하였으니 조금 다르다. 이 處方은 『太平惠民和劑局方』⁴⁴⁾『醫學

胡 黃芩 芍藥 羌活 石膏 升麻 白芷 桔梗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一名柴葛解肌湯 <回春>

43) 중국 송나라 錢乙이 편찬한 『小兒藥證直訣』의 부록에 있다. 閻氏는 閻孝忠으로 政和 4년(A.D.1114)에 錢乙의 것에 자기의 驗方을 정리하여 『小兒藥證直訣』을 편찬한 사람이다.

44)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55. : 升麻葛根湯 治大人小兒 時氣溫疫 頭痛發熱 肢體煩疼 及瘡疹已發及未發 疑二之 升麻 白芍藥 甘草炙 各十兩 葛根十五兩 上爲粗末 每服三錢 用水一盞半 煎取一中盞 去滓 稍熱服 不計時候 日二三服 以病氣去 身

入門』⁴⁵⁾『東醫寶鑑』⁴⁶⁾에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으니 疫癘로 인한 斑疹治療의 대표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第8節 葱白葛根湯

【原文】

葱白葛根湯

治已發汗이나 頭疼甚而熱不可解者라

葛根上 芍藥中 知母中 川芎

頭疼甚에 加白芷요 熱甚에 加柴胡요 身體痛에 加羌活 水에 葱薑하야 煎服이라

【國譯】

葱白葛根湯

이미 發汗시켰으나 頭痛이 심하고 熱이 풀리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葛根 芍藥 知母 川芎

頭痛이 심한데는 白芷를 加하고, 熱이 심한데는 柴胡를 加하고, 身體痛 骨節痛에는 羌活을 加하고, 渴症에는 石膏 天花粉을 加한다.

물에 葱白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葱白葛根湯은 『醫學入門』에 葛根葱白湯⁴⁷⁾으로 인

清涼爲度 小兒量力服之

45) 李梴. 前掲書. p.680. : 升麻葛根湯 治四時傷寒 時行疫癘 表證 或已汗吐下 表證未解 熱深毒甚 發爲斑疹 春溫尤妙 兼治小兒瘡疹欲發未發 及解傷酒膈熱 口瘡咽痛 葛根一錢 半 升麻 芍藥 甘草各一錢 水煎溫服 以病去身清涼爲度 如表熱 加柴胡 內熱 加黃芩 有吐血衄血 或斑紫赤 加生地 牡丹皮 熱甚 加山梔 黃連 或加連翹 天花粉 尤妙 大便秘 加枳殼 大黃以利之 頭痛 加川芎 身痛 加羌活 胸膈痞悶 加枳梗 咳嗽 加杏仁 有痰 加半夏 發斑 加支參 如老人 去芍藥 加柴胡 茯苓 人參

46) 許浚. 前掲書. p.1129. : 升麻葛根湯 治溫病 及時令感冒 葛根二錢 白芍藥 升麻 甘草各一錢 右剉 作一貼 薑三蔥二 煎服

47) 李梴. 前掲書. p.645. : 葛根葱白湯 葛根 芍藥 知母 各一錢 半 川芎 生薑各三錢 蔥三莖 煎服

용되어 있는데, 陽明頭目痛 鼻乾無汗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第9節 人參白虎湯

【原文】

人參白虎湯 夏季用此方이라

治陽明熱邪傳入胃府하여 壯熱惡寒하고 表裏俱熱하며 舌燥煩渴飲水 하고 脈洪數이라 或澀澀自汗하고 或面赤 譫語하고 或汗後大熱 熱不解하여 煩渴飲水者하고 或內熱而發斑者도 并用此方治之라 無渴이면 不可用此藥이니 爲大忌也라

人參 石膏 知母 黃芩 粳米

熱甚에 加柴胡요 煩渴에 加梔連이요 頭痛에 加川芎이요 渴에 加天花粉이요 虛煩에 加竹茹요 嘔에 加陳皮요 初見斑에 加生地 芍藥이라

口渴 心煩 背微惡寒者는 亦用此方호며 竹葉烏梅라 水煎服이라

此方은 立夏後立秋前 大熱時에 可服이요 立夏前立秋後 天氣不熱하고 并內傷氣血俱虛者는 不可服이라

【國譯】

人參白虎湯 여름철에만 이 處方을 쓴다.

陽明熱邪가 胃府로 傳入하여 壯熱惡寒하고 表裏에 모두 熱이 있으며 혀가 마르고 煩渴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며 脈이 洪數한 것을 치료한다. 或 줄줄 흐르게 自汗하는 것, 或 얼굴색이 붉고 譫語하는 것, 或 發汗시킨 후에 大熱이 나서 熱이 풀리지 않아 煩渴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 或 內熱로 發斑하는 것도 모두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渴症이 없으면 복용해서는 않되니 가장 중요한 禁忌事項이다.

人參 石膏 知母 黃芩 粳米

熱이 심한데는 柴胡를 加하고, 煩渴에는 梔子 黃連을 加하고, 頭痛에는 川芎을 加하고, 渴症에는 天花粉을 加하고, 虛煩에는 竹茹를 加하고, 嘔逆에는 陳皮를 加하고, 斑疹이 처음 나타나는데는 生地 芍藥을 加한다.

口渴 心煩 背微惡寒하는데는 이 처방에 竹葉 烏梅를 加하여 쓴다.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이 처방은 立夏後 立秋前에 大熱이 날 때만 복용할 수 있고, 立夏前 立秋後에 날씨가 뜨겁지 않거나 內傷病의 氣血이 모두 虛한 경우에는 복용해서는 안 된다.

【考察】

人參白虎湯은 白虎加人參湯인데 『醫學入門』에는 따로 陶氏白虎湯⁴⁸⁾이라고 하여 加減法의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제시하였으나, 『東醫寶鑑』에는 『醫學入門』의 白虎湯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뒤에 白虎湯에 人參一錢을 加한 것이 人參白虎湯이라 하였으니 실제로는 白虎加人參湯을 말한다.

第10節 川芎石膏湯

【原文】

川芎石膏湯

治時氣의 壯熱頭痛 無汗 脈洪長 惡風 煩渴者라

川芎上 石膏中 麻黃下 蒼朮下 葛根中 甘草下

渴에 加天花粉이요 熱甚에 加黃芩 柴胡면 退熱也라

【國譯】

川芎石膏湯

時氣病의 壯熱頭痛 無汗 脈洪長 惡風 煩渴하는 것을 치료한다.

川芎 石膏 麻黃 蒼朮 葛根 甘草

渴症에는 天花粉을 加하고, 熱이 심한데는 黃芩 柴胡를 加하면 熱이 내린다.

【考察】

川芎石膏湯은 時氣病의 壯熱頭痛 無汗 脈洪長 惡風 煩渴하는 것을 치료한다 하였으나, 『傷寒六書』 『醫學入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보인다. 특히 時氣에 대해 자세히 논한 『傷寒全生集·辨時

48) 白虎湯 加人參 五味子 麥門冬 山梔 薑 棗 竹葉 煎服

氣例』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 陶華가 創方하였으나 자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第6章 辨傷寒潮熱例

【原文】

潮熱⁽¹⁾은 屬陽明하니 旺申未⁽²⁾하고 一日一發로대 日晡⁽³⁾時作하야 如潮候之有信 故로 曰潮熱이라 專主胃腑實熱하니 燥糞使然이라

渴甚 不大便 譫語 脈洪數有力者는 用調胃承氣湯攻之로대 如熱不潮 口不渴 大便不實者는 不可攻也라 如熱甚 煩渴飲水 脈洪數 大便如常者는 人參白虎湯解之라 若潮於寅卯⁽⁴⁾는 屬太陽하야 脈弦數하니 小柴胡和之라 若潮於巳午⁽⁵⁾는 屬太陽하야 脈浮緊 小便難 大便溏하니 熱未入腑하고 猶帶表證이면 用柴胡桂枝而解表요 候⁽⁶⁾小便利而大便硬라야 方可攻之라

【注釋】

- (1) 潮熱: 發熱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일정한 때에 발생하는 것.
- (2) 申未: 未時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申時는 3시부터 5시까지 이다.
- (3) 日晡: 해질녘.
- (4) 寅卯: 寅時는 오전 3시부터 5시 까지, 卯時는 5시부터 7시까지 이다.
- (5) 巳午: 巳時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午時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다.
- (6) 候: 診也, 진찰할 후.

【國譯】

潮熱은 陽明에 속하니 未申時에 왕성하고 하루에 한번 나타나는데 해질녘에 발작하여 潮水가 밀려오는 것처럼 정확하므로 潮熱이라 한다. 오로지 胃腑의 實熱을 주관하니 燥屎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渴症이 심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며 譫語하고 脈이 洪數하면서 有力한 것은 調胃承氣湯으로 攻下시켜야 하지만, 만일 潮熱 口渴 大便實이 없는 것은 攻下해서는 안된다. 만약 熱이 심하고 煩渴로 물을 마시고 자하야 脈이 洪數하고 大便을 진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人參白虎湯으로 치료한다. 潮熱이 寅卯時에 나타나는 것은 少陽에 속하여 脈이 弦數하니 小柴胡湯으로 和解한다. 潮熱이 巳午時에 나타나는 것은 太陽에 속하여 或 脈이 浮緊하며 小便을 보기 어렵고 大便은 설사하니 이는 熱이 아직 腑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表에 머무르는 證이니 柴胡桂枝湯으로 解表하고, 小便이 잘 나오고 大便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攻下할 수 있다.

【原文】

蓋攻須料量⁽¹⁾하니 要切脈之實大와 或沈實有力과 或沈數有力과 或洪數有力이요 再審病人하야 腹硬滿痞과 或繞⁽²⁾臍硬痛하야 以手按之則痛과 或轉屎氣⁽³⁾과 或手足心竝腋下에 澀澀然⁽⁴⁾汗이면 此는 內熱有燥屎也라 若大實 大熱 大渴 大滿 大堅하면 用大承氣下之요 若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하면 以小柴胡요 甚者는 小承氣攻之요 若腹中不堅滿하고 止燥渴이나 大便不通 脈實有力하면 用調胃承氣湯이라 凡欲行大承氣어든 當先與小承氣하야 服下良久에 病人腹中轉屎氣者는 此有燥屎也니 可與大承氣攻之요 不轉屎氣者는 初硬後溏不定하니 慎勿攻之니 攻之則腹脹不食而爲難也라

【注釋】

- (1) 料量: 짐작하다.
- (2) 繞: 纏也, 얽어맬 요.
- (3) 轉屎氣: 배에 下氣하려는 기운이 돌아 방귀가 나오는 것.
- (4) 澀澀然: 열이 나면서 땀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모양.

【國譯】

대개 攻下시킬 때는 모름지기 料量하여야하니 切脈하였을 때 實大한 것, 沈實有力한 것, 沈數有力한 것, 洪數有力한 것이 요점이고 다시 환자를 살펴 腹滿痞硬한 것, 배꼽주위가 단단하게 아파서 손으로 누르면 痛症이 있는 것, 방귀가 나오는 것, 手心 足心 腋下에 줄줄 땀이 흐르는 것은 內熱로 燥屎가 있는 것이다. 만약 大實 大熱 大渴 大滿 大堅하면 大承氣

湯으로 瀉下시키고, 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하면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이 약간 심한 것은 小承氣湯으로 攻下시키고, 腹中이 그득하거나 단단하지 않고 다만 燥渴이 있으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며 大便이 不通하고 脈이 實하면서 有力하면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大承氣湯을 써야할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小承氣湯을 투여하고 조금 있다가 환자의 배속에서 방귀가 나오면 燥屎가 있는 것이니 大承氣湯으로 攻下할 수 있으며,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大便이 처음에는 굳어져 있으나 바로 뒤에는 설사하니 함부로 攻下시키면 않되니 만약 잘못 攻下하면 배가 더부룩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어 치료하기 어렵다.

【原文】

陽明에 發潮熱이나 大便漉하고 小便自利하며 脇痛不止하면 小柴胡湯主之요 又脇下硬痛하고 不大便而嘔하며 舌上白胎者는 用小柴胡 則澀然汗出而解也라 若大結胸⁽¹⁾에 有潮熱은 屬太陽하니 大陷胸湯⁽²⁾이라 若咳逆潮熱과 大便自利 潮熱은 竝屬小柴胡나 病人煩渴이나 汗出即解라 又如瘧狀 日晡潮熱하고 脈實者는 可下니 用大柴胡湯이오 大便利而脈虛者는 不可下니 用桂枝柴胡湯⁽³⁾이라 凡有潮熱이면 必先用小柴胡 若熱不除하고 內實燥渴者는 則用大柴胡요 甚者는 用承氣可也라

【注釋】

- (1) 結胸: 사기가 안에 맺혀 胸腹部가 더부룩하고 아파 손도 대지 못하게 되는 병증. 대부분 太陽病, 太陽少陽併病에 下法을 잘못 써서 表熱이 안으로 陷下하거나 實邪가 안으로 들어가 흉중의 水飲과 서로 엉킴으로써 발생한다.
- (2) 大陷胸湯: 大黃六兩去皮 芒硝一升 甘蔞一錢 물 六升到 먼저 大黃을 넣고 二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芒硝를 넣고 한두번 끓어오를 정도 달인 다음 甘蔞末을 타서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 (3) 桂枝柴胡湯: 柴胡桂枝湯이다. 桂枝 黃芩 人參各一兩半 甘草一兩炙 半夏二合半 芍藥一兩半 大棗六枚 生薑一兩半 柴胡四兩 물 七升到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一升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陽明病에 潮熱이 있으나 大便이 묽고 小便이 自利하며 脇痛이 그치지 않으면 小柴胡湯으로 치료하고, 옆구리가 단단하게 아프고 大便을 보지 못하면서 嘔逆하며 혀에 白苔가 낀 것은 小柴胡湯을 투여하면 약간 땀이 쫓 나면서 풀릴 것이다. 大結胸에 潮熱이 있는 것은 太陽에 속하니 大陷胸湯으로 치료한다. 咳嗽로 氣가 逆上하면서 潮熱하는 것과 大便이 自利하면서 潮熱하는 것은 모두 小柴胡湯證에 속하니 약을 복용한 후에 환자가 비록 煩渴하지만 땀이 나면 바로 풀린다. 또한 학질처럼 해질녘에 潮熱이 있고 脈이 實한 것은 瀉下시킬 수 있으니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大便을 下利하면서 脈이 虛한 것은 瀉下시키면 안 되니 柴胡桂枝湯으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潮熱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小柴胡湯으로 치료하고, 만약 潮熱이 내리지 않고 안에 熱이 實하여 燥渴하는 것은 大柴胡湯으로 치료하며, 심한 것은 承氣湯 類로 치료하는 것이 가하다.

【考察】

이 章은 潮熱의 형태와 이에 따른 치료법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潮熱은 陽明府證에 흔히 나타나므로 胃府에 熱이 심하면 譫語 大便秘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切脈하였을 때 實大한 것, 沈實有力한 것, 沈數有力한 것, 洪數有力한 것과 大實 大熱 大渴 大滿 大堅하면 大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하면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이 약간 심한 것은 小承氣湯으로 攻下시키고, 腹中이 그득하거나 단단하지 않고 다만 燥渴이 있으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며 大便이 不通하고 脈이 實하면서 有力하면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다. 또한 潮熱에 少陽證을 겸했을 경우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第1節 大柴胡湯

【原文】

大柴胡湯

治潮熱手足汗出面赤燥渴 譫語 臍腹滿悶或痛 小便赤色 大便秘 過經⁽¹⁾不解하고 或嘔不止 心下鬱鬱微煩하고 或往來寒熱 內有燥渴하고 脈沈實 或沈數有力者에 用之라 其或表症未除 而裏症又急하고 燥渴者는 用此湯하여 通表裏而緩治之니 不傷元氣也라

柴胡上 黃芩中 芍藥中 枳實中 半夏下 厚朴中 大黃上 渴甚에 加天花粉이라 一方엔 無厚朴이라 水薑一片하여 煎至八分하고 大黃을 一沸하여 熱服이라 以下下燥屎爲度 하니 中病即止하고 不得多服이라

傷寒十餘日不解하여 胸脇滿而嘔하고 日晡潮熱者는 實也니 先以小柴胡解外하고 次用大柴胡湯攻裏니 加芒硝下之요 若過經하여 潮熱 譫語 大便實者는 加芒硝下之라

若傷寒三四日에 發汗不散하고 其人蒸蒸發熱하면 內實也니 用調胃承氣湯下之라

若病人 聞木音而驚怕⁽²⁾者는 此陽明土弱畏木也니 不可下요 如人走地板動도 亦怕니 亦不宜下라 若陽明嘔多者는 且未可下요 若心下硬滿者도 亦不可下니 若誤⁽¹⁾下之하여 利不止者는 死也요 利止者는 愈라 又面合赤者는 不可下니 合者는 通也라 此는 有表邪나 因汗不徹故로 不可下也라

【校勘】

- 1) 誤: 原本에는 '悞'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참조하여 '誤'로 고쳤다.

【注釋】

- (1) 過經: 한 經을 지나 다른 經으로 전변한 것.
- (2) 怕: 恐也, 두려울 파.

【國譯】

大柴胡湯

潮熱 手足汗出面赤燥渴 譫語하고 배와 배꼽 주위가 그득하면서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고 小便색이 붉으며 大便秘 固고 한 經을 지나 다른 經으로 전변되어도 풀리지 않으며 或 嘔逆이 그치지 않고 心下가 답답하고 갑갑하거나 或 往來寒熱하며 안으로 燥渴이 있고 脈이 沈實하거나 或 沈數有力한 경우에 本方

을 쓴다. 혹시 表症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裏症도 또한 急하고 燥渴症이 있는 것은 本方을 써서 表裏를 통하게 하여 完만하게 치료하니 元氣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柴胡 黃芩 芍藥 枳實 半夏 厚朴 大黃

渴症이 심한데는 天花粉을 加한다. 『傷寒論』處方에는 厚朴이 없다. 물에 生薑 한 쪽을 넣어 八分이 되도록 달인 다음 大黃을 넣고 한번 끓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燥屎가 나오는 것을 한도로 복용하는데 병에 맞으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많이 복용하여서는 않된다.

傷寒이 10여일동안 풀리지 않아 胸脇이 그득하면서 嘔逆하며 해질 무렵에 潮熱이 나는 것은 實證이니 먼저 小柴胡湯으로 外邪를 푼 다음 大柴胡湯으로 攻裏하니 芒硝를 加하여 瀉下시킨다. 만약 다른 經으로 전변하였는데도 潮熱 譫語하고 大便이 굳은 것은 芒硝를 加하여 瀉下시킨다.

만약 傷寒 3,4일에 發汗시켜도 邪氣가 흩어지지 않고 熱이 후끈후끈 나는 것은 內實이니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킨다.

또한 환자가 나무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은 陽明土가 弱하여 木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瀉下시켜서는 않되고, 사람이 걸을 때 땅이 움직이는 것도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니 瀉下시켜서는 않된다. 만약 陽明證에 자주 嘔逆하는 것은 瀉下시켜서는 않되고, 心下가 단단하면서 그득한 것도 또한 瀉下시켜서는 않되니, 만약 잘못 瀉下시켜 泄瀉가 그치지 않는 자는 죽고 泄瀉가 그치는 자는 낫는다. 또한 얼굴 전체가 붉은 것은 瀉下시킬 수 없으니, 습이라는 글자는 通과 같다, 이는 表邪가 있으나 完전하게 發汗시키지 않은 까닭에 瀉下시켜서는 않되는 것이다.

【考察】

大柴胡湯은 往來寒熱 胸脇苦滿 潮熱 手足汗出 燥渴 譫語 大便秘 脈數有力 등의 증후가 나타나는 少陽證에 陽明府實證을 겸한 것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中氣가 약하여 발생하는 嘔多 心下滿悶등이나 表邪가 울체된 面合赤色에는 사용해서는 않된다.

『傷寒論』저방에는 원래 厚朴이 없으며 『醫學入門』

白芍하고 再加黃柏하니 名春澤湯이라

若腹痛 惡寒엔 去黃芩하고 加炒芍藥 桂枝하니 名爲柴胡建中湯이라 自利 惡風 發熱 腹痛者도 亦主之라

若心下痞滿而發熱者엔 加枳實 黃連하고 有痰엔 加瓜蒌 桔梗하니 名爲柴胡連枳湯이라

若血虛發熱이 至夜尤甚하고 脈大無力엔 加當歸 川芎 生地 芍藥하니 名柴胡四物湯이라

若燥渴 津液不足엔 去半夏하고 加麥門冬 五味 黃柏 知母하니 名爲柴胡養陰湯이라

若內熱甚하야 錯語⁵⁾ 心煩 不得眠엔 加黃連 黃柏 梔子 하고 調辰砂末하니 名爲柴胡解毒湯이라

若脈弦長하고 少陽陽明合病하야 發熱者엔 加葛根 芍藥 하니 名爲柴葛解肌湯이라

若脈洪數 惡熱 內實 譫語 面赤 煩渴 飲水不止者엔 合白虎湯하니 名爲參胡石膏湯이라 大便實엔 加大黃하고 去半夏하야 攻之요 若夾暑엔 加黃連 香薷하고 去半夏라

本經病에 惡寒하고 或往來寒熱 似瘧者엔 加桂枝라 惡熱甚하고 燥渴 譫語 齒無津液者엔 加石膏 知母

天花粉하고 去桂枝요 痰嗽엔 加金沸草 五味子라 虛煩엔 加竹茹 竹葉 炒黃連이라

胸中有熱痰하야 滿悶而痛을 名曰痰結이니 治在柴胡陷胸湯上²⁾에 加竹瀝 薑汁少許라

本經頭痛엔 加川芎이요 脇下痛而痞滿엔 加青皮 川芎이요 小腹痛엔 加青皮라

若痰多吐不出엔 去半夏하고 加貝母 瓜蒌 竹瀝 薑汁이니 治在陷胸湯³⁾⁴⁾에 嘔 加薑汁 橘紅이라 嘔家에 多用生薑은 蓋薑乃嘔家之聖藥이니 是要散其逆氣也요 嘔家에 多用半夏는 以去水니 水去則嘔止하니 是要散其痰飲也라

婦人熱入血室하야 經水適斷適來者는 寒熱似瘧하니 本方에 加紅花 生地 當歸 桂枝 丹皮하야 水薑煎少하야 待半時許하고 又服一盞하야 以接藥力和之라

【校勘】

- 1) 狹熱: 原本에는 '脇熱'로 되어 있으나 문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狹熱'로 고쳤다.
- 2) 上: 原本에는 '下'로 되어 있으나 '柴胡陷胸湯'이 위에 있으므로 '上'으로 고쳤다.

3) 陷胸湯: 原本에는 '陷中湯'으로 되어 있으나, 病證이 結胸證과 비슷하고 柴胡陷胸湯의 내용이 나오니 '陷胸湯'으로 고쳤다.

4) 上: 校勘 2)와 동일.

【注釋】

- (1) 目眩: 눈앞이 캄캄하고 꽃 같은 헛것이 어른거리는 증상.
- (2) 殺車槌: 『傷寒六書·殺車槌法』이니, 陶華의 처방을 모아 해설한 처방집이다.
- (3) 悸動: 動悸. 환자 스스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가슴의 박동이 옷 위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뛰는 병증.
- (4) 夢遺: 꿈속에서 射精하는 것.
- (5) 錯語: 말을 조리 없이 하는 것. 정신은 맑은데 언어구사가 잘 안되어 말하고 나서야 스스로 잘못된 줄을 아는 것으로 대개 心氣가 虛하거나 사고력이 부족 한 데서 나타난다.

【國譯】

小柴胡湯

少陽經의 半表半裏證을 치료한다. 脈이 弦數하고 或 寒熱이 往來하며 耳聾 脇痛하고 嘔逆이 있으면서 口이 쓰고 눈앞이 캄캄하며 양쪽에 頭角痛이 있고 胸脇痛이 있으며 胃 上下혹左右가 붓고 아프며 或 心下痞滿하고 胸中이 답답하며 구역질을 자주하고 潮熱이 있으면서 下利하는데 이 처방이 마땅하니 表裏를 和解하는 神藥이다. 少陽經에는 단지 이 처방 하나로 만 증에 따라 加減하니 따로 다른 처방이 없다. 일반적으로 太陽病을 치료하는데는 下法을 禁하고, 陽明病을 치료하는데는 利小便을 禁하고, 少陽病을 치료하는데는 汗吐下 三法을 모두 禁하니 汗法 吐法 利小便하여서는 안된다. 『殺車槌法』에는 本方에 陳皮 芍藥이 더 있다.

柴胡 黃芩 人參 半夏(渴症에는 漚다) 甘草(嘔逆에는 甘草를 빼고 心下滿에도 역시 漚다.)

물에 生薑 한쪽 大棗 2개를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胸中이 답답하나 嘔逆하지 않는데는 半夏를 빼고 瓜蒌仁 桔梗을 加한다.

가슴이 脹滿하고 痰이 많아 痞悶하며 喘息 咳嗽에 讎 人參을 빼고 瓜蒌仁 桔梗 枳實 杏仁 黃連 貝母를

加한다.

口渴에는 半夏를 빼고 天花粉 知母를 가하며, 腹中痛에는 黃芩을 빼고 炒白芍藥을 가하며, 脇下滿硬에는 大棗를 빼고 鹹味인 牡蠣를 가하여 軟堅시킨다.

가슴이 動悸하고 小便不利에는 白茯苓을 가하고, 口渴이 없고 身熱이 약간 있는데는 人參을 빼고 桂枝를 가하며, 咳嗽로 호흡이 급박한데는 人參을 빼고 五味子와 乾薑 조금을 가한다.

胸膈이 脹滿하여 느긋하지 못하고 或 胸中痛 脇下痞痛에는 人參 甘草를 빼고 枳殼 桔梗을 가하니 柴胡枳梗湯이라한다.

胸中痞滿하고 눌렀을 때 아픈데는 人參을 빼고 瓜蒌仁 桔梗 枳殼 黃連을 가하니 柴胡陷胸湯이라한다.

脈이 弦虛하고 發熱 口渴하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는데는 人參을 倍用하고 麥門冬 五味子를 가하니 淸熱生脈湯이라하니 渴症이 있으면 半夏를 뺀다. 脈이 弦數하고 發熱 舌乾 口渴하며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는 다시 黃連 炒梔子仁 天花粉을 가하고 渴症이 심한데는 石膏 知母를 가하니 參胡淸熱飲이라한다.

脈이 弦虛하고 發熱하며 或 양쪽 尺脈이 모두 浮하면서 無力한 것은 반드시 먼저 房事로 인한 것이거나 或 夢遺로 失精하였거나 或 病을 앓아 正氣가 不固한 까닭이니 마땅히 知母 黃柏 牡蠣粉을 가해야하니 滋陰淸熱飲이라한다.

咳嗽에는 五味子 麥門冬을 가한다.

脈虛 發熱 口乾하고 或 大便이 굳지 않으며 胃가 弱하여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白芍 白朮 茯苓을 가하니 參胡三白湯이라한다.

煩渴이 생기고 脈이 浮弦하면서 數하고 小便不利 大便滑泄하는데는 四苓湯을 습하니 柴苓湯이라한다.

內熱이 있는데 下利하고 口渴이 심한 것은 狹熱利이니 炒黃連 白芍을 가하고 다시 黃柏을 가해야하니 春澤湯이라한다.

腹痛 惡寒에는 黃芩을 빼고 炒芍藥 桂枝를 가하니 柴胡建中湯이라한다. 自利 惡風 發熱 腹痛하는 것도 또한 치료한다.

心下痞滿하고 發熱하는데는 枳實 黃連을 가하고, 痰이 있는데는 瓜蒌 桔梗을 가하니 柴胡連枳湯이라한다.

血虛로 인한 發熱이 밤에 더욱 심하고 脈이 大하면서 無力한데는 當歸 川芎 生地 芍藥을 가하니 柴胡四物湯이라한다.

津液不足으로 燥渴하는데는 半夏를 빼고 麥門冬 五味子 黃柏 知母를 가하니 柴胡養陰湯이라한다.

內熱이 심하여 말이 조리가 없고 心煩 不得眠하는데는 黃連 黃柏 梔子를 가하여 달인 다음 辰砂末을 타서 조복하니 柴胡解毒湯이라한다.

脈이 弦長하고 少陽과 陽明이 合病하여 發熱하는데는 葛根 芍藥을 가하니 柴葛解肌湯이라한다.

脈이 洪數하고 惡熱하며 大便이 굳고 譫語하며 얼굴색이 붉고 煩渴하여 자주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는 白虎湯을 합하여 쓰니 參胡石膏湯이라한다. 大便實에는 半夏를 빼고 大黃을 가하여 攻下시키고, 夾暑에는 黃連 香薷를 가하고 半夏를 뺀다.

少陽病에 惡寒하고 或 학질처럼 往來寒熱하는데는 桂枝를 가한다.

惡熱이甚하고 燥渴 譫語하며 이에 津液이 없는데는 桂枝를 빼고 石膏 知母 天花粉을 가하며, 痰嗽에는 金沸草 五味子를 가한다.

虛煩에는 竹茹 竹葉 炒黃連을 가한다.

胸中에 熱痰이 있어서 그득하고 답답하면서 아픈 것을 痰結이라하니 柴胡陷胸湯에 竹瀝 薑汁 조금을 가한다.

少陽經 頭痛에는 川芎을 가하고, 脇下가 아프면서 痞滿한데는 靑皮 川芎을 가하고, 小腹痛에는 靑皮를 가한다.

痰이 많으나 吐하려해도 나오지 않는데는 半夏를 빼고 貝母 瓜蒌仁 竹瀝 薑汁을 가하여야 하니 아래에 나와 있는 陷中湯에서 嘔症이 있으면 薑汁 橘紅을 가한다. 嘔逆을 자주하는 사람에게 生薑을 많이 쓰는 것은 生薑이 嘔家의 聖藥이기 때문이니 이는 逆氣를 布散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고, 嘔逆을 자주하는 사람에게 半夏를 많이 쓰는 것은 水氣를 제거하기 때문이니 水氣가 제거되면 嘔逆이 그치게 되니 이는 痰飲을 없애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婦人이 熱邪가 血室로 들어가 經水가 때마침 그치거나 시작하게 되면 학질처럼 寒熱이 발작하니 本方에 紅花 生地 當歸 桂枝 丹皮를 가하여 生薑을 넣고

물에 조금 달여 복용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 잔을 복용하여 藥力이 서로 이어지게 하여 和解시킨다.

【考察】

여기에 나오는 小柴胡湯은 『醫學入門』에 陶氏小柴胡湯⁴⁹⁾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처방 내용이 약간 다르고, 『東醫寶鑑』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本方의 加減例에 나오는 몇몇의 處方은 俞根初의 『通俗傷寒論』에 인용되어 있는데, 柴胡枳梗湯⁵⁰⁾, 柴胡陷胸湯⁵¹⁾, 柴胡四物湯⁵²⁾, 은 處方名은 같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參胡三白湯은 柴胡三白湯⁵³⁾으로, 參胡白虎湯은 柴胡白虎湯⁵⁴⁾으로 인용되어 있으니 陶華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第7章 辨傷寒寒熱往來例

【原文】

往來寒熱은 陰陽相勝하야 邪正分爭故也니 此屬少陽半表半裏症이라 若陽不足하면 陰邪出表與爭故로 陰勝而爲寒이요 若陰不足하면 陽邪入裏與爭故로 陽勝而爲熱이라 邪居表多則多寒하고 邪居裏多則多熱하며 邪在半裏半表 則寒熱相半하야 乍往乍來而間作⁽¹⁾也라 小柴胡는 專主往來寒熱하니 寒多면 加桂枝요 熱多면 加黃芩이라

【注釋】

- 49) 陶氏小柴胡湯 卽小柴胡湯 加陳皮 芍藥 川芎 臨熟入生艾汁三匙調服
- 50) 俞根初原著. 三訂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60. : 柴胡枳梗湯 和解表裏法輕劑 俞氏經驗方 川柴胡 一錢至錢半 枳殼 錢半 薑半夏 錢半 鮮生薑 一錢 青子芩 一錢至錢半 桔梗 一錢 新會皮 錢半 雨前茶 一錢
- 51) 俞根初原著. 上揭書. p.64. : 柴胡陷胸湯 和解兼開降法 俞氏經驗方 柴胡 一錢 薑半夏 三錢 小川連 八分 苦桔梗 一錢 黃芩 錢半 括蕁仁(杵) 五錢 小枳殼 錢半 生薑汁 四滴分沖
- 52) 俞根初原著. 上揭書. p.66. : 柴胡四物湯 和解兼補血法 俞氏經驗方 柴胡 八分 仙半夏 一錢 歸身 一錢 生白芍 二錢 條芩 八分 清炙草 六分 生地 錢半 川芎 七分
- 53) 俞根初原著. 上揭書. p.551. : 柴胡三白湯 人蔘 茯苓 白芍 白朮 柴胡 薑棗 煎服
- 54) 俞根初原著. 上揭書. p.64. : 柴胡白虎湯 和解偏重清降法 俞氏經驗方 川柴胡 一錢 生石膏 八錢研 天花粉 三錢 生梗米 三錢 青子芩 錢半 知母 四錢 生甘草 八分 鮮荷葉 一片

(1) 間作: 교대로 발작하는 것.

【國譯】

往來寒熱은 陰陽이 서로 번갈아 勝하여 正氣와 邪氣가 나뉘어 다투기 때문이니 이는 少陽의 半表半裏證에 속한다. 만약 陽이 不足하면 陰邪가 表로 나와 陽氣와 더불어 다투는 까닭에 陰邪가 勝하여 惡寒하게 되고, 陰이 不足하면 陽邪가 裏로 들어가 陰氣와 더불어 다투는 까닭에 陽邪가 勝하여 發熱하게 된다. 邪氣가 表에 많으면 惡寒이 많고 邪氣가 裏에 많으면 發熱이 많으며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으면 惡寒 發熱이 반반씩 잠깐 왔다갔다 하면서 번갈아 발작한다. 小柴胡湯은 오로지 往來寒熱을 주관하니 惡寒이 많으면 桂枝를 加하고, 發熱이 많으면 黃芩을 加한다.

【原文】

太陽症 八九日에 如瘧狀하야 一日二三次度而發하며 不嘔 清便⁽¹⁾ 脈浮緩者는 爲自愈요 不浮緩者는 爲未愈니 用桂麻各半湯⁽²⁾이라 病至十日에 熱結在裏하야 燥渴 大便實 往來寒熱엔 大柴胡下之라 若往來寒熱하고 胸脇滿而不痛은 屬半表半裏하야 未入於腑니 小柴胡枳桔湯이요 未效엔 用小柴胡入小陷胸湯이라 婦人中風八九日에 續得寒熱 發作有時하고 經水適斷適來는 此爲熱入血室이니 用小柴胡 加生地 紅花 當歸 丹皮 桂枝라 若心煩 喜嘔 胸脇滿 不飲食 寒熱往來엔 小柴胡湯이라 汗下後에 不嘔不渴 頭汗出 胸脇滿 小便不利 寒熱往來엔 柴胡桂薑湯이라

【校勘】

- 1) 清便: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에는 ‘清便欲自可’로 되어 있으니, 이에 의거 해석한다.

【注釋】

- (1) 清便: 清은 圓의 뜻이니, 清便은 大便을 말한다.
※圓: 廁也, 직간 청.
- (2) 桂麻各半湯: 桂枝一兩十六銖 芍藥 生姜切 甘草炙 麻黃各一兩去節 大棗四枚擘 杏仁24枚 水 五升到 먼저 麻黃을 한소끔 달여 거품을 제거한 다음 나머지 藥을 넣고 一升八合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六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太陽症이 8,9일에 학질처럼 하루에 두세번 발작하며 嘔逆症이 없고 대변도 이상이 없으며 脈이 浮緩하는 것은 스스로 나오려는 것이고, 浮緩하지 않는 것은 낮지 않으려는 것이니 桂麻各半湯으로 치료한다. 病든지 10일이 되어 熱邪가 안에서 맺혀 燥渴하고 大便이 굳으며 往來寒熱하는 것은 大柴胡湯으로 瀉下시킨다. 만약 往來寒熱하고 胸脇이 그득하나 아프지 않는 것은 半表半裏에 속하여 아직 腑로 邪氣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니 柴胡枳桔湯으로 치료하고, 낮지 않으면 小柴胡湯에 小陷胸湯을 넣어서(柴胡陷胸湯) 치료한다. 婦人이 中風한지 8,9일에 계속 惡寒과 發熱이 發作하는데 때가 있고 經水가 때마침 마치거나 시작하는 것은 熱入血室證이니 小柴胡湯에 生地 黃 紅花 當歸 牡丹皮 桂枝를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心煩 喜嘔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寒熱往來에는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汗下시킨 後에 嘔症과 渴症이 없고 머리에만 땀나며 胸脇苦滿하고 小便不利하며 寒熱往來에는 柴胡桂薑湯으로 치료한다.

【原文】

熱多寒小하고 尺脈遲者는 榮血不足이니 黃芪建中湯⁽¹⁾이요 候尺脈不遲면 小柴胡湯이라 經⁽²⁾에 曰血虛氣弱하야 膜理開하야 邪氣入하야 與正氣相搏하야 結於脇下하고 邪正分爭하야 往來寒熱 休作有時하고 默默不欲飲⁽¹⁾이라하고 臟腑相連할새 其痛必下라하니 痛攻上故로 使嘔也니 小柴胡湯이라 若小柴胡症을 醫以他藥下之로대 其柴胡症不罷者는 復以小柴胡湯하야 必蒸蒸而振 則發熱汗出而解也라 若傷寒六七日에 發熱有汗 微惡寒 肢節煩疼 微嘔 心下有結엔 柴胡桂枝湯⁽³⁾이니 若寒熱往來에 寒多者는 加桂枝芍藥이요 熱多엔 倍用柴胡라 若胸滿微結 小便不利 渴而不飲하고 但頭汗出하며 往來寒熱하고 心煩者는 柴胡桂枝乾薑湯⁽⁴⁾主之니 寒熱汗多多 亦治之라

【校勘】

- 1) 默默不欲飲: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에는 ‘默默不欲食’으로 되어 있다.

【注釋】

- (1) 黃芪建中湯: 桂枝 甘草 生薑 各 3兩 芍藥 6兩 大棗 12개 飴糖 1升 黃芪 1.5兩을 물로 달여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⁵⁵⁾
 (2) 經: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이다.
 (3) 柴胡桂枝湯: 柴胡 黃芩 桂枝 乾薑 瓜蒌根 牡蠣粉 甘草라 心下痞硬에는 枳實을 加하여 달여서 복용한다.⁵⁶⁾
 (4) 柴胡桂枝乾薑湯: 柴胡 8兩 桂枝 黃芩 各 3兩 乾薑 牡蠣 甘草 各 2兩 天花粉 4兩을 물에 달여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國譯】

發熱이 많고 惡寒이 적으며 尺脈이 遲한 것은 榮血이 不足한 것이니 黃芪建中湯으로 치료하고, 尺脈이 遲하지 않으면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傷寒論』에 “氣血이 虛弱하여 膜理가 열려서 이로 인해 邪氣가 들어가서 正氣와 相搏하여 脇下에 맺히고, 正氣와 邪氣가 分爭하여 往來寒熱이 발작하는 것이 때가 있으며, 默默히 음식을 먹으려하지 않는다.” 하였고, “臟腑는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痛證은 반드시 아래서 나타난다.” 하였으니 痛症이 위를 攻擊하므로 嘔症이 발생하니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만약 柴胡證을 의사가 다른 약으로 瀉下시켰는데 柴胡證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小柴胡湯을 투여하면 반드시 후끈후끈하게 熱이 나면서 振慄하니 發熱汗出하면 풀릴 것이다. 傷寒病 6,7일에 發熱하면서 땀이 나고 약간 惡寒하며 四肢마디가 우직하게 아프고 약간 嘔逆하며 心下가 맺힌 것에는 柴胡桂枝湯으로 치료하니, 寒熱往來에서 惡寒이 많은 것에는 桂枝 芍藥을 加하고, 發熱이 많은 것에는 柴胡를 倍用한다. 또한 胸滿하면서 약간 結痛이 있고 小便不利하며 渴症이 있으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며 단지 머리에만 땀이 나고 往來寒熱하며 心煩하는 것은 柴胡桂枝乾薑湯으로 치료하니 惡寒 發熱하면서 땀이 많은 것도 또한 치료한다.

【考察】

- 55) 陳紀藩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201.
 56) 陶華. 傷寒全生集. 眉壽堂刻本 影印本. 利 p.9.

寒熱往來는 대부분 少陽經 半表半裏證으로 正氣와 邪氣가 서로 분쟁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主證은 心煩 喜嘔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寒熱往來이니 小柴胡湯으로 치료하는데, 惡寒이 많으면 桂枝를 加하고, 發熱이 많으면 黃芩을 加한다.

寒熱往來 가운데 太陽經證은 表邪가 拂鬱하여 나타나므로 桂枝麻黃各半湯으로 치료하고, 婦人의 熱入血室證에는 小柴胡湯에 生地黃 紅花 當歸 牡丹皮 桂枝를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陽明府證과 少陽證이 겸하였을 때는 大柴胡湯으로 치료하며, 少陽證을 誤下하여 柴胡證과 結胸證이 겸했을 경우에는 柴胡枳桔湯이나 柴胡陷胸湯으로 치료하고, 少陽證과 太陽證이 겸하였을 경우에는 柴胡桂枝湯으로 치료하며, 少陽證에 中氣가 弱하여 渴症이 있으나 물을 마시고 자 하지 않으며 단지 머리에만 땀이 나는 것은 柴胡桂枝乾薑湯으로 치료한다.

第1節 柴胡薑桂湯

【原文】

柴胡薑桂湯

柴胡上 桂枝中 乾薑下 黃芩中 牡蠣中 天花粉中 甘草下 加木通하야 水薑煎服이라

【國譯】

柴胡薑桂湯

柴胡 桂枝 乾薑 黃芩 牡蠣 天花粉 甘草에 木通을 加하여 粥에 生薑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柴胡薑桂湯은 『醫學入門』에 柴胡桂薑湯⁵⁷⁾이라는 處方名으로 少陽病 寒熱往來에 特效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東醫實鑑』에는 寒熱往來뿐만 아니라 寒瘧에도 쓴다⁵⁸⁾고 소개하였으며, 『通俗傷寒論』에도 柴胡桂薑湯 和解偏重溫通法 俞氏經驗方 載金匱要略⁵⁹⁾이라하여 本方을 인용하여 썼으니 후대에 미친

57) 李梴. 前掲書. p.647. : 柴胡桂薑湯 柴胡三錢 桂枝牡蠣各一錢半 天花粉 黃芩各二錢 乾薑一錢 甘草八分 水煎溫服

58) 許浚. 前掲書. p.1487. : 寒瘧 自感寒而得 寒多熱少 宜… 柴胡桂薑湯

영향이 크다.

第8章 辨傷寒煩熱例

【原文】

煩熱者는 乃邪熱傳裏하야 不經¹⁾汗吐下 則爲煩熱이니 乃熱而煩擾不安也요 與發熱로 若同而異라 病人煩熱은 汗出則解라하니 如胸膈舒暢하면 不過和解하고 微汗而已라 若心下滿而煩 則有吐下之殊요 先煩而悸者는 爲實이요 先悸後煩者는 爲虛煩이니 乃欲吐不吐鬱悶之貌라

【注釋】

(1) 經: 거칠 경.

【國譯】

煩熱이라는 것은 汗吐下를 거치지 않았는데 邪熱이 裏部로 전변하여 熱이 나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니 發熱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傷寒論』에 “煩熱은 땀이 나면 풀린다.⁶⁰⁾” 라고 하니 만약 胸膈이 답답하지 않고 뚫려 퍼져 있으면 심하게 和解하지 말고 약간 땀을 내면 낫는다. 또한 心下가 그득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吐法을 쓸 것⁶¹⁾과 下法을 쓸 것⁶²⁾을 알아야 하고, 먼저 煩하고 나중에 悸症이 것은 實煩이고, 먼저 悸하고 나중에 煩症이 있는 것은 虛煩이니 吐하려하나 吐하지 못하고 鬱悶한 모양이다.

【原文】

但表有熱하고 不得汗出而煩者는 脈必浮數하니 宜發汗即愈라 若發汗後解라가 半日許에 復發煩熱하고 脈浮數者는 宜再汗之라 又服桂枝湯이로래 反煩不解者는 先刺風池¹⁾風府²⁾하고 却與桂枝湯 則自愈也라 太陽病에 心煩

59) 俞根初原著. 三訂通俗傷寒論. p.60. : 柴胡 二錢至三錢 川桂枝 錢半 乾薑 錢半 清炙草 一錢 花粉 三錢至四錢 生牡蠣 二錢 黃芩 一錢 陰陽水 四碗分二次煎

60) 病人煩熱 汗出則解 (249)

61) 病人 手足厥冷 脈乍緊者 邪結在胸中 心下滿而煩 飢不能食者 病在胸中 當須吐之 宜瓜蒂散(362)

62) 傷寒五六日 頭汗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硬 脈細者 此爲陽微結 必有表 復有裏也…得屎而解(156)

自汗 小便數者는 不可與桂枝湯이오 宜白芍甘草湯⁽³⁾이라 太陽病服湯後에 汗出煩渴 脈洪大者는 用白虎人參湯⁽⁴⁾이라

【注釋】

- (1) 風池: 목뒤 후두골 아래의 양쪽에 위치하는데, 등세 모근의 위쪽 끝과 흉쇄유돌근 사이의 오목한 곳에 해당하며, 足少陽膽經, 陽維脈의 交會穴이다.
- (2) 風府: 목 뒤 가운데 선을 따라 후발제에서 안으로 1寸 들어간 곳에 자리하는데, 바깥후두응기 아래의 양쪽 등세모근 사이의 오목한 부위에 해당된다.
- (3) 白芍甘草湯: 白芍藥 甘草炙 各四兩 물 三升에 넣고 一升五合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반으로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 (4) 白虎人參湯: 白虎加人參湯이다. 知母 6錢 石膏 1合 甘草 9兩 粳米 0.6合 人參 3錢을 물로 粳米가 익을 때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3회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國譯】

단지 表에만 熱이 있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煩하는 것은 반드시 脈이 浮數할 것이니 發汗시키면 낫는다. 또한 發汗시킨 후에 병이 풀렸다가 만나절정도 지나 다시 煩熱이 발생하고 脈이 浮數한 것은 다시 發汗시켜야 한다.⁽⁶³⁾ 또한 桂枝湯을 복용하였는데 도리어 煩症이 풀리지 않는 것은 먼저 風池 風府를 자침하고 다시 桂枝湯을 투여하면 낫는다.⁽⁶⁴⁾ 太陽病에 心煩自汗하고 小便을 자주 보는 것은 桂枝湯을 투여하지 말고, 白芍甘草湯으로 치료한다.⁽⁶⁵⁾ 太陽病에서 약을 복용한 후 땀이 나고 煩渴하며 脈이 洪大한 것은 白虎人參湯으로 치료한다.⁽⁶⁶⁾

63) 傷寒 發汗而解 半日許 復煩 脈浮數者 可更發汗 宜桂枝湯 (58)

64)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風府 却與桂枝湯 則愈(25)

65) 傷寒 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腳攣急 反與桂枝湯 欲攻其表 此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 吐逆者 作甘草乾薑湯與之 以復其陽 若厥愈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即伸 若胃氣不和 譫語者 少與調胃承氣湯 若重發汗 復加欬針者 四逆湯主之(30)

66)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渴不解 脈洪大者 白虎加人參湯主之(27)

【原文】

陽明病에 心煩 喜嘔吐 寒熱往來 心下悸 小水⁽¹⁾不利는 小柴胡加茯苓湯이라 衄血⁽²⁾ 煩渴 飲水則吐는 五苓散⁽³⁾이오 不愈면 竹葉石膏湯⁽⁴⁾이라 下後에 晝煩夜靜하고 不嘔不渴 無表症이나 脈微沈는 薑附湯⁽⁵⁾이라 若汗下後에 病仍不解 而煩躁者는 茯苓四逆湯⁽⁶⁾이라 大汗後六七日에 不大便 煩躁不解하고 腹滿硬痛而煩渴者는 有燥屎也니 大承氣湯이라 汗吐下後에 心下滿하고 胸脇氣衝上⁽⁷⁾하야 身振搖而煩者는 茯苓桂枝白朮甘草湯⁽⁷⁾이라 瘡⁽⁸⁾後에 不能勝穀氣 하야 微煩은 損穀則愈하니 小柴胡 加枳殼이오 不愈하고 大便實者는 加大黃이라 又有腎傷寒⁽⁹⁾하야 表裏無熱하고 但煩憤⁽¹⁰⁾하야 不欲見光明者하며 時有腹痛하고 脈沈細는 四逆湯이라

【校勘】

- 1) 胸脇氣衝上: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에는 ‘氣上衝胸’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따라 해석한다.

【注釋】

- (1) 小水: 小便.
- (2) 衄血: 콧속에서 피가 나는 것. 衄血은 陰虛로 火가 盛하여 血을 竅박하여 마구 運行시키거나 瘀血이 막아 血이 經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외에도 陽이 虛하여 陰을 굳게 하지 못하거나 脾가 虛하여 血을 다잡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火를 瀉하거나 血을 식하거나 血을 차게 하거나 陰을 滋潤하는 治법 외에도 補氣攝血하고, 導火歸元 하며, 生血하여 皮를 拭게 하는 등의 治법을 병용한다.
- (3) 五苓散: 猪苓 白朮 茯苓 各 18銖 澤瀉 1兩6銖 桂枝 0.5兩을 가루로 만들어 매회 1方寸匕의 양을 더운 물에 녹여 하루 3회 복용한다. 뜨거운 물을 다량으로 마셔 땀을 내면 낫는다.
- (4) 竹葉石膏湯: 人參白虎湯에 半夏 竹葉 麥門冬 甘草를 더한 것이다.
- (5) 薑附湯: 乾薑 附子에 人參 白朮 甘草를 加하고 물에 生薑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6) 茯苓四逆湯: 茯苓 人參 附子 乾薑 甘草 白朮 물에 生薑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7) 茯苓桂枝白朮甘草湯: 茯苓 4兩 桂枝 3兩 白朮 甘草

각 2兩을 물로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3번 나누어 복용한다.

- (8) 瘥:癒也, 병나을 차.
(9) 腎傷寒: 계절에 맞지 않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寒邪가 인체에 침범하여 少陰經에 잠복하였다가 10~30일에 발병하는 것을 말한다.
(10) 憤: 심란할 켜.

【國譯】

陽明病에 心煩하고 嘔吐를 자주하며 寒熱往來하고 心下悸하며 小便이 不利한 것은 小柴胡加茯苓湯으로 치료한다. 코피가 나는데 煩渴하여 물을 마시면 吐하는 것은 五苓散으로 치료하고, 낮지 않으면 竹葉石膏湯으로 치료한다. 瀉下시킨 後에 낮에는 煩하나 밤에는 편안하고 嘔逆, 渴症과 表症은 없으나 脈이 微沈한 것은 薑附湯으로 치료한다.⁶⁷⁾ 또한 汗下시킨 後에 病이 풀리지 않으면서 煩躁하는 것은 茯苓四逆湯으로 치료한다.⁶⁸⁾ 심하게 땀을 낸 후 6,7일에 大便을 보지 못하고 煩躁가 풀리지 않으며 腹滿하면서 단단하게 아프고 煩渴하는 것은 燥屎가 있는 것이니 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 汗吐下시킨 後에 心下가 그득하고 氣가 胸脇으로 上衝하며 몸을 흔들거려 가누지 못하고 煩症이 있는 것은 茯苓桂枝白朮甘草湯으로 치료한다.⁶⁹⁾ 병이 나은 후에 능히 穀氣를 이기지 못하여 약간 煩하는 것은 穀氣가 내려가면 나오니 小柴胡加枳殼湯으로 치료하고, 낮지 않아 大便이 굳은 것은 大黃을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腎傷寒으로 表裏에 熱이 없고 煩亂하여 밝은 빛을 보려하지 않으며 때로 腹痛이 있고 脈이 沈細한 것은 四逆湯으로 치료한다.

【原文】

凡傷寒에 身體煩疼은 卽是熱痛이니 不得汗故也 일세니 若脈浮數者는 宜汗之니 此表症而煩也요 若煩渴 脈弦數은 此半表半裏症而煩也니 加之寒熱 脇痛而嘔逆 宜小柴胡에 去半夏 加天花粉이라 至于胸中煩은 卽胸中熱而煩也요

67) 下之後 復發汗 晝日煩燥 不得眠 夜而安靜 不嘔 不渴 無表證 脈沈微 身無大熱者 乾薑附子湯主之(61)

68) 發汗 若下之 病仍不解 煩燥者 茯苓四逆湯主之(70)

69) 傷寒 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頭眩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主之(68)

心中煩도 亦心中熱而煩也니 竝宜小柴胡湯 加炒梔連이라 陽明病에 煩渴 脈洪數 飲水不止者는 白虎湯이요 大便實者는 調胃承氣湯이니 此裏症而煩也라

【國譯】

일반적으로 傷寒에서 身體가 열이 나면서 우직하게 아픈 것은 熱痛으로 發汗시키지 못해서이니, 脈이 浮數한 것은 發汗시켜야 하니 이는 表症에서 나타나는 煩症이고, 煩渴하고 脈이 弦數한 것은 半表半裏症에서 나타나는 煩症이니 寒熱往來 脇痛 嘔逆이 있으면 小柴胡湯에서 半夏를 빼고 天花粉을 加하여 치료한다. 胸中煩은 胸中에 熱이 있으면서 煩하는 것이고, 心中煩도 또한 心中에 熱이 있으면서 煩하는 것이니 모두 小柴胡湯에 山梔子炒 黃連을 加하여 치료한다. 陽明病에 煩渴하고 脈이 洪數하며 끊임없이 물을 마시려하는 것은 白虎湯으로 치료하고, 大便이 굳은 것은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하니, 이는 裏症에서 나타나는 煩症이다.

【原文】

若內傷勞役하야 陰虛火動而煩者는 其人身倦無力 自汗하고 尺脈浮虛하니 宜補中益氣湯 加炒梔 連 生地 麥冬 黃柏 知母요 若不得睡而心煩者는 兼服硃砂安神丸⁽¹⁾하야 納其浮游之火而安神明也라 大抵傷寒六七日에 三部脈이 皆至大하고 煩而口噤⁽²⁾不能言이나 其人躁擾라가 欲作汗而解也니 一切肌表大熱而煩이 蓋欲作汗而解니 再無疑矣라 一如⁽³⁾天道亢熱하면 人皆不安이라가 或時大雨時至면 人皆涼爽이로래 但脈不應者는 爲難治라 如足冷 脈沈細者는 此陰症之煩也니 急用人參四逆湯溫之니 又不可不知也라 若發汗出이나 煩熱 不得眠者는 此爲胃中乾燥也니 欲水者는 宜少與之하야 以救胃汁乾也라 若傷寒二三日에 心悸而煩者는 此虛煩⁽⁴⁾也니 小建中湯⁽⁵⁾이라 又少陰病二三日에 心煩不得眠은 黃連阿膠湯⁽⁶⁾主之라

【注釋】

- (1) 硃砂安神丸: 甘草5.5錢 黃連6錢 當歸2.5錢 生地黃 1.5錢을 가루로 만들어 끓인 물로 적서 떡으로 찌서 좁쌀만한 환을 빚는데, 朱砂5錢으로 옷을 입히고

매회 15~20丸씩 식후에 침으로 삼키거나, 소량의 미지근한 물 또는 냉수로 복용한다.⁷⁰⁾

- (2) 噤:口閉, 입담을 금.
 (3) 一如: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나눌 수 없는 모양.
 (4) 虛煩: 虛證으로 인해 발생하는 心胸煩熱이다. 대부분 寒邪에 손상되었는데 汗法 吐法 下法을 잘못 사용하여 虛한 틈을 타 邪熱이 침범하거나 아직 남아 있던 熱邪로 발생한다.
 (5) 小建中湯: 桂枝 生薑 각 3兩 甘草炙 2兩 大棗 12개 芍藥 6兩을 물에 달여 찌꺼기를 버린 다음 飴糖 1升을 넣고서 3회에 나누어 하루 3회 복용한다.
 (6) 黃連阿膠湯: 黃連 4兩 黃芩 2兩 芍藥 2兩에 물 5升을 붓고 2升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阿膠 3兩을 넣어 완전히 녹인 후 약간 식으면 달걀 노른자위 2개를 넣고 잘 저어 섞어서 3회에 나누어 복용한다.

【國譯】

勞役으로 인한 內傷病으로 陰虛火動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몸이 노곤하여 힘이 없고 自汗하며 尺脈이 浮虛하니 마땅히 補中益氣湯에 山梔子炒 黃連 生地 黃 麥門冬 黃柏 知母를 加하여 치료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心煩하는 것은 硃砂安神丸을 함께 복용하여 許浮한 火를 귀납시켜 神明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傷寒이 걸린지 6,7일에 寸關尺 三部脈이 모두 심하게 大하고 煩症이 있으면서 이를 악물어 말을 하지 못하나 환자가 어지럽게 煩躁하다가 땀이 나고자 하면서 풀리려는 것이니, 一切의 肌表에서 大熱이 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풀리려는 것이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氣候가 한결같이 너무 熱하면 사람들이 모두 不安해 하다가 或 큰 비가 때에 맞춰 내리면 모두 서늘하고 상쾌하게 느끼는데 단지 脈이 不應한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또한 발이 차고 脈이 沈細한 것은 陰症에서 나타나는 煩症이니 급히 人參 四逆湯으로 溫之해야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發汗시켜 땀이 많이 났으나 煩熱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胃中이 乾燥한 것이니 물을 마시려는 것은 조금씩 주어서 胃汁이 건조한 것을 구해야한다.⁷¹⁾ 傷寒에 걸린지 2,3일에 心悸하면서 煩症

이 있는 것은 虛煩이니 小建中湯으로 치료한다.⁷²⁾ 또한 少陰病 2,3일에 心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黃連阿膠湯으로 치료한다.⁷³⁾

【考察】

이 章은 煩熱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煩熱은 汗吐下法을 쓰지 않았는데도 邪熱이 裏部로 전변하여 熱이 나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니, 먼저 煩하고 나중에 悸症이 것은 實煩이고, 먼저 悸하고 나중에 煩症이 있는 것은 虛煩이니 吐하려하나 吐하지 못하고 鬱悶한 모양이다. 煩熱은 虛實에 따라 太陽病에서는 芍藥甘草湯과 白虎加人參湯, 陽明病에서는 小建中湯과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하고, 下劑를 쓴 後에 나타나는 것에서는 乾薑附子湯과 梔子豇豆湯, 發汗劑나 下劑를 쓴 후에 나타나는 證候에서는 茯苓四逆湯 茯苓桂枝白朮甘草湯과 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 少陽病에서는 小柴胡加茯苓湯, 少陰病에서는 黃連阿膠湯으로 치료한다. 또한 勞役으로 인하여 陰虛火動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補中益氣湯에 山梔子炒 黃連 生地 黃 麥門冬 黃柏 知母를 加하여 치료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心煩하는 것은 硃砂安神丸을 함께 복용하여 치료한다. 腎傷寒으로 발이 차고 脈이 沈細한 것은 陰症에서 나타나는 煩症이니 급히 人參 四逆湯으로 치료한다.

第1節 黃連阿膠湯

【原文】

黃連阿膠湯

黃連上 黃芩中 芍藥中 鷄子黃下 阿膠上

補虛勞라 水二鍾⁽¹⁾에 先將黃連等藥라야 煎至一鍾하고 下膠烱⁽²⁾ 盡라야 入鷄子黃化服이라

【注釋】

- (1) 鍾: 술잔 중.
 (2) 烱: 녹일 양.

少與飲之 令胃氣和則癒(72)

72)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小建中湯主之(107)

73) 少陰病 得之 二三日以上 心中煩 不得臥者 黃連阿膠湯主之(310)

70) 李杲. 東垣醫集(內外傷辨惑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9.

71)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燥 不得眠 欲得飲水者 少

【國譯】

黃連阿膠湯

黃連 黃芩 芍藥 鷄子黃 阿膠

虛勞를 보한다. 물 두 종지에 먼저 黃連 等藥을 넣어 한 종지가 되도록 달이고 阿膠를 넣어 완전하게 녹인 다음 鷄子黃을 넣고 저어서 복용한다.

【考察】

黃連阿膠湯은 『傷寒論·辨少陰病脈證并治』에 나오는 것으로 少陰病을 얻은 지 2,3일에 心中煩 不得臥를 치료하는 것이니,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바로 인용하여 썼고⁷⁴⁾, 金代의 『傷寒保命集』에는 主治는 이와 비슷하지만 處方 中에 芍藥과 鷄子黃이 빠져 있다. 그러나 『醫學入門』에서는 主治를 傷寒熱毒이 胃大腸을 손상하여 紅赤色 下利에 쓴다고 藥物構成은 『傷寒保命集』을 그대로 따랐으니 참고할 만하다.⁷⁵⁾

또한 本節에서 말한 補虛勞는 育陰清火 滋水降火하는 효능을 말한다.

第2節 黃芪健中湯

【原文】

小建中湯 加黃芪를 名黃芪建中湯이라

桂枝上 芍藥中 膠飴⁽¹⁾中 甘草下

水薑棗煎至一鐘하고 入膠烱盡하야 溫服이라

凡嘔逆并中滿⁽²⁾ 與吐蚘蟲者는 不宜服이라

【注釋】

(1) 膠飴: 阿膠와 飴糖.

(2) 中滿: 가운데 배가 더부룩하고 심하면 덩어리가 생겨 단단하면서 아픈 병증.

74) 許浚. 前掲書. p.402. : 黃連阿膠湯 治少陰病欲寐 二三日後 煩心不得眠臥 黃連 阿膠 芍藥各二錢 黃芩一錢 鷄子一個 右剉作一貼水煎至半 去滓 乃納膠 再一沸 又納鷄子黃攪勻服日三

75) 李梴. 前掲書. p.663. : 黃連阿膠湯 黃連 阿膠 山梔 黃柏 四味各二錢 水煎溫服 治傷寒熱毒攻胃 流入大腸 所下必紅赤成流

【國譯】

小建中湯에 黃芪를 더한 것을 黃芪建中湯이라한다.

桂枝 芍藥 膠飴 甘草

물에 生薑 大棗를 넣고 한잔이 되도록 달인 다음 阿膠를 넣어 녹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일반적으로 嘔逆에 中滿을 겸한 것과 蚘蟲을 토하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한다.

【考察】

黃芪建中湯은 小建中湯에 黃芪를 더한 것으로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에 처음 나오는데⁷⁶⁾,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 여러 서적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第3節 補中益氣湯

【原文】

補中益氣湯

人參上 黃芪上 當歸上 白朮中 軟柴胡中 陳皮中 升麻下 甘草下

陰火動而煩에 加知母 黃柏 生地 黃連 麥冬 炒山梔요 不得眠而煩엔 加酸棗仁炒라

凡發汗後에 躁熱而煩하고 小便不利者는 五苓散에 調辰砂末하야 服爲妙라 辰砂는 除煩熱也라

【國譯】

補中益氣湯

人參 黃芪 當歸 白朮 軟柴胡 陳皮 升麻 甘草

陰火가 動하여 발생한 煩症에는 知母 黃柏 生地 黃連 麥冬 炒山梔를 加하고, 잠을 자지 못하여 발생한 煩症에는 酸棗仁炒를 加한다.

무릇 發汗시킨 後에 躁熱하면서 煩症이 있고 小便이 不利한 것은 五苓散에 辰砂末을 타서 복용하면 神妙하다. 辰砂는 煩熱을 없애기 때문이다.

【考察】

補中益氣湯은 『脾胃論』에 나오는 것⁷⁷⁾으로 脾胃의

76) 陳紀藩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201. : 虛勞裏急 諸不足 黃芪建中湯主之

氣가 허하여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며 목이 마르면서 뜨거운 음료를 잘 먹고, 두통과 오한이 있으며, 기운이 없고, 말하기를 귀찮아 하며, 음식이 맛이 없고, 사지가 무력하며, 舌体が 붓고 부드러우며 舌色이 희미하고, 脈이 虛大한 脾胃의 氣虛證을 치료하며, 氣가 陷下하여 항문과 자궁이 탈수되는 병증과 학질과 이질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증 등 中氣下陷證을 치료한다. 여기에 있는 處方에는 主治症을 자세히 논하지 않고 加減法이 간단하지만, 『傷寒全生集·辨傷寒瘥後陰陽易例』에는 '治勞復發熱 氣虛而喘 身熱而煩 四肢怠惰'라고 하고 加減法도 자세하게 하였으니⁷⁸⁾, 이를 토대로 陶華가 補中益氣湯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醫學入門』 『東醫寶鑑』에는 陶氏補中益氣湯이라고 하여 內傷氣血 外感風寒 頭痛 身熱惡寒 自汗 沈困無力을 치료한다⁷⁹⁾하였고, 藥物 構成은 人參 生地黃 黃芪 當歸 川芎 柴胡 陳皮 羌活 白朮 防風各七分 細辛 甘草各五分이라고 하여 本方과는 조금 다르니, 위의 "勞役으로 인한 內傷病으로 陰虛火動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몸이 노곤하여 힘이 없고 自汗하며 尺脈이 浮虛하니 마땅히 補中益氣湯에 山梔子炒 黃連 生地黃 麥門冬 黃柏 知母를 加하여 치료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心煩하는 것은 硃砂安神丸을 함께 복용한다."의 내용과 같은 면이 많다고 본다.

第9章 辨傷寒煩躁例

- 77) 李杲, 東垣醫集(脾胃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81. : 黃芪 甘草 各 5分 人參 白朮 各 3分 當歸身 2分 陳皮 升麻 柴胡 各 2~3分을 거칠게 갈아, 물로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간에 약간 뜨겁게 하여 복용한다.
- 78) 陶華, 傷寒全生集, 眉壽堂刻本 影印本, 貞 pp.50 51. : 人參 白朮 歸身 各一錢 陳皮七分 黃芪 白芍藥 各一錢 甘草三分 軟柴胡一錢五分 升麻五分 陰火動或夢中失精 或虛弱煩盛 或自汗不足 加黃柏 知母 五味十數粒 麥冬, 有宿食痞滿者 去人參 升麻 黃芪 加枳實 黃連 桔梗 砂仁, 煩躁不眠 加遠志 山梔 酸棗仁 茯神, 脈弱人虛 倍用人參, 自汗盜汗 倍用黃芪 去升麻, 食少胃弱 倍用白朮, 熱多 倍用軟柴胡, 水薑煎服
- 79) 李梴, 前揭書, p.644. : 陶氏補中益氣湯 治內傷氣血 外感風寒 頭痛 身熱惡寒 自汗 沈困無力 人參 生地黃 黃芪 當歸 川芎 柴胡 陳皮 羌活 白朮 防風各七分 細辛 甘草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葱白二莖 水煎服 如元氣不足 加升麻三分

【原文】

煩은 爲擾亂⁽¹⁾而煩이오 躁는 爲憤怒⁽²⁾而躁니 謂煩躁者는 有陰虛陽實之別也라 心熱則煩하고 腎熱則躁하니 煩爲熱輕이오 躁爲熱重이니 所謂煩躁者는 先發煩而後至躁也요 所謂躁煩者는 先發躁而漸至煩也라

太陽病에 頭疼 發熱 惡寒 體痛 脈浮緊 煩躁는 因不得汗出이니 此邪在表而煩躁也라 冬用大青龍湯이오 三時用十味芎蘇散⁽³⁾ 加石膏 麻黃이오 天道煖盛엔 九味沖和湯⁽⁴⁾ 加麻黃이며 六神通解散⁽⁵⁾도 亦可라 經⁽⁶⁾에 云傷寒當汗不汗 則人煩躁라하니 此之謂也라 凡傷寒 肌表熱甚 脈浮數 不得汗出而煩躁者는 速宜汗之爲當也라

【注釋】

- (1) 擾亂: 邪熱이 가슴에 차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면서 답답해지는 모양.
- (2) 憤怒: 邪熱이 가슴에 차서 사지나 몸을 움직이고 뛰는 모양.
- (3) 十味芎蘇散: 芎蘇散이 川芎 枳殼 桔梗 陳皮 半夏 蘇葉 柴胡 乾葛 茯苓 甘草 蒼朮로 11味인데, 여기에서 蒼朮을 빼고 十味芎蘇散이라 하였다.
- (4) 九味沖和湯: 羌活沖和湯이 羌活 黃芩 防風 蒼朮 川芎 生地黃 細辛 白芷 甘草로 九味이니 九味沖和湯이라고도 한다.
- (5) 六神通解散: 麻黃 甘草 黃芩 石膏 滑石 蒼朮 川芎 羌活 細辛 물 두잔에 生薑 세쪽을 넣고 달이는데, 豆豉 세 손가락으로 집을 정도와 葱白 두 뿌리를 넣고 다려 熱服하고 땀을 내며 病에 맞으면 바로 그치는 것이다.⁸⁰⁾
- (6) 經: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⁸¹⁾

【國譯】

煩은 답답해지는 것이고, 躁는 움직이거나 뛰는 것이니 煩躁라고 말하는 것에는 陰虛 陽實의 구별이 있

80)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2. : 治時行三月後 謂之晚發 頭痛 身熱惡寒 脈洪數 先用沖和湯 不愈 後服此湯 麻黃 甘草 黃芩 石膏 滑石 蒼朮 川芎 羌活 細辛 水二鍾 薑三片 槌法 入豆豉一撮 葱白二莖 煎之 熱服 取汗 中病即止

81) 若發汗不徹 不足言 陽氣怫鬱 不得越 當汗不汗 其人煩燥 不知痛處 乍在腹中 乍在四肢 按之不可得 其人短氣但坐 以汗出不徹故也 更發汗則愈 何以知汗出不徹 以脈當知也 (49)

다. 心熱하면 煩하고 腎熱하면 躁하니 煩은 熱이 가벼운 것이고, 躁는 熱이 重한 것이니, 이른바 煩躁는 먼저 煩症이 있다가 뒤에 躁症이 되는 것이고, 躁煩은 먼저 躁症이 있다가 점차 煩症이 되는 것이다.

太陽病에 頭痛 發熱 惡寒 體痛 脈浮緊 煩躁하는 것은 汗이 나지 않아서이니 이는 表邪로 인한 煩躁이다. 겨울에는 大靑龍湯을 쓰고, 三時에는 十味芍藥散에 石膏 麻黃을 加하여 쓰며, 기후가 아주 따뜻할 때는 九味沖和湯에 麻黃을 加하여 쓰고, 六神通解散도 쓸 수 있다. 傷寒論에 “傷寒에서 發汗시켜야 할 것을 發汗하지 않으면 煩躁가 발생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말하는 것이다. 무릇 傷寒에서 肌表에 熱이 심하고 脈이 浮數하며 汗이 나지 않으면서 煩躁하는 것은 급히 發汗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原文】

若表邪傳裏하여 譫語 大渴 面赤 飲水不止 脈洪數而 煩躁者는 人參白虎湯이요 陽明經 臍病五六日에 不大便 臍腹硬痛 譫語 渴甚 煩躁發作有時者는 此內有燥屎而 煩躁也니 宜調胃承氣湯下之요 元氣虛者는 蜜導法⁽¹⁾通之라

若病大熱 錯語 呻吟하고 或乾嘔 不眠而煩躁 口渴 脈數者는 此邪在裏而煩躁也니 黃連解毒合白虎 加竹葉이라 若太陽을 不得汗하고 醫以火劫⁽²⁾取汗이나 不出하여 大熱入胃而煩躁者는 此劫令煩躁也니 小柴胡加龍骨牡蠣湯 入黃連 山梔라

【注釋】

- (1) 蜜導法: 蜜煎導法. 食蜜 7습을 구리 그릇에 담아 은근한 불로 달여 엷처럼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휘젓는데 타지 않도록 한다. 丸을 만들 정도가 되면 蛤(가루)을 손에 바르고, 식기 전에 손가락 굵기로 길이가 2寸 정도 되게 빚는다. 매회 1개씩 항문 속에 손으로 밀어 넣은 다음, 대변이 나오려고 하면 손을 떼다.
- (2) 火劫: 熱性病에 火針, 뜸, 찜질, 약을 태워 연기를 쏘이는 등의 火法을 써서 억지로 汗을 내는 것.

【國譯】

또한 表邪가 裏部로 轉변하여 譫語 大渴 面赤하고 자주 물을 마시고자 하며 脈이 洪數하면서 煩躁하는 것은 人參白虎湯으로 치료하고, 陽明經에 府證이 된

지 5,6일에 大便을 보지 못하고 배꼽주위가 단단하게 아프며 譫語하고 渴症이 심하며 煩躁가 때때로 發作하는 것은 안에 燥屎로 인한 煩躁이니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켜야 하고, 元氣가 虛한 경우에는 蜜導法으로 疏通시킨다.

大熱이 있어 헛소리나 呻吟하고 或 건구역질하며 잠을 자지 못하면서 煩躁하고 口渴 脈數하는 것은 裏邪로 인한 煩躁이니 黃連解毒湯에 白虎湯을 합하고 竹葉을 加하여 치료한다.

太陽病을 發汗하지 않고 의사가 火劫으로 汗을 내려하나 汗이 나지 않아 大熱이 胃로 들어가 煩躁하는 것은 火劫으로 인한 煩躁이니 小柴胡加龍骨牡蠣湯에 黃連 山梔子를 加하여 치료한다.

【原文】

凡傷寒 陽微⁽¹⁾를 發汗하여 煩躁不眠이나 或汗下後에 晝夜煩躁不得眠하고 不安靜하며 身無熱 脈沈微者는 薑附湯이요 或汗下之後에 病仍不去하고 煩躁者는 茯苓四逆湯이요 要在脈沈細無力 口不渴이라야 方可用此湯이니 此陽虛而煩躁也라

若得病二三日에 脈微弱無力은 大柴胡症이요 煩躁 心下硬 能食은 小承氣微利之요 心中悸而煩躁者는 小建中湯이요 惡風 自汗 脈弦而煩躁者는 不用此湯이라 若熱六七日에 煩渴欲飲水者는 用五苓散이요 無熱 狂言 煩躁不安하고 精采不與人相當者도 亦宜五苓散이라 又少陰病에 利嘔逆 煩躁欲死者는 脈必沈細니 吳茱萸湯이라 若陰症에 身微熱 脈沈細 手足冷而煩躁者는 四逆湯이니 面赤에 加葱白이요 無脈乾嘔에 用猪膽汁이라 又有不煩이라가 便作躁悶者는 乃陰極發躁⁽²⁾니 欲坐臥於泥水井中이라 其脈沈細 足冷 飲水不得入口者는 用霹靂散⁽³⁾이니 不若生脈四逆湯⁽⁴⁾尤妙라 此는 陰盛拒陽⁽⁵⁾而煩躁也니 予以艾湯에 調硫黃末二三錢 하니 立時出汗乃愈라 此秘方也니 累用累效라

【注釋】

- (1) 陽微: 陽微結. 陽結⁸²⁾이 淺하여 그 病이 單純히 裏에

82) 원래 陽結은 熱이 裏에서 鬱結되어 大便이 秘結된 것을 말한다.

있지도 않고, 또 순전히 表에 있지도 않아서 表에도 있고 裏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證狀이다.

- (2) 陰極發躁: 陰證이 극도에 달하면 화가 겹으로 나와서 요란스럽게 날치게 되는 증상으로 陽證과 비슷하나, 煩躁가 있으면서도 이불을 당겨 덮고, 渴症이 심하게 나타나 물로 행구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으며, 脈은 반드시 沈細하면서 힘이 없다.
- (3) 霹靂散: 熟附子 人參 甘草 白朮 乾薑 細茶한줌을 달인 다음 꿀 두 숟가락을 넣고 麝香을 조금 타서 차갑게 단번에 복용한다. 조금 있으면 땀이 나면서 잠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煩躁가 그치고 낫는다.⁸³⁾
- (4) 生脈四逆湯: 生脈散에 四逆湯을 합한 것.
- (5) 陰盛拒陽: 陰盛格陽, 체내에 陰寒이 너무 성하여 밖에 있는 양기가 거부당한 데에서 생기는 內眞寒, 外假熱의 병증. 줄여서 格陽이라고도 함.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寒證은 음한이 내부에서 너무 성하여 도리어 浮熱, 口渴, 手足躁動不安, 脈洪大 등의 假熱證狀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國譯】

무릇 傷寒에서 陽微結(약간 陽熱로 인한 大便秘結)을 發汗시켜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거나 或 汗下시킨 後에 밤낮으로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安靜하지 못하며 身熱은 없고 脈이 沈微한 것은 薑附湯으로 치료하고, 或 汗下시킨 後에도 病이 사라지지 않고 煩躁하는 것은 茯苓四逆湯으로 치료하니, 요점은 脈이 沈細無力하고 口渴이 없어야만 바로 이 處方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니 이는 陽虛로 인한 煩躁이다.

또한 病을 얻은지 2,3일에 脈이 微弱無力한 것은 大柴胡湯證이고, 煩躁하고 心下가 단단하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小承氣湯으로 약간 下利시키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煩躁하는 것은 小建中湯으로 치료하니 惡風 自汗하고 脈弦하면서 煩躁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 發熱한지 6,7일에 煩渴하여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五苓散으로 치료하고, 熱은 없으나 미

83) 陶華. 傷寒全生集, 眉壽堂刻本 影印本. 貞 pp.9 10. 霹靂散 治陰極發躁 如物極則反 乃陰極似陽 身熱面赤 煩躁不能飲水 脈沈細 或伏絕 熟附子 加人參 甘草 白朮 乾薑 細茶一撮 煎入蜜二匙 麝香少許調 頓冷服下 須臾汗出 得睡躁止 乃愈 如不得睡無汗 復加煩躁不安 身熱下利不止 脈不出者 死 煩躁欲坐臥泥水井中者 陰盛故也 加辰砂 遠志 茯神 面赤者 下虛故也 加葱白九莖 身熱者 裏寒故也 加桂枝

친 소리하고 煩躁不安하며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五苓散으로 치료한다. 또한 少陰病에 嘔吐 下利 嘔逆하고 煩躁하여 죽을 것 같은 것은 반드시 脈이 沈細하니 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 陰證에 약간 身熱이 있고 脈이 沈細하며 手足이冷하면서 煩躁하는 것은 四逆湯으로 치료하니 面赤에는 葱白을 加하고, 脈이 잡히지 않고 乾嘔하는데는 豬膽汁을 加한다. 煩하지 않다가 갑자기 답답하여 뛰는 것은 陰極發躁이니 진흙이나 우물과 같은 습한 곳에 앉아 누우려하고 脈이 沈細하며 발은 차고 물을 마시려하나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은 霹靂散으로 치료할 수는 있으나 生脈四逆湯이 더욱 좋다. 이는 陰盛拒陽하는 煩躁이니 내가 썩을 달인 물에 硫黃末 2,3錢을 調服하게 하니 바로 땀이 나면서 나왔다. 이것은 秘方이니 여러 번 사용하여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

【原文】

其結胸煩躁悉具者 是死 又利 四逆而煩躁者 是死 又發熱 下利 厥逆 而煩躁不眠者 是死 惡寒 踡臥 脈不出而煩躁者 是死 又五六日自利後 煩躁不眠者 是死 此皆煩躁之不治也

又有久病陰虛 發熱 惡寒 午後面頰赤 煩躁引飲 肌熱 燥熱 至夜尤甚 脈洪大 按之無力 是此皆血虛而煩躁也 用當歸補血湯 又有痰火上升 作喘 咳嗽 氣急 煩悶 不得安臥 或時心煩 或時而躁亂 不寧 是此名痰躁⁽¹⁾ 用溫膽湯⁽²⁾ 加辰砂 瓜蒌 桔梗 竹瀝 薑汁 少許 爲要藥也 不在傷寒煩躁治例

【注釋】

- (1) 痰躁: 기침을 하여도 개운하지가 않고 가슴속이 막혀 답답하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火痰이 흥격부에 맺혀 발생한다.⁸⁴⁾
- (2) 溫膽湯: 半夏 竹茹 枳實 각 2兩 陳皮 3兩 甘草炙 人參 각 1兩 茯苓 1.5兩을 거칠게 갈아 매회 3錢에 生薑 5쪽과 大棗 1개를 넣고 물로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⁸⁵⁾

84) 俞根初原著. 三訂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367. : 咳嗽不爽 胸中氣悶 夜不得眠 煩躁不寧者 此火痰鬱遏胸膈也 名曰痰躁

85)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國譯】

結胸證이 다 갖춰져 있는데 煩躁하는 것, 嘔吐 下利 四肢逆冷하면서 煩躁하는 것, 發熱 下利 厥逆하면서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 惡寒하여 오그리고 자며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煩躁하는 것, 5,6일 동안 自利한 후에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모두 死證이니 煩躁가운데 不治證이다.

또한 오래 병을 앓아 陰氣가 虛하여 發熱 惡寒하고 午後에 얼굴 관자놀이가 붉어지고 煩躁로 물을 마시고자 한 것과, 肌膚에 燥熱이 있는데 밤에 더욱 심하고 脈이 洪大하나 누르면 無力한 것은 모두 血虛로 인한 煩躁이니 當歸補血湯으로 치료한다. 또한 痰火가 上升하여 喘息 咳嗽 氣急 煩悶하여 편안하게 누울 수 없고 或 때로 心煩하며 或 때로 煩躁하여 편안하지 못한 것은 痰躁이니 溫膽湯에 辰砂 瓜蒌仁 桔梗 竹瀝 薑汁少量을 더한 것이 要藥이니 傷寒의 煩躁를 치료하는 예에는 있지 않다.

【考察】

이 章은 煩躁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煩은 답답해하는 것이고, 躁는 움직이거나 뛰는 것이니 心熱하면 煩하고 腎熱하면 躁한다. 煩은 熱이 가벼운 것이고, 躁는 熱이 강한 것이니, 이른바 煩躁는 먼저 煩症이 있다가 뒤에 躁症이 되는 것이고, 躁煩은 먼저 躁症이 있다가 점차 煩症이 되는 것이다.

煩躁의 치료에서 表邪로 인한 것은 겨울에는 大靑龍湯, 三時에는 十味芍蘇散에 石膏 麻黃을 加하고, 기후가 아주 따뜻할 때는 九味沖和湯에 麻黃을 더한 것과 六神通解散으로 치료한다. 燥屎로 인한 煩躁는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元氣가 虛한 경우에는 蜜導法으로 疏通시키고, 裏邪로 인한 煩躁는 黃連解毒湯에 白虎湯을 합하고 竹葉을 加하여 치료한다. 火劫으로 인한 煩躁는 小柴胡加龍骨牡蠣湯에 黃連 山梔子를 加하여 치료하고, 陽虛로 인한 煩躁는 薑附湯 茯苓四逆湯으로 치료하며, 陰盛拒陽으로 인한 煩躁는 霹靂酸 生脈四逆湯이나 썩을 달인 물에 硫黃末

2,3錢을 調服하여 치료한다. 血虛로 인한 煩躁는 當歸補血湯으로 치료하고, 痰火로 인한 煩躁는 溫膽湯에 辰砂 瓜蒌仁 桔梗 竹瀝 薑汁少量을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煩躁證은 邪熱이 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津液과 正氣를 손상하는 것이 심하니 結胸證이 모두 갖춰져 있으면서 煩躁하는 것, 嘔吐 下利하고 사지가 逆冷하면서 煩躁하는 것, 下利하고 發熱하며 厥逆하고 煩躁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 惡寒하고 진액이 말라 경련하며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煩躁하는 것 등은 死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주의할 만하다.

第1節 當歸補血湯

【原文】

當歸補血湯

治血虛發躁⁸⁴

當歸上 川芎中 地黃中 芍藥中 黃柏中 知母中 麥冬中 人參下 茯神中 黃連下 山梔中 加辰砂末하고 甚者는 加遠志 酸棗仁 甘草라
水薑棗煎服이라

【國譯】

當歸補血湯

血虛로 인한 煩躁를 치료한다.

當歸 川芎 地黃 芍藥 黃柏 知母 麥門冬 人參 茯神 黃連 山梔에 辰砂末을 加하고 심한 것은 遠志 酸棗仁 甘草를 加한다.

물에 生薑 大棗를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當歸補血湯은 處方名이『蘭室秘藏』에 처음 나타나지만 處方內容은 이것과는 아주 다르다.⁸⁶⁾ 후대에는 『萬病回春』에 보이는데⁸⁷⁾, 이것을 『東醫寶鑑』 인용하

86) 李杲, 東垣醫集(蘭室秘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43.

87) 當歸補血湯 治心血少而嘈 當歸 芍藥 生地黃 熟地黃各三錢 人參五分 白朮去蘆 茯苓去皮 麥門冬去心 山梔仁炒 陳皮各八分 甘草三分 辰砂研末 臨服入二分 烏梅一個去核 炒

였으니⁸⁸⁾ 상호 참고할 만하다.

第2節 乾薑附子湯

【原文】

乾薑附子湯

治陰症發躁하며 及治發汗커나 或下之後에 晝日不眠 夜安靜하고 脈來沈細者는 用此方이라

乾薑中 附子上에 加人參中 白朮中 甘草下라
水薑煎服이라

【國譯】

乾薑附子湯

陰症으로 인해 煩躁가 발생한 것을 치료하며, 發汗 시켰거나 瀉下시킨 후에 낮에는 煩躁하여 자기 못하고 밤에만 安靜하며 脈이 沈細한 것에는 이 處方으로 치료한다.

乾薑 附子에 人參 白朮 甘草를 加하여 쓴다.
물에 生薑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乾薑附子湯은 薑附湯이라고도 하며 『傷寒論』 『醫學入門』 『東醫寶鑑』에 모두 乾薑 附子만을 달여서 복용한다고 하였는데, 『傷寒全生集』에서는 여기에 人參 白朮 甘草를 加하였으니 元陽과 胃陽을 모두 調補하여 虛火를 歸源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東醫寶鑑』에서는 加味薑附湯⁸⁹⁾이라고 하여 霍亂에 구토와 설사를 과도하게 하여, 손발이 싸늘해지고 기력이 없어 말을 하지 못하며 六脈이 沈伏한 병증을 치료할 때 쓴다고 하였으니 참조할만하다.

第3節 茯苓四逆湯

【原文】

茯苓四逆湯

治汗下之後에 仍不去煩躁者는 用此方이라

米百粒 上銼一劑 棗二枚 水煎溫服

88) 許浚, 前掲書, p.1234.

89) 許浚, 前掲書, p.1293. : 附子 乾薑 人參 各 1.5錢 甘草 7分을 물에 달여서 먹는다.

茯苓上 人參中 附子上 乾薑中 甘草下에 加白朮이라
水薑煎服이라

【國譯】

茯苓四逆湯

汗下한 뒤에도 煩躁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茯苓 人參 附子 乾薑 甘草에 白朮을 加한다.
물에 生薑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茯苓四逆湯은 『傷寒論』에 “太陽病에 땀을 내고 瀉下시켜도 병이 풀리지 않고 煩躁한 것을 치료할 때 쓴다.” 하였고⁹⁰⁾, 『醫學入門』 『東醫寶鑑』에서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處方目的은 汗下시키므로 인해 陰陽이 모두 虛하게 된 상태에서 虛陽이 外浮하여 나타난 煩躁를 歸源시키고, 裏部의 正氣가 약하여 수음이 정체된 것을 利水하기 위해서이니 白朮을 加하여 쓰는 것도 옳다고 본다.

第4節 黃連解毒湯

【原文】

黃連解毒湯

治大熱 錯語 呻吟 乾嘔 不眠 煩躁 脈數者라

黃連 黃芩 黃柏 山梔에 加石膏 知母 麥門冬이라

渴엔 加天花粉 竹茹요 嘔엔 加陳皮라

烏梅煎服이라

【國譯】

黃連解毒湯

大熱로 인해 錯語 呻吟 乾嘔 不眠 煩躁 脈數한 것을 치료한다.

黃連 黃芩 黃柏 山梔에 石膏 知母 麥門冬을 加한다.

渴症에는 天花粉 竹茹를 加하고, 嘔逆에는 陳皮를 加한다.

90)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208.

烏梅를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考察】

黃連解毒湯은 『外臺秘要·傷寒·崔氏方』에 처음 나오는 것⁹¹⁾으로 『南陽活人書』에서는 主治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고⁹²⁾,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는 藥量을 줄여 인용하였다.⁹³⁾ 또한 『通俗傷寒論』에서는 三黃解毒湯이라하여 本方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⁹⁴⁾ 石膏 知母 麥門冬 대신 大黃을 더한 것이 조금 다르다. 本方은 『外臺秘要』의 처방에 石膏 知母 麥門冬을 더한 것으로 熱毒을 풀어주는 효과가 더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第5節 竹葉石膏湯

【原文】

竹葉石膏湯

卽人參白虎湯에 加半夏 竹葉 麥門冬 甘草라

渴에 加天花粉 知母라

水薑煎服이라

【國譯】

竹葉石膏湯

人參白虎湯⁹⁵⁾에 半夏 竹葉 麥門冬 甘草를 더한 것이다.

渴症에는 天花粉 知母를 加한다.

물에 生薑을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91) 王焘.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2. : 又前軍督護劉車者 得時疾三日已汗解 因飲酒復劇 苦煩悶乾嘔 口燥呻吟 錯語不得臥 餘思作此黃連解毒湯方. 黃連三兩 黃芩 黃柏各二兩 梔子十四枚擘 上四味切 以水六升 煮取二升 分二服 一服目明 再服進粥 於此漸瘥 餘以療 凡大熱盛 煩嘔 呻吟 錯語 不得眠 皆佳

92)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p.456. : 治時疾三日已汗解 或因飲酒 復劇苦煩悶 乾嘔 口燥 呻吟 錯語 不得臥

93) 許浚. 前揭書. p.1195. : 黃連解毒湯 治傷寒大熱煩躁不得眠 或差後飲酒復劇者 及一切熱毒 黃連 黃芩 黃柏 梔子各一錢二分半 右剉作一貼 水煎服

94) 俞根初原著. 三訂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493. : 病在裏者 其證裏熱壅閉 大便不通 脈洪數者 治以三黃解毒湯 黃連 黃柏 黃芩 焦梔子 大黃

95) 人參 石膏 知母 黃芩 粳米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考察】

竹葉石膏湯은 『傷寒論·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에 나오는 것으로 “傷寒이 풀린 후에 餘熱이 풀리지 않아 氣陰이 함께 손상되어 虛羸少氣하고, 氣逆하여 嘔吐를 하려하며, 식욕이 부진하고 舌質이 빨강게 번쩍이는 것을 치료한다.⁹⁶⁾” 하였는데, 本方에는 知母 黃芩이 더 들어가 있으니 약간의 차이가 있다. 『南陽活人書』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는 모두 『傷寒論』의 것을 따라 條文만 약간 고쳐 썼다.⁹⁷⁾

第10章 辨傷寒頭痛例

【原文】

頭痛者는 寒邪入足太陽하야 上攻於頭하니 此表症也라 頭疼에 脈浮緊 無汗은 用發汗이요 脈浮緩 有汗은 宜解肌¹⁾나 照時令用藥이라 三陽經雜症에 雖俱有頭疼이나 不若太陽專主也라 太陽 則頂巔²⁾腦後痛이 連風府하고 陽明 則頭額痛하며 少陽 則頭角痛이라 三陰無頭疼者는 其脈至頸胸而還不至於頭故로 無頭疼이나 惟厥陰有頭疼者는 是脈絡¹⁾於頂巔也라

【校勘】

1) 絡: 原本에는 ‘經’으로 되어 있으나, 經脈의 흐름을 말하고 있으므로 ‘絡’으로 고쳤다.

【注釋】

(1) 解肌: 肌表의 邪氣를 解散한다는 것으로 發汗의 범주에 속하지만 開表發汗과는 다른 것이다.

(2) 頂巔: 정수리. ※巔:山頂, 산꼭대기 전.

【國譯】

96) 傷寒解後 虛羸少氣 氣逆欲吐者 竹葉石膏湯主之(405) 處方構成은 竹葉 2줌(把) 石膏 麥門冬 各 1合 半夏 8錢 人參 甘草 各 2錢에 물 1升을 부어 6合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粳米 0.5合을 넣어 익을 때까지 다시 달인 뒤 쌀을 제거하여, 매회 1合씩 하루에 3회 복용한다.

97) 許浚. 前揭書. p.1096. : 治傷寒解後餘熱 及陽明證自汗煩渴 并差後虛煩等證 石膏四錢 人參二錢 麥門冬一錢半 半夏一錢 甘草七分 右剉作一貼 入竹葉七片 粳米百粒 水煎 入薑汁二匙服

頭痛은 寒邪가 足太陽經으로 들어가서 위로 頭部를 공격하여 발생한 것이니 表證이다. 頭痛에서 脈이 浮緊하고 無汗한 것은 發汗시켜야 하고, 脈이 浮緩하고 有汗한 것은 解肌시켜야 하니 時令(계절)을 보고 藥을 써야한다. 三陽經의 雜症에도 비록 모두 頭痛이 있으나 太陽經이 오로지 주관한다. 太陽頭痛은 정수리 뒤쪽에서 風府까지 이어지고, 陽明頭痛은 앞이마가 아프며, 少陽頭痛은 偏頭痛이다. 三陰經에 頭痛이 없는 것은 그 經脈이 목과 가슴에만 이르고 다시 머리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頭痛이 없으나, 오직 厥陰經에만 頭痛이 있는 것은 厥陰經脈이 정수리에 絡하기 때문이다.

【原文】

陽明은 頭額痛하니 目痛 鼻乾 發熱 不眠 脈微洪者는 用葛根解肌湯⁽¹⁾ 加川芎 白芷 升麻 葱白이요 本經邪熱이 傳裏하야 不惡寒 反惡熱하고 譫語 面赤 大渴 飲水不止 脈洪數者는 人參白虎湯이라 若大便不通 潮熱 譫語 揭衣被 胃熱燥渴은 此因熱氣上攻頭目이니 脈沈數有力은 調胃承氣湯下之요 甚者는 大承氣下之라

【注釋】

(1) 葛根解肌湯: 葛根湯(葛根 桂枝 芍藥 甘草 麻黃 白芷 升麻)에 黃芩을 더한 것이다.

【國譯】

陽明頭痛은 앞이마가 아픈 것이니, 目痛 鼻乾 發熱 不眠하고 脈이 微洪한 것은 葛根解肌湯에 川芎 白芷 升麻 葱白을 加하여 治療하고, 陽明經邪熱이 裏部로 轉變하여 惡寒하지 않고 도리어 惡熱하며 譫語 面赤하고 渴症이 심하여 물을 자주 마시려하며 脈이 洪數한 것은 人參白虎湯으로 治療한다. 또한 大便이 통하지 않고 潮熱 譫語하며 옷이나 이불을 벗어 던지고 胃에 熱이 있어 燥渴하는 것은 熱氣가 頭目으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니 脈이 沈數有力한 것은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심한 것은 大承氣으로 瀉下시킨다.

【原文】

少陽은 頭角痛하니 耳中痛 往來寒熱 胸脇痛而耳聾 嘔而口苦 身熱 脈弦數者는 用小柴胡 加川芎이니 蓋川芎은 乃膽經藥也라

又有肺家⁽¹⁾ 鼻塞 頭痛者하니 瓜蒂散⁽²⁾을 搐鼻⁽³⁾하야 黃水出乃愈라 又痰涎頭疼하니 胸滿 寒熱 喘急者도 亦瓜蒂散 吐之라 又厥陰에 乾嘔 吐涎沫 頭痛者는 吳茱萸湯로대 脈沈 厥冷하면 加附子라 此數者는 傷寒頭痛也라

【注釋】

- (1) 肺家: 肺에 邪氣가 침범하여 자주 앓는 사람을 말한다.
- (2) 瓜蒂散: 瓜蒂一分 赤小豆一分 각각 따로 곱게 갈아 섞은 다음 한 숟가락을, 香豉一合을 熱湯七合에 넣고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즙만 취한 것과 함께 한꺼번에 따뜻하게 토할 때까지 복용한다.
- (3) 搐鼻: 약물가루를 콧구멍 속으로 불어 넣어 재채기가 나오게 하는 치료법.

【國譯】

少陽頭痛은 偏頭痛이니 귓속이 아프고 往來寒熱하며 胸脇이 아프고 耳聾하며 嘔逆하면서 입은 쓰고 몸에 熱이 나며 脈이 弦數한 것은 小柴胡湯에 川芎을 加하여 治療하니 川芎이 膽經藥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주 肺에 邪氣가 침범하여 코가 막히고 頭痛하는 것이 있으니 瓜蒂散을 콧구멍 속으로 불어넣고 재채기를 유발하여 黃水가 나오면 낫는다. 또한 痰涎으로 인한 頭痛이 있으니 가슴이 그득하고 寒熱往來하며 喘急한 것도 瓜蒂散으로 吐하게 한다. 厥陰經에 건구역질하고 涎沫을 구토하며 頭痛하는 것은 吳茱萸湯으로 治療되 脈이 沈하고 四肢가 厥冷하면 附子를 加한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傷寒의 頭痛이다.

【原文】

其雜症도 亦有頭疼者하니 頭乃諸陽之首라 凡血虛頭痛엔 四物湯⁽¹⁾ 倍加川芎 蔓荊이요 氣虛頭痛엔 四君子⁽²⁾ 加川芎 藜本이요 氣血俱虛頭痛엔 八物湯⁽³⁾ 加藜本 蔓荊이요 脈大無力엔 用補中益氣湯 加蔓荊 細辛이라 有風頭痛엔 用羌活湯⁽⁴⁾ 加天麻 荊芥요 有濕痰頭痛엔 用二陳湯⁽⁵⁾ 加蒼朮 芎芷 細辛이요 有痰火頭痛⁽¹⁾者엔 二陳湯 加酒炒芩 連 山梔

川芎 蔓荊 竹瀝 薑汁少許라 又陰火衝上頭痛者에 用四物湯 加黃柏 知母 蔓荊 荊芥炒 芩 連 山梔요 有暴感風寒頭痛에 用芎蘇散 加蒼朮 白芷이라 各湯中에 俱加桔梗하야 開提諸藥上行하니 不可缺也라

其食積도 亦有頭痛하니 開食積傷寒各條故로 不錄이라 大抵眞頭痛⁶⁾은 連于腦하니 手足俱靑者 爲眞頭痛이니 必死라

【校勘】

- 1) 痰火頭痛: 原本에는 ‘痰火痛’으로 되어 있으나, 이 章이 頭痛을 논하고 있으므로 ‘痰火頭痛’으로 하였다.

【注釋】

- (1) 四物湯: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같은 양을 거칠게 썰어 매회 3錢을 물에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2) 四君子: 四君子湯. 人參 甘草 茯苓 白朮 각각 같은 양을 거칠게 썰어 매회 2錢을 물로 달여 복용한다.
- (3) 八物湯: 四物湯과 四君子湯을 합한 것.
- (4) 羌活湯: 九味羌活湯. 羌活 2錢 防風 川芎 각 1.5錢 細辛 甘草 각 3分 蒼朮 白芷 黃芩 生地黃 각 1錢을 달여 복용한다.
- (5) 二陳湯: 半夏 橘紅 각 5兩 茯苓 3兩 甘草 1.5兩을 썰어서 매회 4錢에 生薑 7쪽과 烏梅 1개를 넣고 달여 수시로 복용한다. 물이나 꿀로 환을 빚어 二陳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⁹⁸⁾
- (6) 眞頭痛: 머리가 아프되 머릿골 속까지 아프며 두 눈이 붉고 머리가 쪼개질 듯 터질 듯한 것이 眞頭痛이다. 이 병은 일시에 세찬 기세로 발생하므로 구제할 도리가 없는데 邪氣가 腦髓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⁹⁹⁾

【國譯】

雜症에도 頭痛이 있으니 머리는 모든 陽經의 우두 머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血虛로 인한 頭痛에는 四物湯에 川芎을 倍加하고 蔓荊子를 加하여 치료하며, 氣虛로 인한 頭痛에는 四君子湯에 川芎 藁本을

加하여 치료하며, 氣血俱虛한 頭痛에는 八物湯에 藁本 蔓荊子를 加하여 치료하며, 脈이 大하나 無力한 것에는 補中益氣湯에 蔓荊子 細辛을 加하여 치료한다. 風邪로 인한 頭痛에는 水味羌活湯에 天麻 荊芥를 加하여 치료하고, 濕痰으로 인한 頭痛에는 二陳湯에 蒼朮 川芎 白芷 細辛을 加하여 치료하고, 痰火로 인한 頭痛에는 二陳湯에 酒炒黃芩 黃連 山梔子 川芎 蔓荊子 竹瀝 薑汁조금을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陰火上衝하여 발생한 頭痛에는 四物湯에 黃柏 知母 蔓荊子 荊芥炒 黃芩 黃連 山梔子를 加하여 치료하고, 風寒에 갑자기 손상된 頭痛에는 芎蘇散에 蒼朮 白芷를 加하여 치료한다. 각각의 湯에는 모두 桔梗을 넣어서 써야하니 桔梗은 諸藥을 위로 올라가게 하니 빼고 쓰지 않아야 한다.

食積에도 頭痛이 있으니 食積條와 傷寒條에 각각 따로 두었으니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眞頭痛은 腦에 연결되었으니 手足이 모두 파래지는 것이 眞頭痛이니 반드시 죽게 된다.

【考察】

이 章은 頭痛의 機轉과 分類 및 治療法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다. 대부분의 頭痛은 熱邪가 頭部로 치밀어 올라가 발생하니 三陽病에 주로 나타난다. 太陽頭痛은 後頭痛이니 傷寒證에는 겨울에 麻黃湯 三時에 芎蘇散 沖和湯 正氣散으로 치료하고, 中風證에는 겨울에 桂枝湯 三時에 加減沖和湯 羌活散을 쓴다. 陽明頭痛은 前頭痛이니 陽明經證에는 人參白虎湯으로, 陽明府證에는 承氣湯으로 치료하며, 少陽頭痛은 偏頭痛이니 小柴胡湯에 川芎을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厥陰頭痛은 冷氣가 상승하여 발생하니 吳茱萸四逆湯으로 치료하고, 痰涎이 胸中에 壅滯한 두통에는 瓜蒂散으로 치료한다.

또한 雜病에도 두통이 발생하니 血虛頭痛, 氣虛頭痛, 氣血俱虛頭痛, 風頭痛, 痰涎頭痛, 痰火頭痛, 陰火頭痛 등이 있으니 각각의 證候에 맞는 처방을 설정하고 가감하여 치료하는데 모두 引經藥인 桔梗을 加하여 써야한다.

食積頭痛은 類傷寒의 하나이니『傷寒明理續論·傷食』에 “飲食傷도 또한 傷寒처럼 頭痛 惡寒 身熱이 있으

98) 太平惠民和劑局. 前掲書. p.141.

99) 陳士鏞. 增補百病辨證錄. 書苑堂 影印本. p.83. : 人有頭痛連腦 雙目赤紅 如破如裂者 所謂眞正頭痛也 此病一時暴發法在不救 蓋邪入腦髓而不得出也

니 大橘皮湯 二陳湯으로 치료하고, 心腹이 그득하면 서 아픈 경우에는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嘔吐하는 경우에는 瓜蒂散으로 涌吐시킨다.”¹⁰⁰⁾하였으니 참고할 만하다.

IV. 考察 및 結論

이상과 같이 陶華의 『傷寒全生集』 辨傷寒發熱例 등에 대한 內容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太陽經 發熱은 겉에만 熱이 나므로 太陽病 傷寒證은 겨울에는 麻黃湯, 봄 여름 가을에는 芎蘇散 羌活 沖和湯 人參羌活散 正氣散을 골라서 쓰고, 中風證은 겨울에는 桂枝湯, 봄 여름 가을에는 加減沖和湯 神朮湯을 골라서 쓰고, 邪熱이 膀胱府로 들어간 것은 五苓散으로 치료한다. 陽明經 發熱은 熱이 심하여 안에서부터 밖으로 후끈후끈 돌아오르니 經證에는 葛根湯 白虎湯, 府證에는 調胃承氣湯 大承氣湯을 쓴다. 少陽經 發熱은 惡寒과 發熱이 왕래 하니 小柴胡湯으로 치료하고, 少陰經 表熱證은 脈이 沈하니 麻黃附子細辛湯으로 치료한다. 또한 陰陽이 모두 虛寒한데 熱이 그치지 않는 것, 發汗시킨 後에 다시 發熱하고 脈이 躁疾한 것, 下利하고 大熱이 그치지 않는 것은 모두 死症이라고 하여 正氣는 虛衰한데 發熱의 정도가 심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 太陽經 惡寒으로 表實證과 表虛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實證은 겨울에는 麻黃湯을 쓰고, 三時(봄 여름 가을)에는 芎蘇散 羌活湯 正氣散을 선택해 쓰며, 虛證은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三時에는 加減沖和湯 등을 선택해 쓴다. 陽氣가 부족하거나 寒邪가 少陰經으로 直中하여 나타나는 것은 에 나타나 太陽經의 惡寒은 附子湯을 쓴다고 제시하였다.
3. 辨傷寒本熱例에는 五苓散의 내용만 있고, 白虎湯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아래에 處方을 배치한 것은 아마도 表裏가 모두 病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表熱을 구분하여 치료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둘 다 모두 表熱이 있지만 五苓散은 小便不利하고

渴欲飲水하나 물을 마시면 토하는 水逆證에 쓰고, 白虎湯은 表裏가 모두 熱하고 煩渴이 심하며 脈이 洪大한 경우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4. 惡風은 惡寒에 비해 덜 심한 것으로 惡風하는 것은 密室 가운데 거처하거나 옷이나 이불을 덮으면 편안하게 저절로 풀리면서 惡風하지 않으나, 만약 바람을 쏘이면 惡風한다. 惡風이 있고 脈이 浮緩한 것은 表虛證으로 겨울에는 桂枝湯을 쓰고, 봄 여름 가을 三時에는 加減沖和湯을 쓰며, 과다하게 發汗하여 亡陽한 것은 桂枝朮附湯을 쓴다. 風濕相搏으로 인한 惡風에는 甘草附子湯을 쓰고, 表裏가 모두 熱하여 생긴 惡風은 人參白虎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5. 潮熱은 陽明府證에 흔히 나타나므로 胃府에 熱이 심하면 譫語 大便秘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切脈하였을 때 實大한 것, 沈實有力한 것, 沈數有力한 것, 洪數有力한 것과 大實 大熱 大渴 大滿 大堅하면 大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하면 大柴胡湯으로 치료하고, 小實 小渴 小滿 小堅 小熱이 약간 심한 것은 小承氣湯으로 攻下시키고, 腹中이 그득하거나 단단하지 않고 다만 燥渴이 있으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며 大便이 不通하고 脈이 實하면서 有力하면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하며, 潮熱에 少陽證을 겸했을 경우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6. 本篇에 나오는 小柴胡湯은 『醫學入門』에 陶氏小柴胡湯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처방 내용이 약간 다르고, 『東醫寶鑑』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本方의 加減例에 나오는 몇몇의 處方은 俞根初의 『通俗傷寒論』에 인용되어 있는데, 柴胡枳 梗湯, 柴胡陷胸湯, 柴胡四物湯, 은 處方名은 같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參胡三白湯은 柴胡三白湯으로, 參胡白虎湯은 柴胡白虎湯으로 인용되어 있으니 陶華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7. 寒熱往來 가운데 太陽經證은 表邪가 拂鬱하여 나타나므로 桂枝麻黃各半湯으로 치료하고, 婦人의 熱入 血室證에는 小柴胡湯에 生地黃 紅花 當歸 牡丹皮 桂枝를 加하여 치료한다. 陽明府證과 少陽證이 겸하였을 때는 大柴胡湯으로 치료하며, 少陽證을 誤下하여 柴胡證과 結胸證이 겸했을 경우에는 柴胡

100)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68.

枳桔湯이나 柴胡陷胸湯으로 치료하고, 少陽證과 太陽證이 겹하였을 경우에는 柴胡桂枝湯으로 치료하며, 少陽證에 中氣가 弱하여 渴症이 있으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며 단지 머리에만 땀이 나는 것은 柴胡桂枝乾薑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8. 煩熱은 虛實에 따라 太陽病에서는 芍藥甘草湯과 白虎加人參湯, 陽明病에서는 小建中湯과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하고, 下劑를 쓴 후에 나타나는 것에서는 乾薑附子湯과 梔子豆豉湯, 發汗劑나 下劑를 쓴 후에 나타나는 證候에서는 茯苓四逆湯 茯苓桂枝白朮甘草湯과 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 少陽病에서는 小柴胡加茯苓湯, 少陰病에서는 黃連阿膠湯으로 치료한다. 또한 勞役으로 인하여 陰虛火動하면서 煩症이 있는 것은 補中益氣湯에 山梔子炒 黃連 生地黃 麥門冬 黃柏 知母를 加하여 치료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心煩하는 것은 硃砂安神丸을 함께 복용하여 치료한다. 腎傷寒으로 발이 차고 脈이 沈細한 것은 陰症에서 나타나는 煩症이니 급히 人參四逆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9. 煩躁는 表邪로 인한 것은 겨울에는 大靑龍湯, 三時에는 十味芎蘇散에 石膏 麻黃을 加하고, 기후가 아주 따뜻할 때는 九味沖和湯에 麻黃을 더한 것과 六神通解散으로 치료하며, 燥尿로 인한 煩躁는 調胃承氣湯으로 瀉下시키고, 元氣가 虛한 경우에는 蜜導法으로 疏通시키고, 裏邪로 인한 煩躁는 黃連解毒湯에 白虎湯을 합하고 竹葉을 加하여 치료하며, 火劫으로 인한 煩躁는 小柴胡加龍骨牡蠣湯에 黃連 山梔子를 加하여 치료하고, 陽虛로 인한 煩躁는 薑附湯 茯苓四逆湯으로 치료하며, 陰盛拒陽으로 인한 煩躁는 霹靂酸 生脈四逆湯이나 쑥을 달인 물에 硫黃末 2,3錢을 調服하여 치료하고, 血虛로 인한 煩躁는 當歸補血湯으로 치료하고, 痰火로 인한 煩躁는 溫膽湯에 辰砂 瓜蒌仁 桔梗 竹瀝 薑汁少量을 加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10. 太陽頭痛은 後頭痛이니 傷寒證에는 겨울에 麻黃湯 三時에 芎蘇散 沖和湯 正氣散으로 치료하고, 中風證에는 겨울에 桂枝湯 三時에 加減沖和湯 羌活散을 쓴다. 陽明頭痛은 前頭痛이니 陽明經證에는 人參 白虎湯으로, 陽明府證에는 承氣湯으로 치료하며,

少陽頭痛은 偏頭痛이니 小柴胡湯에 川芎을 加하여 치료한다. 또한 厥陰頭痛은 冷氣가 상승하여 발생하니 吳茱萸四逆湯으로 치료하고, 痰涎이 胸中에 壅滯한 두통에는 瓜蒂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11. 『傷寒全生集』에서는 藥物의 아래에 藥量을 정하지 않고 上 中 下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君藥은 上, 臣藥은 中佐, 使藥은 下로 표시한 것으로 醫師가 病의 정도에 따라 藥量을 任意用之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參考文獻

1.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33, 445.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 122, 129, 142, 268.
3. 陶華. 傷寒全生集, 眉壽堂刻本 影印本. 利 p.9, 貞 pp.9-10, 貞 pp.50-51.
4.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2.
5. 王好古. 東垣十種醫書(此事難知).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276.
6.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46.
7.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38.
8. 俞根初原著. 三訂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60, 64, 66, 367, 493, 551.
9. 李杲. 東垣醫集(蘭室秘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43.
10. 李杲. 東垣醫集(內外傷辨惑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9.
11. 李杲. 東垣醫集(脾胃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81.
12. 李梴. 醫學入門. 南昌.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p.245, 644, 645, 647, 650, 673, 677, 679, 680, 686, 689.
13.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604.
14.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208.

15.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p.439, 456.
16. 陳紀藩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201.
17. 陳士鐸. 增補百病辨證錄. 書苑堂 影印本. p.83.
18.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55, 63, 68, 69, 141.
19. 許浚. 東醫寶鑑. 서울. 東醫寶鑑出版社. 2005. p.402, 730, 1052, 1053, 1070, 1073, 1129, 1195, 1234, 1293, 1328, 1487, 1790, 1889.